

국립국어원 2008-01-02

발간등록번호

11-1370252-000105-01

## 국어능력검정모의시험 방법 연구

연구책임자 김동환

##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국어능력검정모의시험 방법 연구”에 관하여 귀 원과 체결한 연구용역 계약에 의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07년 12월 31일

(재)한국언어문화연구원

연구책임자: 김동환(한성대학교)

공동연구원: 김성규(서울대학교)

백순근(서울대학교)

이도영(춘천교육대학교)

김창원(경인교육대학교)

## 차 례

I. 사업의 개요 및 경과 .....	1
1. 사업의 개요 .....	1
2. 사업의 경과 .....	4
II. 사업 영역별 수행 내역 .....	6
1. 문항 개발 영역 .....	6
2. 표본 추출 및 대상 선정 영역 .....	17
3. 출제 영역 .....	29
III. 사업 수행 결과물 .....	40
1. 예비 시험 문제 .....	40
2. 평가 결과 및 분석 내용 .....	110
3. 전문가 검토 의견 및 반영 내역 .....	124

4. 평가 결과 반영 수정 문제 .....	137
IV. 본 평가 사업 수행과 관련된 제안 .....	144

## 표 목 차

<표 1> 행렬표집의 예 .....	19
<표 2> 예비시험의 표본 대상 대학과 표본 수 .....	28
<표 3> 평가목표 이원분류표 및 문항 배정 .....	29
<표 4> 영역별 문항 수 .....	30
<표 5> 문항 출제 위원 .....	37
<표 6> 점수별 분포도 .....	115
<표 7> 문항별 종합 분석표 .....	117
<표 8> 정답률 분포도 .....	118
<표 9> 변별도 분포도 .....	121
<표 10> 요인 분석값 .....	122
<표 11> 수정된 문항 구성안 .....	127
<표 12> 듣기 영역 검사지의 구성 및 검사 결과 .....	129
<표 13> 듣기 영역 정답률 구간별 문항 분포 .....	130
<표 14> 쓰기 영역 검사지의 구성 및 검사 결과 .....	131
<표 15> 쓰기 영역 정답률 구간별 문항 분포 .....	132

## 그림 목 차

- <그림 1> 점수별 분포도 ..... 115
- <그림 2> 정답률 분포도 ..... 118
- <그림 3> 문항별 정답률 ..... 119
- <그림 4> 변별도 분포도 ..... 120
- <그림 5> 문항별 변별도 ..... 121
- <그림 6> 요인분석표 ..... 122
- <그림 7> IRT 분석 ..... 123

# I. 사업의 개요 및 경과

## 1. 사업의 개요

### 1) 사업수행의 배경

국민의 국어능력 평가는 국어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업이며, 국민의 국어능력에 대한 평가 및 분석 결과는 국어 정책 수행에 대한 평가와 반성의 기준점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국어 정책의 수립은 구체적인 근거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문 문화 분야에서는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수치에 근거하여 정책을 수립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국민의 외래어 남용이 심각하다거나 어문 규범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거나 하는 추상적·개략적 판단에 따라 국어 정책이 수립된다면,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가 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객관적이고 신뢰도가 높은 평가 도구를 이용한 국어능력 평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어 능력에 대한 평가는 바람직한 국어 문화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을 고조시키고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주기적인 조사를 통하여 산출된 결과를 이용하여 현재와 과거의 국어사용 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현재의 국어사용 실태가 과거에 비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이로써 국어사용 실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질 수 있으며, 바람직한 국어 문화를 이룩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국가 단위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객관성 있고 타당한 평가 도구 모형의 개발과 적절한 시행 방식에 대한 연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구체적인 평가 문항 개발과 검증 도구 방법 창안, 출제 및 시행 계획 설정은 매우 현실적이고 필수적인 일이

될 것이다. 이런 필요성에 공감한 연구자들이 모여 본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본 사업은 2006년도 국립국어원 용역사업 <국어 능력 평가 조사 방법 연구>(연구책임자 김성규)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실질적 문항 개발 지침 마련을 위한 자료 확보와 기술적 접근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 2) 사업 수행의 목표와 방향

본 사업팀은 과업 수행의 목표와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각 목표와 방향은 과업이 실제적으로 요구하는 바를 바탕으로 삼고, 그 실현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수행 능력원(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밝히는 방식으로 간략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능력원을 중시한 것은 '국어능력'이라는 추상적 대상을 평가하기 위한 작업은 이와 유사하거나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 경험을 우선적으로 필요로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의 학교 현장에서의 학력 평가나 대학 입시를 위한 평가 등이 특정한 대상을 전제로 하는 데 비해, 국민의 국어능력은 종합적이고 보편적인 성격을 띠기에 기존의 각종 평가를 통해 습득된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 □ 객관성과 타당성 추구

국민의 국어능력을 보다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게 평가하기 위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도구를 개발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각종 평가 도구 개발과 관련된 연구 및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들을 충분히 확보하고 활용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는 국내의 각종(한)국어능력 평가 시험에 참여한 적이 있는 경험자들 중에서 해당 출제 문항에 대한 검증을 받았음이 인정되는 인력을 확보하였다. 그 인력들에 대한 정보는 따로 제시한다.

## □ 정확성과 효율성 제고

평가 도구는 엄정한 검증과정을 통해 정확성과 효율성을 지닌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구체적인 방향으로 예비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분석적인 접근을 시도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역량을 결집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가장 영향력 있는 시험이라 할 수 있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중심으로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 등 각종 채용시험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다. 이는 본 사업이 다른 시험들과는 달리 불특정 다수, 즉 목적의식에 의해 형성된 시험 집단과는 다른 데서 오는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기 위함이다. 정확한 능력 측정과 효율적인 측정을 위한 장치였다.

## □ 실천성과 향상성 지향

국어 능력 평가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실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화·구조화되어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출제 지침, 시행 절차, 지속적인 프로그램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구체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예비시험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고 문항 출제의 원칙과 세부 방침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2. 사업의 경과

### 1) 사업 수행 일정 및 수행 체계

사업의 주요내용	추진 일정(월별)					
	8	9	10	11	12	비고
전체 추진 계획 확정	●					
사업팀별 추진 방향과 업무 분담 0 문항 개발팀 0 표본 추출 및 대상 선정 팀 0 출제 팀		●				
기존 연구 결과(시험) 검토 팀별		●				
세부 사업별 시행 방법 확정		●				
영역별 문항 개발 및 검토		●				
개발 문항에 따른 출제		●	●			연구보조원
표본 추출 및 대상 선정			●	●		
출제 문항 전체 검토			●			
예비 시험지 완성				●		
예비 시험 실시				●	●	
예비 시험 결과 분석					●	
전문가 자문 회의					●	
문제점 추출 및 보완책 강구					●	
보완책에 따른 대안 검토					●	
2008년도 평가 출제 지침 논의					●	
전문가 자문 및 평가회의					●	
보고서 작성					●	

\* 연구보조원은 연구원의 관리 하에 개발된 문제 유형을 바탕으로 예비 시험 문제를 출제 함.

## 2) 과업 수행 체계

세부 과업 내용	연구진			연구 지원
	책임연구원 (전공)	연구원 (전공)	연구 보조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행 총괄</li> <li>- 읽기 문항 개발 및 출제 관리</li> <li>- 표본 추출</li> <li>- 출제 문제 검토</li> <li>- 예비 시험 실시</li> </ul>	1 (현대문학)		2	국어능력 인증시험 기초영역 출제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읽기 문항 개발 및 출제 관리</li> <li>- 지수 산정 방법</li> <li>- 출제 문제 검토</li> <li>- 예비 시험</li> </ul>		1 (국어학)	1	국어능력 인증시험 읽기영역 출제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듣기 문항 개발 및 출제 관리</li> <li>- 조사 점수 체계</li> <li>- 출제 문제 검토</li> </ul>		1 (국어교육)	1	국어능력 인증시험 듣기영역 출제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쓰기 문항 개발 및 출제 관리</li> <li>- 조사 방법</li> <li>- 출제 문제 검토</li> </ul>		1 (국어교육)	1	국어능력 인증시험 쓰기영역 출제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 점수 체계</li> <li>- 지수 산정 방법</li> <li>- 표본 추출 방법</li> <li>- 조사 방법</li> <li>- 결과 분석</li> </ul>		1 (교육학)	1	
인원	1	4	6	

## II. 사업 영역별 수행 내역

본 사업은 과업 수행의 범주와 수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시행하였다. 그 구체적인 설정 내용과 수행 내용을 영역별·단계별로 적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문항 개발 영역

과업의 출발점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실제 평가 문항을 개발하는 데 두었다. 그리고 국어능력의 영역을 듣기, 읽기, 쓰기의 세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학교 교육에서는 말하기 능력을 동일한 위상의 영역으로 설정하고 있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특성을 감안할 때 평가 도구 개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제외하기로 하였다.

이 단계에서 이루어진 세부 수행 내역은 다음과 같다.

#### 1) 기초 자료 조사

본 사업에서는 문항 개발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시험들을 분석하여 전체적인 틀을 짜는 데 참조하였다.

- \* 대학수학능력시험 - 한국교육과정평가원(본고사 및 모의고사)
- \* 한국어능력시험(TOPIK)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 국어능력인증시험 - (재)한국언어문화연구원(성인용과 주니어용)
- \* KBS 한국어능력시험 - KBS 한국어진흥원
- \* JLPT (Japanese Language Proficiency Test) - 일본 국제교류기금
- \* JPT (Japanese Proficiency Test) -駿台 외국어종합학원
- \* 중국한어수평고시(Chinese Proficiency Test) - 중국국가한어수평고시위원회

이 사례들에 대해 시험의 성격, 성격을 구현하기 위한 영역 설정 및 평가의 방식, 문항의 구성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특히 해당 기관의 협조를 얻어 선택지 반응, 변별도 등의 시험 결과를 자체 분석함으로써 문항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각 요소별 분석 내용은 출제과정에서 활용되었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고려할 변수(인)'로 정리하였다.

## □ 변수들

○ 교과서와 같은 제도적인 장치들이 국어 능력의 형성 과정에 고려할 만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 다음 항목에서도 살펴보겠지만 표집 과정에서 연령대는 매우 중요한 고려요소이다. 그런데 이 연령대는 곧바로 국어 능력의 양상을 결정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국어능력은 교육과 불가분의 관련을 가지는데, 교과서는 그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인자가 될 것이다. 즉 어떤 지향점을 지닌 교과서를 통해 국어교육을 받았는가, 어떤 과목의 교과서를 배웠는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것이다. 예를 들어 문법이나 국어 지식을 중심으로 구성된 국어 교과서를 통해 배운 연령대와 언어활동을 중심으로 구성된 교과서를 배운 연령대는 그 반응이 다를 것이다. 당연히 어떤 성격의 교과서에 기반을 두고 평가 도구가 만들어졌는가도 중요한 차이를 유도할 것이다. 예를 들어 평가 대상에 60대까지 포함한다고 했을 때, 당대의 교육과정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최근의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평가도구를 만들었을 때, 그 도구에 대한 접근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 접근성 자체를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도구의 불합리함으로 볼 수 있다. 모의시험의 결과 정답률이 현저히 낮거나 역정답률을 보인 문항들의 경우 이런 변수를

적절하게 해결하여 반영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중요한 시험을 통해 경험한 언어적 감각이나 지식이 성인의 국어 능력을 구성하는 근거의 하나로 작용할 것이다.

- 우리 사회에서 입학시험은 오랫동안 구성원들의 국어 활동 양상이나 능력에 많은 영향을 끼쳐 왔을 것임은 분명한 일이다. 그리고 각 세대 별로 그 양상은 사뭇 달랐기에 국어 능력을 어떤 맥락에서 찾아야 할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데 그 일차적인 연관성은 표집 단계에서 찾을 수 있다. 만일 표집의 기준을 대표성과 전형성에 둔다면 해당 세대의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국어 활동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형식이 달라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표집의 양상이 도구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셈이 된다. 어떤 방식(사지택일, 오지택일, 단답식 등)으로 묻느냐에 따라 반응 양상이나 표출 양상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평가 도구가 먼저 확정된다면 그 평가 도구와 표집 대상이 세대의 경험 양상을 고려한 지수 산정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어느 쪽이든 표집 과정에서는 언중 세대들이 지니고 있을 시험에 대한 경험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모의시험에서는 표본 집단을 대학생들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보편적으로 경험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오지택일형 객관식 문제를 주된 형식으로 택하게 되었다.

○ 성인의 국어 능력의 변별적인 자질들은 직업의 성격이나 직위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질 것이다.

- 일차적으로 고려가 될 요소인 연령이나 세대를 검토할 때, 해당 연령이나 세대 군에 속하는 구성원들 중 어떠한 사람들을 선택하느냐는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같은 연령대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국어 활동과 관련된 의미 있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

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 대상이 되었을 때 보여 줄 반응 양상은 매우 다른 것임은 자명하다. 따라서 어떤 직업군이나 직위군을 선정할 지에 대한 보다 분명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모의시험에서는 이 문제를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강의 및 수강생의 형태에서도 드러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정규학기 대 계절학기, 인문계열 대 비인문계열의 대타항을 고려하는 맥락에서 집단을 선정하였다.

○ 고도의 국어 사용 환경 속에 놓여 있는 개인들(국어교사, 아나운서, 학원 강사, 세일즈맨, 관광 가이드 등)을 국어 능력의 정점군(頂點郡)에 속한 구성인자들로 보아야 한다.

- 국어 능력 평가 목적을 국민들의 국어 능력을 전반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장기적인 정책 과제의 맥락에서 찾게 될 때, 이러한 가정은 매우 유용할 것이다. 이들 정점군에 속하는 인자들의 능력을 먼저 측정하고 그 결과치를 도달치로 상정하고 다양한 집단의 능력을 상대적인 지수로 환산할 수 있을 것이다. 주기적인 평가를 하게 될 경우에도 준거 집단이 명시적으로 설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작업이 될 것이다. 목적이 이와 같지 않더라도 이러한 인자들을 별개의 측정 집단으로 삼아 다양한 준거로 활용한다면 다양한 분석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모의시험에서는 이 변수들을 특별히 고려하지 못했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볼 때 대학생들이 지니는 위상이 이런 변수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 2) 이론과 경험의 조화

기초 자료 조사는 문항 개발의 토대가 되기는 하겠지만 그것 자체가 문항 개발의 전거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기존 시험들을 기획하고 출제·관리한 경험을 지닌 인력과 평가 이론을 전공한 인력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록 하였다. 국민의 국어 능력 평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력 성취도 평가나 대학 입시를 위한 평가와는 그 접근 태도부터가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과 이론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연구원들은 모두 대학수학능력시험, 의·치대 대학원 시험, 공직적성 시험, 공무원시험 등에 수차례 이상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관련 전공 또한 국어교과학 및 교육학, 인접 학문을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지로 제시하고자 한다.

### 3) 차별성을 지닌, 유형별 평가 문항 개발

듣기, 읽기, 쓰기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들을 개발하는 일은 각 영역별로 평가의 틀을 확정된 후 이원목적분류에 따른 개별화 과정으로 이어지게 된다. 중요한 것은 다른 기존의 각종 시험들과 분명한 차별성을 지닌 문항 개발에 역점을 두려고 한다는 점이었다. 평가 문항은 관습화되고 양식화될 때 평가 도구로서의 성격이 약화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고려사항이 개입하게 된다. 이런 점들을 위해 다양한 대상을 선별하여 여러 측면에서 분석하고 고려 사항들을 적출하였다. 특히 선택지 반응률, 변별도 등을 중심으로 한 문항의 타당성 검토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중요한 작업이 되었다.

### 4) 표본 추출과 문항 작성의 상관성

표본 추출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여러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상정하기 위한 한 사례로 모의 문항 작성을 들어보고자 한다. 이 방식은 특히 평가 도구 개발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는 점에서 더욱 실제적인 작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작업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단계로 나누어 살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유의할 것은 문항의 작성과정과 표본의 선택 과정이 선후 관계에서 고정적이지 않다는 점을 고려

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는 표본의 추출이 먼저 이루어지지만 문항 작성 과정에서 표본 추출의 세부적인 기준들이 마련될 수 있음을 말하고자 한다.

## □ 문항 출제를 위한 제재 선택의 단계

문항 출제를 위한 제재의 경우 일상적인 제재와 비일상적인 제재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이 제재의 성격은 피조사자의 연령 요소와 밀접적으로 연결된다. 학술적인 내용과 문제를 담고 있는 비일상적 제재들의 경우에는 텍스트 조직이나 구성, 표현 방식에서 시간에 따라 큰 변화를 수반하지는 않는다. 한자 표기의 비율 정도가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상적인 제재의 경우에는 상당한 차이가 노출된다. 그 차이는 표현상의 문제나 구성상의 문제를 동시에 포함하게 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문항을 예로 들어 보자.

-----  
\* 다음 시사만화는 프랑스가 우리나라에서 가져간 ‘외규장각도서’의 반환 문제와 관련된 사실을 다루고 있다. 만화의 구성요소들에 대한 설명 중 나머지 셋과 그 맥락이 다른 것은?



- ① ‘가족 면회’라는 말은 완전히 돌려 줄 의사가 없음을 뜻한다.
- ② 오른쪽 인물의 수염과 머리는 오랜 세월이 흘렀음을 나타낸다.
- ③ 벽에 그려진 기호 중 ‘正’은 ‘당연히 해야 할 일 - 정의(正義)’를 의미한다.
- ④ 왼쪽 인물은 프랑스가 선심을 베푸는 것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 문항에 대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가 대부분인 원래의 입시 수험생들은 42%의 정답률을 보였다. 서울 시내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할 때 학급에서 7-8위권의 학습 성적을 보이는 학생들의 경우이다. 그런데 이 문항을 초등학교 교감 연수에서 수업 중에 제시하고 풀게 한 결과 85%의 정답률을 보였다.

입시생들의 경우 선택지 ①, ④에도 상당한 비율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그렇다면 이런 차이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일반적인 가정으로는 고등학교 입시생이 전반적인 국어능력에서 보다 높은 결과치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런 문항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그 이유는 기호와 같은 소통 요소에 대한 경험이나 환경의 차이에서 비롯될 것이다. 이 제재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正’자이다. 최근에는 이 기호를 숫자를 세는 단위로 사용하는 양상이 예전과는 다르다. 즉 어느 정도의 나이가 있는 층에서는 익숙한 기호 사용이지만 10대나 20대의 경우에는 ‘##’ 와 함께 그리 익숙하지 않은 기호이다. 당연히 반응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기호들을 포함하고 있는 텍스트를 제재로 선택하게 (해야) 된다면 표본 추출과정에서는 이러한 의미 있는 언어적 요소들에 대한 경험 유무를 고려하여 표본을 추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 문항의 구성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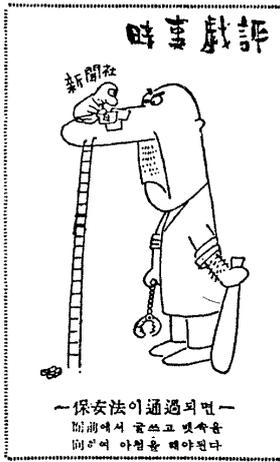
앞에서 검토한 제재의 선정과 관련된 문항의 경우 하나의 제재에 대한 세밀한 ‘읽기’ 능력을 평가하려는 성격을 지닌 문항이 될 것이다. 이에 비해 문항의 구성 단계와 관련된 문항의 경우 언어적 텍스트의 비교 해독 능력 및 심층적인 해독 능력을 측정하려는 성격을 지닌 문항이 초점에 놓일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통시적 측면과 공시적 측면에서의 표본 선정과 관련된 경우를 염두에 두게 된다.

### ○ 통시적 측면의 고려

다음 문항은 1950년대와 2000년대의 텍스트를 결합하여 구성한 것이다. 이 문항은 우선적으로 국어능력 시험이 현재적인 텍스트만을 문제 삼아야 할 것인지와 특정 표본들을 고려한 텍스트를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동시에 던져 준다.

이러한 접근 통로는 또한 표본추출 과정에서 특정한 요인을 지닌(예를 들어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이슈가 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 대한 고려를 염두에 둘 때 의미 있는 계층으로서의 60대) 집단을 추출하게 될 때 어떤 구체적인 요인 선정 기준을 세울 것인지 가늠하게 해 줄 것이다. 즉 국어 능력의 측정 대상이 될 60대 정도라면 왼쪽 텍스트가 지니고 있는 문제의식을 인식할 정도의 경험요소를 지니고 있어야 의미 있는 표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렇듯 문항 구성 단계에서는 표본 추출의 매우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 다음 두 만화에 나타나는 인물들의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은?



- ① 강약(強弱)    ② 친소(親疎)    ③ 협력(協力)    ④ 대립(對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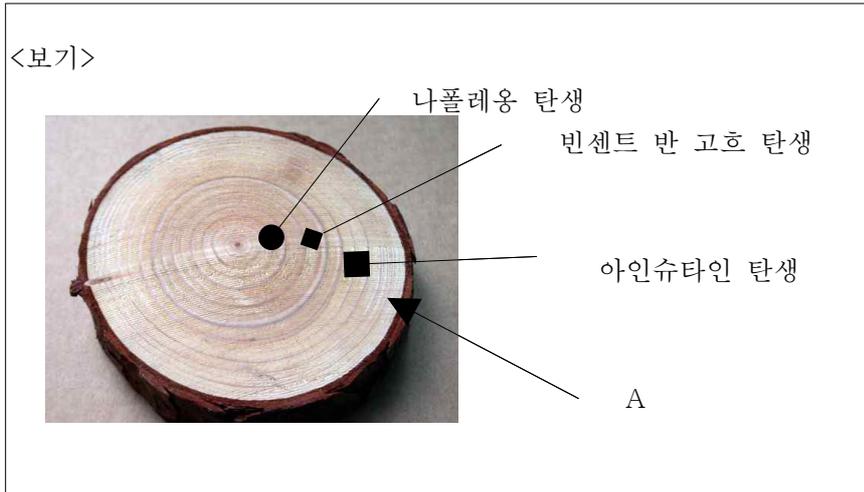
### ○ 공시적 측면

앞 문항이 표본의 연령대와 같은 통시적인 측면을 문제 삼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문항의 작성 단계에서는 공시적인 문제가 개입하게 된다.

광고 텍스트는 현대의 언어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표현물일 것이다. 그렇기에 광고 텍스트를 통해 언어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은 필수적일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광고 텍스트는 경우에 따라 측정 도구로서 매우 부적합할 수 있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 광고 자체를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이다. 피조사자들의 집단적 성격에 따라 해당 광고를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을 터인데, 어느 쪽이냐에 따라 반응 양상은 매우 다를 것이며, 평가 도구로서의 의미가 반감될 것이다. 광고의 속성 상 기본 concept이나 대상을 어느 정도만 알고 있어도 접근 양상은 현저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새로운 광고를 만들어 제시하면 되겠지만 그 작업은 여러 여건 상 무리가 따를 것이다. 제대로 된 광고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다른 인력, 비용 등이 전제되기 때문이다.

-----

\* <보기>는 어떤 공익광고이다. A에 들어갈 수 있는 말들 중 공익광고로서의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것은?



- ① 전쟁이라는 개념의 탄생
- ② 히틀러와 무솔리니 탄생
- ③ 이 나무를 자른 인간 탄생
- ④ 자연보호운동의 창시자 탄생

-----

이 문항을 대학생 집단에 투여하여 측정을 해 본 결과 어느 단과대학의 신입생이냐에 따라 선택지 반응률에 차이를 보였다. 물론 기본적으로 차이가 개재되는 경우이기는 하지만 다른 문항들에서 나타나는 수치보다 더 크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또 이 문항을 같은 대학의 재학생들에게 보인 결과는 또 다르게 나타났다. 재학생들의 경우 수험생보다 상당히 높은 정답률을 보였다. 같은 시대에서도 어떤 내용적 요소들을 다루느냐에 따라 다양한 능력 층위가 존재할 것임을 말해 준다.

이 같은 사실은 교육이나 지식의 속성 및 정도가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 바꾸어 본다면 표본 추출과 문항 구성은 유기적인 관련을 맺어야 함을 말해준다. 특히 앞서 제시한 바 있는 층화무작위 추출을

시도한다면 각 단계마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 지역 20대 중 표본을 추출한다고 할 때, 대학 수학 여부, 대학 배정, 전공별 안배 등이 층화를 이루도록 하는 식이다.

## 2. 표본 추출 및 대상 선정 영역

앞서 설명한 방향성에 의거해 개발된 문항은 예비 시험을 통해 실제적인 평가 문항으로서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 받게 되는데, 시험을 치르게 될 표본의 선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통해 이루어졌다.

### 1) 표본 추출 및 대상 선정과 관련된 이론적 접근

사회 구성원의 국어능력을 평가하는 일은 많은 변수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중에서도 “왜 평가하는가?”라는 평가 목적은 가장 우선 순위의 변수라 할 수 있다. 평가의 목적에 따라 조사 대상을 정할 기준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 평가를 통해 “한국인의 평균적인 국어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평생교육으로서의 국어 정책의 방향을 수립한다.”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할 경우, 국어 능력이 부족하리라 판단되는 집단이나 계층을 중심으로 대상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또는 “의무 교육 등의 공교육 체계 내에서 이루어질 국어 교육의 방향을 정하는 데 자료로 삼는다.”라는 목적이라면 바람직한 국어 능력을 지닌 성인 그룹과 각급 학교 학생 그룹들을 대상으로 삼아 상대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

그러나 평가 목적을 지나치게 한정적으로 설정하면 본 조사결과의 효율성이나 생산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목적을 보다 포괄적으로 설정한다는 원칙하에 설계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경제활동 참가 비율은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언어사용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가장 포괄적인 목적을 ‘정상적인 사회생활 영위’라는 맥락에서 찾을 때, 경제활동 참가 여부는 대상자의 선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평가 목적에 따른 표집 과정에서 전제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들로 는 전형성, 대표성, 임의성을 들 수 있다. 피조사자의 범주로 설정된

집단이 있다고 할 때 전수 조사는 불가능하므로 그 집단의 전형성(典型性)을 보여줄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해야 하는데, 이때에는 다양한 사회·경제 지표 등을 활용하게 된다. 대표성(代表性)은 범주별로 어떤 지향적인 국어능력을 보이는 표본을 추출하고자 할 때 각 범주에서 요구되는 대표적 능력 요소를 설정할 경우에 필요하다. 앞서 설명한 바 있는 가정에서 다른 바 있는 '정점군'의 맥락과 통한다. 임의성(任意性)은 인력이나 시간, 예산의 문제로 전수조사가 불가능하여 표본을 추출해야 할 때, 전수조사와 같은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책과 관련된다. 이 연구에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 임의성을 최대치의 효용성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지에 대해 다양한 조사방법론을 검토하였다.

## □ 표집 방법

표집 방법(sampling method, 혹은 표본 추출법)은 크게 확률적 방법과 비확률적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확률적 방법이란 표집치를 통하여 전집치를 추정하거나 전집의 특성에 대해 통계적인 가설 검증을 하기 위해 시행하는 방법으로, 전집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낼 것이라 추정되는 요소들을 확률·통계적으로 적절하게 표집하는 것이다. 전집치를 추정하는 데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나 많은 수의 표집이 필요하므로 조사비용 및 시행에 어려움이 많다는 단점이 있다. 비확률적 방법이란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임의로 표집하는 것으로 전집치를 정확히 추정하는 데 문제가 많다.

이 연구는 조사 방법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확률적 방법을 표집 방법의 원칙으로 삼는다. 확률적 방법 중에서는 표본 집단의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고, 세부 분류에 따른 집단의 동질성 및 집단별 세부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본 연구의 성격을 고려하여 층화추출법 또는 유층표집(stratified sampling)을 통해 연령별, 성별, 지역별, 직업군별 하위집단을 분류한다.

층화추출법에서는 우선 조사대상이 되는 모집단(母集團)을 몇 개의

집단으로 나누는데, 그 하나하나를 층이라 부른다. 다음에, 각 층을 모집단으로 생각하여 어떤 방법으로 미리 할당된 수에 따라 각 층에서 표본을 추출한다. 이때에는 보통 사용하는 임의추출법·집락추출법(集落抽出法)이나 기타 방법을 이용하게 된다. 이 경우 층마다 별개의 추출법을 써도 무방하다. 최후에 얻어낸 자료를 정리하고 이것을 근거로 하여 모집단에 대한 추측을 행한다. 일반적으로 모집단에 관하여 추측할 경우 무층화임의추출법(無層化任意抽出法)보다 층화추출법에 의한 쪽이 더 유리하다.

층화추출법의 경우에도 그 층을 몇 단계로 나누느냐에 따라 표본의 속성이 달라진다. 예를 들면 어떤 시를 선택하고(1층) 다시 그 시에 있는 한 고등학교를 선택하며(2층), 그 학교의 한 학급을 선택하게 되면(3층) 층화 3단 추출법이 된다. 이러한 층화 추출법은 평가 목적에 따른 다양한 변인을 고려해야 하는 본 연구의 경우에 적합한 방법으로 판단했다.

또한 최대한 표집된 국민에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평가 문항을 평가항목별로 세분하고, 대상 표본 집단에게 이를 분할하여 표집하는 행렬표집(matrix sampling) 방식의 도입도 고려한다.

<표 1> 행렬표집의 예

항 목 \ 표 집	읽기	듣기	쓰기
표 집 A	시험 시행		
표 집 B		시험 시행	
표 집 C			시험 시행

본 연구는 조사 방법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확률적 방법을 표집 방법의 원칙으로 삼되, 필요할 경우 유사 시험이나 특정 집단에 대한 평가를 통해 비확률적 방법 중 하나인 할당 표집 방식도 병행할 것이다.

## □ 평가 대상자의 변인 고려

### ○ 배경 변인 확보

– 주관적 평가 : 평가에 앞서 수험자가 본인의 국어 능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알아본다. 이는 자신의 국어 능력에 대한 평가와 실제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 ○ 객관적 변인 요소

- 연령, 지역, 학력, 경제활동 여부 등의 객관적 요소를 고려하여 평가 도구에 따른 의미 도출을 위한 접근을 한다.
-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로 구분
- 남자/여자로 구분
- 대도시/중·소도시/읍면 지역으로 구분
- 방언권으로 구분
- 직업군에 따른 구분

## □ 구체적인 평가 대상자 표집 시 고려사항

이번 모의시험을 설계하면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표집 방법(1차년도 기초 연구 시 제안한 내용 포함)을 검토하였다.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고려사항들이 여전히 제기되었다.

- 가능한 방법(구체적인 예 참조)을 동원하여 시도별 인구 비율과 연령대별 인구 비율을 고려하여 표집한다.
- 표집 규모는 각 연령대별로 안배하여 최소 3000명 정도는 확보되어야 한다. 연령대별 안배 내역은 본 시험의 목표에 따라 가변적으로 한다.
- 표집은 유층표집과 행렬표집 방식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는 할당 표집 방식을 도입한다.

○ 평가 대상자 표집 방법의 구체적인 예

－ 직장인

- ① 직장 단위로 입사 및 승진 등 평가 시험 협조/기업 인사담당자에게 협조 요청
- ② 읽기, 듣기, 쓰기를 동일 연도에 조사할 경우 각 영역 중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정도(50분×2=100분)만 치르게 될 가능성이 높음. 이때 '읽기-듣기/읽기-쓰기, 듣기-쓰기' 형식으로 묶어서 제안할 필요가 있음.
- ③ 직무 능력 평가와 연계되어 상호 비용이 절감될 수 있음.
- ④ 점수 자체가 취직, 진급 등과 관련이 있어서 동일한 검사지로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대학생

- ① 정규 학기 강의 시간 확보
- ② 계절 학기 등 비정규 강의 시간 확보
- ③ 국어상담소 중 대학교 소속 상담소 협조 요청(9개소)
- ④ 국어상담소 중 '국어단체연합 국어상담소'는 협의하에 자체적 시행 계획을 세워 시행함. 이때 조사 사례비 지급 가능함.

－ 고등학생

- ① 지역별 고등학교 국어 담당 교사 협조 요청
- ② 방학 중 특별활동의 일환 : 담당교사의 협조
- ③ 국어능력 평가라는 흡인 요소(국어교과능력 평가의 일환)를 활용

－ 주부

- ① 각급 학교장 협조 요청
- ② 어머니회의 경우 임원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임.
- ③ 자녀 교육과의 연계성을 통한 자발적 참여 유도

- 군인 등 의무 이행 집단

- ① 국방부 또는 산하 단위 부대 협조 요청. 의무교육 이후 엇비슷한 기간이 경과한, 다양한 신분과 경력의 경험자들이 평균적으로 모인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대상임.
- ② 군인 이외에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집단들의 경우를 폭넓게 활용함. 예비군 훈련 대상자들도 좋은 대상자임.

\* 참고: 미국의 문식성 조사의 경우 재소자 집단을 중요한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음.

- 노년층

- ① 한국평생교육노인대학협의회(중앙회 및 지부 8개소) 등에 협조 요청
- ② 실버시대에 재취업을 희망하는 층을 겨냥한 참여 요소 개발 (재취업 업종 중 국어능력과 관련된 업종 등 고려)

-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 수강생 : 국어원 협조

- ① 수강 대상이 한정적이라는 문제가 있음. 주요 평가 대상이라기보다 필요 시 대상자를 표집할 수 있는 집단임.
- ② 원내 국어문화학교 강좌 수강생 수: 2000년 13회 1,113명 / 2001년 19회 1,264명 / 2002년 19회 1,451명 / 2003년 17회 1,602명 / 2004년 17회 1,458명 / 2005년 17회 1,765명
- ③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강좌 수강생 수: 2001년:126회, 15,538명 / 2002년:182회, 6,561명 / 2003년:155회, 16,824명 / 2004년:176회, 16,332명 / 2005년:184회, 15,120명

- 한국언어문화연구원 국어능력인증시험 수험생

- ① 특정 목표를 가지고 시험에 응시한 집단이므로 평가의 중요 집단이라기보다는 참고 자료로 이용할 수 있음.

- ② 문제점: 점수 자체가 취직, 진급, 진학 등과 관련이 있어서 동일한 문항으로 동일 시간에 치러야 한다는 문제가 있음.
- ③ 한국언어문화연구원의 국어능력인증시험의 경우 시간과 문항 수가 본 과제가 계획하고 있는 성인의 국어능력 평가를 위한 틀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일부 문항 출제를 협조하고 조사 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

## □ 평가 대상 특정화 가능성

모의시험의 설계 과정에서 평가 대상을 10대에서 60대까지, 각 지역의 각종 직업군으로 넓게 잡고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듣기, 쓰기, 읽기 및 말하기를 한 번에 실시하면서 각 집단을 모두 표집할 경우 조사 경험의 미축적으로 인해 실제로는 신뢰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정 집단만을 대상으로 우선적인 조사를 할 가능성도 열어 둘 필요가 있다. 즉 조사의 1차년도에는 특정 집단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보완하여 2차년도 이후 전 집단으로 평가 대상을 넓혀가는 방법이다. 실제적으로 이번 모의시험에서는 연구자들이 접근하기에 가장 수월한 집단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 변수들

이번 모의시험의 설계과정에서 표본선정과 관련된 논의 쟁점들을 정리하면서 다음과 같은 변수들을 정리해 내게 되었다.

○ 국어 능력은 개인차를 보일 것이다.

- 한 개인의 능력도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 어떤 요소를 가지고 측정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개인차를 얼마나 유의미

하게 측정해낼 수 있느냐, 그러한 개인차가 왜 발생했는지를 고려할 수 있느냐를 염두에 둔 표본 추출이 이루어지도록 고려하였다. 언어 능력이, 타고난 재능과 연관되는 맥락과 교육 등 후천적인 영향과 연관되는 맥락 중 어느 쪽과 보다 상관성이 높은지도 한 측정치가 될 것이다. 이번 시험평가에서는 그 변수들의 중간지대를 형성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수도권과 지방의 몇 개 대학(일반적으로 고등학교에서 중상위권에 속하는 학생들이 지망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학들)을 표본 집단으로 설정하였다.

○ 국어 능력은 변화(향상 또는 감소)할 것이다.

- 표본 추출 과정에서 측정 대상이 되는 '국어능력'의 속성에 대한 고려는 필수적이다. '국어능력' 평가가 일회성 일회성 평가가 아니라 주기적으로 이루어져 관련 제도나 정책의 수립과 개정에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면 이 가정에 대한 검토는 필수적이다. 예를 들자면 주기적인 조사의 초점을 변화의 '양적 현상'에 둘 수도 있고, '질적 현상'에 둘 수도 있을 터인데, 각각의 경우에 따라 특정한 연령대나 집단을 중심에 둘 것인지, 일정한 간격을 둔 두셋 이상의 연령대나 집단을 중심에 둘 것인지가 결정될 것이다. 예를 들어 조사의 목표를 분명하게 '국어능력의 향상을 위한' 쪽에 둔다면 '동질적인 집단'을 추출해 비교가 가능한 방식으로 표본 추출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경우 기준 연도에 표본을 정확하게 설정해 놓으면 다음 시행 연도부터는 그 표본의 속성을 유지하도록 배려만 하면 될 것이다. 대학생들을 표본집단으로 설정한 일차적인 이유는 여기에 있다.

○ 국어 능력은 교육과 밀접한 관련을 가질 것이다.

- 어느 국가에서나 마찬가지로이겠지만 여러 차원의 교육은 국어능력

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중에서도 공교육은 필수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요소이다. 최근에 들어서는 부모들의 취학 전 교육이나 사교육이 공교육을 앞선다는 의견도 개진되고 있으나, 사교육의 방향성 역시 공교육에서 제시된 범주 안에서 설정된다는 점에서 공교육적 요소는 여전히 '국어능력'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 요소는 일차적으로는 표본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대상의 출발선을 결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가장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공교육의 최대치인 '의무교육'을 이수한 이후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의무교육 이상의 고등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가 그것이다. 또한 공교육 이수 후에는 국어능력이 점차 퇴보하게 되는지, 아니면 그것을 바탕으로 일정 기간 발전하다가 다른 요소에 의해 하강하게 되는지 등을 살필 때에도 공교육의 이수 정도는 표본 추출에 중요하게 작용하게 된다. 이번 모의시험에서는 대학 1,2학년, 즉 의무교육을 이수한지 얼마 되지 않은 자원들을 표본으로 설정하고자 하였다.

○ 국어 능력은 사용자(개인)의 자발성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 중·고등학생들이 외국어를 습득할 때 얼마나 자발적으로 하려고 하는지에 따라 그 능력이 많이 달라지는 현상을 보게 된다. 모국어의 경우 생활상·교육상의 필요에 의해 준 강제적인 습득이 이루어지는 측면도 있을 터이지만 자발성의 측면은 여전히 중요 요소가 된다. 최근에 TV 방송에서 유행하고 있는 '퀴즈' 프로그램에서 국어능력에 관련된 문제들을 자주 보게 되는데, 정답을 맞힌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출연자의 평상시 국어능력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목표를 향한 자발적인 의사와 그 수행 의지가 빚어낸 결과일 것이다. 이를 참조한다면 어떤 능력을 지녔다하더라도 피조사가 그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자발적인 의사가 없다면 그 결과는 높은 신뢰성을 얻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피조사가의 참여를 어느 정도 자발성을 보이도록 유도할 것인지가 표본 추출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

다. 이번 모의시험에서는 정규 강의 및 계절 학기 강의에 참석하는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강의 대체 및 평가 결과 제공이라는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성을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 국어 능력은 대체로 잠재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을 것이다.

- 자연인이 지니고 있는 능력의 대부분은 잠재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언어 능력은 사용자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 중의 하나라고 판단된다. 흔히 중·고등학교에 일상적인 언어능력은 아주 높는데 국어 시험은 좋지 않은 경우를 보게 되는데, 언어능력을 충분히 이끌어내지 못하는 시험 때문이라는 분석, 시험 형식으로는 측정 불가능한 요소가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고, 국어 시험 점수와 국어 능력은 다르기 때문이라는 분석 역시 유효하다. 어느 쪽이든 한 사람의 국어 능력을 측정해 낼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가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을 던진다. 이는 표본 추출과도 곧바로 연관되는데 같은 연령, 같은 집단 내에서도 어떤 속성을 지닌 사람들을 겨냥하는 것이 국어 능력 평가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유리한지를 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구어적인 상황과 문어적인 상황 중 어느 한쪽에 기울어 있는 사용자들이 혼재되어 있는 집단의 경우 어떤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양쪽을 적절하게 혼합하여 결과를 추출한 다음 그것을 해당 집단의 국어 능력이라고 할 경우, 결과 해석의 타당성에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은 신체적 장애 상태에 있는 구성원의 경우이다. 시각이나 청각 장애, 정신적 장애 등이 있는 구성원들의 국어능력 평가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해당 구성원들을 어떤 측면에서 표본으로 삼을 지는 평가의 목적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어떤 대상으로서든 분명하게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모의시험의 경우 대학생들은 문어적 상황(수업 등의 상황)과 구어적 상황(교과활동 외 학교생활)

을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 국어 능력의 발현은 계기나 동기, 상황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질 것이다.

- 이 변수는 자발성의 측면과 관련되기도 하지만 이 항목에서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외적인 영향력의 문제이다. 학생들의 경우라면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권유와 그에 따른 기대치 충족의 심리, 조사기관 또는 조사자와의 관계, 소속되어 있는 집단으로부터의 요구 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노인학교와 군대, 회사 등을 비교할 때 해당 기관들은 조사기관이나 조사자의 요청을 수락하게 되면 구성원들에게 일종의 구속력을 행사하게 되는데, 그 정도는 상당한 차이가 날 것이다. 그 과정에서 구속력이 지나치게 클 경우 평가 결과는 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조사 방법과 맞물리는 것이겠지만 표본 추출 과정에서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모의시험에서는 이 변수를 자발성과 맞물리는 것으로 보았는데,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강의담당 교수의 요청이라는 형식이 영향력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평가에서도 대학을 선택하게 된다면 강의와 직접 연관성을 가진 측의 요청이라는 형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2) 예비 시험을 위한 현실적 선택

예비 시험 평가에서는 무엇보다도 표본 추출의 다양한 방법이 실험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볼 수 있는 여건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예산관계로 아무런 반대급부를 제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치러야 하는 만큼 제한적으로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

최선의 선택으로 연구진들은 권역별로 몇 개의 대학을 선택하여 처

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비시험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다.

<표 2> 예비시험의 표본 대상 대학과 표본 수

권역	표본 대상(대학)	표본 수	비고
서울	한성대학교	52명	계절학기 수강생 인문·자연계(주·야)
경기	수원대학교	22명	계절학기 수강생 인문계
강원	강원도립대학교	86명	정규학기 수강생 인문·자연계
충청	청주대학교	107명	계절학기 수강생 인문
전라	전주대학교	11명	계절학기 수강생 인문·자연계
경상	신라대학교	19명	계절학기 수강생
계		297명	

297명의 표본 수는 당초 예상했던 것에 비해 상당히 줄어든 수이다. 일차적으로는 이 시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는 상태인데다, 이 시험에 응시하는 일이 수험자들에게 어떤 유인도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 3시간이 소요되는 수험 시간에 대한 부담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이 국어능력 평가 시험이 유의미한 표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험의 설계자와 주관처의 긴밀한 협조 및 예산 확보, 그리고 표집대상에게 최소한의 책임감 내지는 의무감을 심어줄 수 있는 장치 및 적절한 유인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책임감 내지는 의무감이 강제적인 요소로 작용해서는 안 될 것이나, 응답의 성실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우에 따라서는 조사 수당 지급을 고려해야 한다. 미국의 문식성 실태 조사(NALS)의 경우 1시간의 참여에 20달러를 지급한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3. 출제영역

앞의 단계들을 통해 마련된 구체적인 문항개발 틀이나 양식 등을 적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평가목표 이원분류표 및 문항 배정

평가 문항의 개발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양식의 이원분류표를 작성하여 전체적인 틀을 구상하였다. 구체적인 양상은 다음 항목에서 제시하기로 한다.

<표 3> 평가목표 이원분류표 및 문항 배정

행동 내용		소 양		이 해			표 현			계	
		어휘	규범	사실	추론	비판	변용	효과	논리		
듣 기											
읽기	인 문										
	사 회										
	과 학										
	예술문화										
	문학	시									
가											
산문극											
쓰 기											

\* 행동과 내용 요소는 국어연구원이 설정할 목표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것이다.

## 2) 영역별 문항 유형 및 수

각 영역별 문항 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개발하기로 하였다.

<표 4> 영역별 문항 수

영역	문항 유형	문항 수(비율%)		기타
읽기	선택형	30(100)		6-23 실용문 24-30 비실용문
듣기	선택형	30(100)		
쓰기	선택형/단답형	9	16(100)	
	서술형(1문장)	4		
	서술형(2문장)	2		
	서술형(1-2문단)	1		

## 3) 출제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출제 팀이 출제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설정하였다. 정규 교과과정의 성취 기준 달성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학교 교육 과정의 평가 문항 출제와 관련된 일반적인 출제 원칙에 더하여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국어 평가라는 점을 고려한 결과 아래와 같은 출제 원칙을 설정하였다. 본 시험의 특징적 출제 원칙은 다음 항목에서 상술한다.

## □ 출제 전반

- 응시 대상에게 적절한 접근을 하고 있는가? 특히 어휘나 제재가 적절한가?
- 이 시험에 필요한 언어와 사고력의 요소를 타당하게 반영했는가?
- 지나치게 어렵거나 쉬운 문항은 없는가?
- 유사 시험 등에 기출된 문항은 없는가?
- 평가의 목표가 충실하게 반영되어 있는가?

## □ 발문(發問)

- 묻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제시되었는가?
- 정답 시비가 야기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건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가?
- 발문이 너무 길어서 발문의 해석 자체가 부담이 되지 않는가?
- 정답에 대한 단서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가?
- 부정문으로 된 발문은 가능한 한 긍정문으로 바꾸어 묻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 □ 선택지(選擇枝)

- 발문과 관련하여 선택지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났는가?
- 문장 표현이 불필요하게 장황한 것은 없는가?
- 선택지끼리 서로 간섭하는 내용은 없는가?
- 두 개 이상의 선택지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요소는 없는가?
- 선택지는 논리적 순서에 따라 배열되어 있는가?
- 정답이 특정 번호에 편중되어 있지 않은가?
- 선택지의 길이가 유별나게 길거나 짧은 것은 없는가?
- 배점에 비하여 문제 해결 시간이 너무 길거나 짧지는 않은가?

□ 정답(正答)

- 정답이 너무 표 나게 드러나지는 않았는가?
- 관점에 따라서 오답이 될 가능성은 없는가?
- 지문이나 발문과 관계없이 정답을 찾을 수 있지는 않은가?
- 정답 시비의 소지는 없는가?

□ 오답(誤答)

- 정답에 비해 너무 생소하거나 이질적인 것은 없는가?
- 관점에 따라서 정답이 될 가능성은 없는가?
- 오답은 모두 발문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들인가?

□ 효과적인 지문의 특성

- 독자를 고려한다.
  - 접근 용이성, 여유로움, 독자의 흥미 유발, 차별화된 어조
- 너무 전문적 용어를 피한다.
- 의견 제시의 경우 요지와 주장이 명확해야 한다.
-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밀접하다.
- 언어활동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한다.
- 잘 쓰였으며, 논리적 흐름이 자연스럽다.
- 대중적인 성격도 갖추도록 한다.
- 어떤 특정 집단에 편견을 보이는 지문이 아니다.
- 현대 한국 사회의 언어를 사용한다.
- 원본의 10% 이하란 저작권 관련 조항을 준수한다.

□ 출제 기술 상 좋은 문항과 좋지 않은 문항

- 좋은 문항
  - 내용타당도가 높은 문항
  - 난이도(정답률)가 적절한 문항

- 문항 변별도가 뛰어난 문항
- 지문의 가치를 잘 구현한 문항
- 언어생활의 실제성을 잘 구현한 문항
- 실생활적 언어 양상을 측정하는 문항
- 통합의 관점을 잘 구현한 문항
- 형식이 참신한 문항
- 발문이나 선택지가 깔끔한 문항
- 실제적 효용성이 높은 문항

○ 좋지 않은 문항

- 평범하고 약한 문항
- 스테레오타입화된 문항
- 변별도가 떨어지는 문항
-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문항
- 사소하거나 지엽적인 내용에 관한 문항
- 단순 지식과 관련된 문항
- 출제 의도가 뚜렷하지 않은 문항
- 출제자의 의도를 강요하는 문항
- 지문을 잘못 선정한 문항
- 세트 구성이 잘못된 문항
- 발문이 잘못된 문항
  - : 묻는 의도와 내용이 모호하다.
  - : 정보가 지나치게 적거나 많다.
- 선택지 구성이 잘못된 문항
  - : 각 선택지의 의미와 선택지 간의 관계가 모호하다.
  - : 오답의 매력도가 지나치게 높거나, 떨어진다.
  - : 선택지 간에 영역, 층위가 다르다.
  - : 선택지 간에 간섭이 일어난다.

#### 4) 출제의 주안점

국어능력 평가 시험은 일반적인 국어(능력)시험과 달리 다음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모의 평가문제를 개발하였다.

-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만큼 문항의 제시 맥락이나 수준을 매우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 대부분 성인 대상이고 상당한 능력을 지닌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시험들과는 달리 기초적인 국어능력에서 큰 차별성을 보이는 대상들의 집합이므로 문항 작성의 방향이나 원칙을 분명하게 설정한다.
- 단순한 기억력이나 암기력 평가를 지양하고, 응시자들의 평균적인 학력을 바탕으로 한 사고력을 측정하도록 출제한다.
- 속도 검사(Speed Test)가 아닌 역량 검사(Power Test)가 되도록 출제한다. : 이 항목에 대해서는 속도검사의 요소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됨.
- 문학, 인문, 사회, 과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글을 통해서 독서 체험의 폭과 깊이를 측정하도록 출제한다.
- 언어활동의 지엽적 용례보다는 본질을 보여주는 자료를 통해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한다.
- 단순 사실이나 주장을 평면적으로 담고 있는 지문보다 필자의 주장이 입체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지문을 선정한다.

- 내용과 형식면에서 일상적인 맥락과 연계되고 활용할 수 있는 지문을 선정한다.
- 가능한 한 문제 상황 중심으로 설정하고 가능하면 통합적 활동을 살릴 수 있도록 한다. 실제 언어생활을 염두에 둔 맥락이다.
- 주어진 텍스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되, 일반화된 상식이나 기초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도 측정하도록 출제한다.

이상의 출제 원칙은 컴퓨터의 프로그램처럼 일정 조건의 데이터를 입력하면 특정 결과를 도출시키도록 구성된 것이 아니다. 문항 출제라는 특수한 과정을 정해진 매뉴얼에 맞게 언어 자료를 입력하여 생산되는 결과값의 총합이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출제 원칙과 이에 근거하여 출제 및 감수, 수정된 문항은 연구원들이 판단하기에 출제 원칙에 가장 근접되게 몇 단계의 검토와 재구성을 거친 최종적 결과물일 수밖에 없다. 차후 연령별, 계층별로 특화된 시험 문항 출제 및 지수 산정을 위한 문항 개발을 위한 ‘매뉴얼’은 원칙적으로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본 보고서에 수록된 문항의 정선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기존의 국어시험 혹은 언어영역 시험이 간과하고 있었던 국어 사용 능력 측면의 시험 문항화의 예와 지수 산정 과정의 시안을 모의 평가 과정과 결합하여 보여줌으로써 지속적인 문항 개발과 평가 지수의 정련화를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데 근거가 되도록 하는 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5) 출제 과정

### □ 출제위원의 구성

○ 출제위원은 (재)한국언어문화연구원이 선발하였다. 어문 관련 전공 대학원생 및 수료생 가운데 문항 출제 경험이 풍부하고 본 연구과제의 목적을 잘 이해하고 있는 자원으로 구성하였다.

○ 본 평가가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 도달 여부를 판정하는 국어시험이나 수학적능력시험의 언어영역 평가도 아니고, 고도의 추상적 사고력의 바탕이 되는 일부 언어능력에 집중하여 개발된 직무적성검사나 언어추론 관련 평가가 아니라는 점이 출제위원 선정 시 최우선 고려 대상이다. 일상생활과 전문영역 모두에 걸쳐 고른 독서체험과 언어생활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언어관련 연구 및 교육에 종사하는 인력이 본 평가의 성격과 목적에 맞는 문항 개발의 책임자라는 것 정도로 출제위원 구성의 원칙을 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사업 진행을 위한 문항 출제위원의 인적사항은 아래와 같다.

성명	학위사항	직책	경력	출제영역
서형범	문학박사 서울대 국문과 현대문학 전공	(재)한국언어 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	서울대, 충북대, 대전대, 서원대, 경기대 글쓰기 강좌 (재)한국언어문화연구원 국어능력인증 시험 문항개발위원	읽기
김승민	서울대 국문과 석사 현대문학 전공	시간강사 박사과정수료	충북대, 세종대, 대전대 글쓰기 강좌 PSAT, MEET, DEET 언어추론 및 상황 판단영역 교재 집필	읽기
김세환	서울대 국문과 석사 국어학 전공	박사과정 재학	(재)한국언어문화연구원 국어능력인증 시험 모의평가문항 개발 참여	어휘, 어법, 어문규정
박정희	서울대 국문과 석사 현대문학 전공	박사과정 재학	(재)한국언어문화연구원 국어능력인증 시험 출제위원 (재)한국언어문화연구원 국어능력인증 시험 모의평가문항 개발 참여	읽기
장두영	서울대 국문과 석사 현대문학 전공	박사과정 재학	(재)한국언어문화연구원 국어능력인증 시험 출제위원 공군사관학교 국어과 교관 역임 (재)한국언어문화연구원 국어능력인증 시험 모의평가문항 개발 참여	듣기
유승환	서울대 국문과 석사 현대문학 전공	박사과정 재학	(재)한국언어문화연구원 국어능력인증 시험 모의평가문항 개발 참여	쓰기

<표 5> 문항 출제 위원

○ 감수위원

- 문항 감수는 본 과제의 연구진이 담당했으며, 감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영역을 교차시켜 재검토하도록 구성하였다.

## □ 출제 진행 과정

- 출제진이 출제한 문항을 연구진이 분담하여 검토한다.
- 1차 검토 문항에 대하여 연구진 및 출제진이 함께 모여 다시 교차 검토 회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수정 문항에 반영한다.
- 최종 검토 회의를 통해 모의 평가를 위한 문제 구성을 완료하였다.
- 최종 구성 문제를 (재)한국언어문화연구원에 인계하여 문제지 인쇄 및 듣기 대본 녹음 작업을 완료하였다.

## □ 출제 일정

- 출제진 구성 및 출제 지침 교육
  - 일시: 2007년 9월 4일(화) 14:00
  - 장소: (재)한국언어문화연구원 회의실
  - 참석자: 연구원 전원, 출제진 전원
  - 모의 평가 문항의 출제 원칙 교육
  - 출제영역 분담 및 일정 확정
- 출제 문항 검토 결과 분석
  - 일시: 2007년 10월 11일(목) 14:00
  - 장소: (재)한국언어문화연구원 회의실
  - 참석자: 연구원 전원, 출제진 전원
  - 영역별 출제 문항 검토 결과 분석
  - 문항 수정 및 대체 문항 출제 분담
- 최종 문항 검토
  - 일시: 2007년 10월 25일(목) 14:00
  - 장소: (재)한국언어문화연구원 회의실
  - 참석자: 연구원 전원, 출제진 전원
  - 최종 문항 확정 및 모의 평가 문항 구성 완료

- 모의 평가 문항 최종 확정
  - 일시: 2007년 11월 1일(목) 16:00
  - 장소: (재)한국언어문화연구원 회의실
  - 참석자: 연구원 전원, 출제진 전원
  - 모의 평가 문항 최종 확정

### III. 사업 수행 결과물

#### 1. 예비시험 문제

##### 1) 1교시 문제

#### 1. 두 단어 간의 관계가 다른 것과 이질적인 것은?

- ① 배포(配布) : 회수(回收)
- ② 범부(凡夫) : 필부(匹夫)
- ③ 진중(鎭重) : 경망(輕妄)
- ④ 초순(初旬) : 하순(下旬)
- ⑤ 해빙(解氷) : 결빙(結氷)

#### 2.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을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나 표현으로 바꾼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보 기>

군축을 위한 남북 고위급 협상이 다음달 10일에 열린다는 발표가 있는 뒤 ㉠조야(朝野)의 반응은 가지각색이다. 협상을 ㉡주무(主務)하고 있는 정부는 이번 협상이 남북 간 평화 체제를 확립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초(端初)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는 반면, 몇몇 사회단체들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문제가 ㉣선결(先決)되지 않는다면 이번 협상은 오히려 불행한 결과를 ㉤초래(招來)할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① ㉠조야(朝野) → 정부와 민간단체
- ② ㉡주무(主務)하고 → 맡고
- ③ ㉢단초(端初) → 실마리
- ④ ㉣선결(先決)되지 → 먼저 정해지지
- ⑤ ㉤초래(招來)할 → 생기게 할

### 3. 밑줄 친 단어의 의미가 다른 것과 이질적인 것은?

우리는 매 순간 ㉠법을 의식하며 살아가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법은 우리의 무의식 속에 깊이 잠복해 있다. 이것은 ‘법’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관용적 표현들이 많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령 우리는 부당한 폭력이 행사되는 경우를 발견하면 그에 대해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라고 한탄한다. 매우 착하고 선량한 사람에게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호칭을 붙여 준다. “㉣법대로 하자구!” 라는 말은 분쟁이 생겼을 때 상대를 위협하는 말로 쓰인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말도 안되는 부당한 경우를 당했을 때, “이런 ㉤법이 어디 있어?” 라고 항의하기도 한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4. 문장 성분이 잘 갖추어져 내용과 어법이 모두 자연스러운 것은?

- ①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철호가 취직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
- ② 민호는 지금 당장 유학을 가려 했지만, 집안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다.
- ③ 정아는 수정이에게 감각적인 것들에만 눈길을 주지 말고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충고했다.
- ④ 산마루에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옷깃을 스쳐, 속세에 찌든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 내 주는 것 같았다.
- ⑤ 위원회의 조사 결과 연구비를 개인 컴퓨터를 구입하는 등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5.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을 바꾼 것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가) 거리는 온통 어둠으로 배어 있었다.
- (나) 언론에 노출을 꺼리는 사람이 있다.
- (다) 적자는 당분간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
- (라) 다음 달까지는 예방접종을 맞도록 당부했다.
- (마) 혼인 신고는 기타 법령에 위반함이 없는 때에 수리하여야 한다.

- ① (가) 어둠으로 → 어둠에
- ② (나) 노출을 → 노출되는 것을
- ③ (다) 나빠질 → 늘어날
- ④ (라) 예방접종을 맞도록 → 예방접종을 하도록
- ⑤ (마) 위반함이 → 위반됨이

6. 다음은 한 회사의 오븐에 대한 사용설명서이다. 무상 기간 내에 무상 처리가 되는 것은?

〈유상 서비스(고객의 비용 부담)에 대한 책임〉

서비스 신청 시 다음과 같은 경우는 무상 기간(구입 후 1년) 내라도 유상으로 처리합니다.

- 천재지변(화재, 염해, 가스, 지진, 풍수해 등)에 의해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 사용전원의 이상 및 접속기기의 불량으로 인하여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 당사 서비스센터의 수리 기사가 아닌 사람이 수리 또는 개조하여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 사용상 정상 마모되는 소모성 부품을 교환하는 경우
- 기타 제품 자체의 하자가 아닌 외부 원인으로 인한 경우
- 기타 소비자의 과실로 인해 고장이 발생한 경우

※ 일반제품을 영업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경우 보증 기간은 반으로 단축됨.

- ① 갑작스런 냉해로 인해 부품의 일부가 동파된 경우
- ② 적정량보다 많은 재료를 오븐에 넣어 고장 난 경우
- ③ 이사한 집의 전압이 전에 살던 집의 전압과 달라서 고장 난 경우

- ④ 제조 회사의 수리 기사가 부주의하게 오븐을 다루어 고장 난 경우
- ⑤ 3월에 구매하여 집에서 쓰다가 11월에 식당에서 영업용으로 쓰다 고장 난 경우

**7. 다음 신문 기사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두루마리 화장지처럼 말거나 신문처럼 접을 수 있는 전자종이의 상용화가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플라스틱 반도체 소자기술에 의해 곧 가능해질 전망이다.

KIST 이창의 교수와 권혁신 교수 연구팀은 비휘발성 메모리 플라스틱 신소재를 공동으로 개발, 이를 이용한 고성능 비휘발성 메모리 반도체 소자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9일 밝혔다.

연구팀이 개발한 이 플라스틱 신소재는 매우 가볍고, 쉽게 구부리거나 정보를 3차원적으로 고집적화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접는 전자신문, 전자책이나 노트, 휘어지는 화면, 접는 컴퓨터나 옷처럼 몸에 입는 컴퓨터 등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자제품 개발이 가능해졌다. 이 교수는 “기존의 반도체에 비해 제조공정이 단순해 제조원가도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출 수 있어 차세대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를 상용화할 수 있는 길을 연 것” 이라고 말했다.

- ① 신문 무게의 컴퓨터 탄생 - ‘플라스틱 컴퓨터’ 개발
- ② 전자제품의 새로운 패러다임 - 고성능 메모리 탄생
- ③ ‘최소 크기, 최대 성능’ - 컴퓨터의 새로운 패러다임
- ④ 세계 최초 플라스틱 반도체 개발 - 국내 연구팀의 성과
- ⑤ 머지않은 ‘접는 전자종이’ - 전자제품의 새로운 패러다임

**8. 다음 안내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행복구, 시민이 참여하는 만화공모전 개최>

우리 행복구청에서는 구청의 주요정책 등을 홍보만화로 제작 활용하기 위해 ‘행복구 홍보만화 시민과 함께 만들어요’ 라는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참여 대상은 시민 누구나 가능하며, 원고 접수는 9월 1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우편 또는 방문,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 응모 분야

▲ 5대 기초질서 지키기와 글로벌 나눔과 봉사

▲ TV 전자정부, 인터넷 수능방송 개선

▲ 민원 혁신과 구민 아이디어 제도

(\* 3개 분야로 복수 지원 가능)

작품 심사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며, 10월 22일 행복구청 홈페이지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시상금은 분야별로 최우수(1명) 200만 원, 우수(1명) 100만 원, 가작(3명) 30만 원입니다.

이번 행복구에서 개최하는 만화공모전은 지금까지의 일방적 홍보에서 탈피,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쌍방향의 홍보를 시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 대학생,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아마추어 신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① 이번 공모전은 행복구청의 정책 홍보를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 ② 행복구청에서는 학생들을 위해 인터넷 수능방송을 해오고 있다.
- ③ 시상내역은 분야별로 이루어지며 학생부와 일반부의 구분은 없다.
- ④ 참여 대상은 행복구 구민이어야 하며 아마추어 만화가의 경우 참여할 수 있다.
- ⑤ 이번 공모전은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따로 구성한다.

## 9.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오늘날 근대화의 문제를 논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합리적 사고와 과학적 태도를 강조하면서, 서구의 발전을 거울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리고 이 견해가 우리나라 실정에 매우 적합한 의견이라는 것은 우리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합리적 사고와 과학적 태도에 대한 지나친 숭상이 인간다운 감정을 빈약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는 것도 우리들의 일치된 상식이다. 요컨대 우리는 (                    ㉠                    ) 한편으로는 서양의 높은 물질문명의 근간이 된 합리적 사고와 과학적 태도를 체득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동양의 높은 정신 문화의 바탕이 된 어질고 그윽한 감정을 깊이 간직하고 더욱 함양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계화, 산업화, 도시화된 현대의 경제적 여건에 적응하는 일과 도덕, 예술, 종교 등의 근본이 되는 순화된 감정을 함양하는 일은 양립시키기가 어렵다. 이 두 가지 목표는 당장은 이루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 ① 합리적 사고와 과학적 태도를 함께 체득해야 한다.
- ② 감정의 측면이 우세한 우리 민족성을 순화시킬 필요가 있다.
- ③ 합리적 사고와 과학적 태도를 기르고 순화된 감정을 함양하는 일을 동시에 이루어야 한다.
- ④ 서구의 긍정적인 문화와 우리의 전통적인 문화를 조화시켜 나가다 보면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할 것이다.
- ⑤ 서구에서 이루어진 물질문명의 발달을 지나치게 숭상하지 말고 동양의 높은 정신문화를 발전의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10. 다음은 저작권법 법조문의 일부분이다. 저작권 위반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4관 저작재산권의 양도·행사·소멸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 ①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 ②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46조(저작물의 이용 허락)

- ①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제47조(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그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그 저작물의 이용에 따라 저작재산권자가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출판권 설정의 대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이들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하여야 한다.

\* 질권: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혹은 보증인에게 받는 담보물에 대한 권리

- ① 구입한 음악 CD 여러 장의 음원을 편집하여 판매하는 행위
- ② 구입한 영화 DVD를 다 본 뒤,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하는 행위
- ③ 구입한 음악 CD를 허락 없이 공적인 장소에서 재생하는 행위
- ④ 2차 저작물의 작성 권리를 덧붙이면서 저작재산권의 양도 가격을 올리는 행위
- ⑤ 채무자인 영화 제작자의 저작재산권을 담보로 잡은 뒤, 일 년 전에 개봉한 영화의 수익금을 청구하는 행위

11.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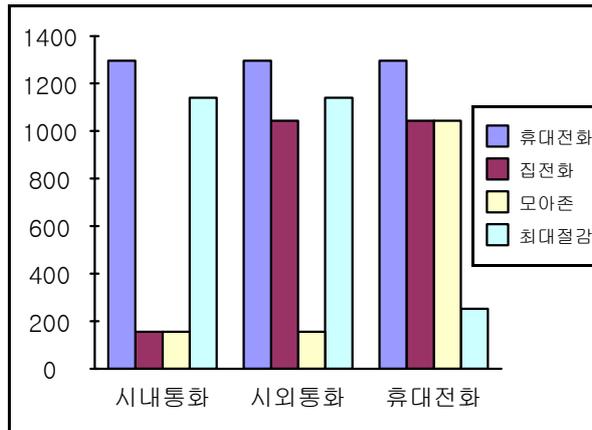
㉠우울증, 불안감의 위협 속에 노출된 현대인의 ‘마음’ 을 치료하는 한 방법으로 최근 ‘향기요법’ 이 각광을 받고 있다. ㉡자연의 소재(식물 추출물)와 본능적 감각 기관(코)을 결합시킨 ‘원초적’ 치유방법으로, 고대로부터 널리 활용된 심신을 조화롭게 다스리는 치료법이다. ㉢냄새가 코 점막에 미치면 신경정보를 ‘변연계’ 라는 대뇌 조직에 전달하고, 엔도르핀(endorphin) · 세로토닌(serotonin)의 분비를 조절 · 촉진시켜 불안 · 우울 · 불면증 같은 스트레스성 장애나 통증을 줄이고 없앤다는 것이다. ㉣하지만 ‘향기요법’ 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은데 시간 · 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이고, 보조적 치료수단에 불과하며, 의학적 공증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있다. ㉤또한 부작용도 문제시 될 수 있는데 향기를 과다하게 사용할 경우 피부 · 호흡기 점막 · 간 · 신장 등을 상하게 할 수 있다.

- ① ㉠은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 ② ㉡은 ㉠을 부연하고 있다.
- ③ ㉢은 ㉠과 ㉡의 원리를 설명한다.
- ④ ㉣은 ㉢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다.
- ⑤ ㉤은 ㉢과 관련된 정보를 추가하고 있다.

12. 광고를 보고 전화 요금제를 바꾸려고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휴대전화, 집전화, 모아존 통화 시 할인효과 비교

집에서도 휴대폰 하나로 통화하고 요금은 집전화만큼 저렴한 서비스!  
 요금을 직접 비교해보세요. 통화료 아끼기 위해 집전화 쓰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 휴대전화는 10초 18원 적용 시, 집 전화는 평상 요금 적용 시

- ① ‘모아존’ 서비스 이용 요금은 집전화 이용 요금과 동일하다.
- ② ‘모아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집전화를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다.
- ③ 시외 전화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모아존’ 서비스를 이용하는 편이 좋다.
- ④ ‘모아존’ 서비스로 시내 통화를 이용할 경우 휴대전화보다 시간당 전화요금 이 최대 5,700원 싸다.
- ⑤ ‘모아존’ 서비스를 이용하여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 경우 통화료 절감 효과가 크게 줄어들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13. 다음 글의 논지와 가장 유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최근 드라마에 ‘외국인’ 이 부쩍 늘었다. 드라마를 더욱 맛깔 나게 해주는 조연 역할은 물론, 극중 비중 있는 인물로 설정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 외국인들의 한국 유입이 급증하고, 외모에서 눈에 띄지는 않지만 탈북자나 중국교포도 상당수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현실을 반영하는 드라마 속에 ‘외국인’ 역할이 빈번히 등장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그러나 ‘외국인’ 들이 어떤 시선으로 그려지는가는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

다. 드라마 속 외국인 상은 우리의 선입견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탈북자나 교포를 포함해 최근 증가한 아시아계 외국인의 묘사에서 더욱 편견이 작용하고 있는데, 말투가 어눌하고 복장이 촌스럽고 대개 한국 문화와 생활 습관에 적응하지 못해 온갖 해프닝을 몰고 다니는 ‘골칫덩이’로 제시되는 것이 그것이다. 반면 이를 고용하거나 보살피는 한국인은 그들을 가족처럼 친근하게 대하고 그들이 저지른 실수와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해주는 착한 사람들로 그려진다. 외국인들은 잠시 한국을 방문한 바보 같은 손님이나 자선을 구걸하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같은 사회의 구성원이다.

- ① 프랑스인들은 어찌나 우아하고 고상한지 우리도 배워야 할 것 같아.
- ② 내가 아는 조선족 유학생은 본인이 말하기 전엔 유학생인 줄도 몰랐어.
- ③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가 너무 많아 한국 사람들 봉급도 깎이는 것 같아 문제야.
- ④ 동남아 출신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다들 휴대폰 들고 전화하던데 무슨 돈으로 샀을까 싶어.
- ⑤ 탈북자가 운영하는 북한식 음식점에 갔었는데 북한 분위기가 제대로 나지 않아 실망했어.

#### 14. 다음은 컴퓨터 이상의 응급조치에 관한 내용이다. 각각의 에러 원인에 따른 해결 방법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컴퓨터는 자신의 이상을 비프음이라 불리는 짧은 ‘삐’ 소리로 사용자에게 알려줍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두 개의 BIOS에 해당하는 비프음과 에러의 종류를 간략히 짚지은 것입니다.

##### - Award BIOS

- 짧게 한 번: 이상이 없다.
- 짧게 두 번: 하드디스크는 한 개인데 바이오스에 두 개로 잡혔다.
- 짧게 세 번: 키보드 버튼이 눌러 있거나 커넥터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다.
- 길게 한 번, 짧게 한 번: 메인보드에 연결된 케이블이나 카드(비디오, 사운드, 기타 랜카드 등)에 문제가 있다.
- 길게 한 번, 짧게 두 번: 그래픽카드가 AGP슬롯에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다.
- 연속음: 메인보드에 CPU, 메모리 등이 정확하게 꽂혀 있지 않다.

- Ami BIOS

.1회: 이상 없다.

.2회: 메모리가 올바르게 꽂혀 있지 않거나 소켓 불량이다. 두 개 이상의 메모리가 서로 패리티가 맞지 않아도 이런 현상이 생긴다.

.3회: 메모리가 불량이거나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다.

.4회: 배터리가 방전돼서 시스템 타이머가 작동되지 않는다.

.5회: CPU가 제대로 꽂혀 있지 않거나 불량이다.

.6회: 키보드의 버튼이 눌러 있거나 커넥터가 올바르게 연결되지 않았다.

.7회: CPU가 불량이거나 클럭을 메인보드가 받아들이지 못한다.

.8회: 그래픽카드가 AGP슬롯에 올바르게 연결되지 않았다.

.9회: 하드디스크는 한 개인데 두개로 잡혀 있다.

.10회: 바이오스나 메인보드 불량

.11회: CPU 캐쉬 메모리에 이상이 있다.

- 비프음과 BIOS

㉠ 주미가 컴퓨터 전원을 켜자 비프음이 짧게 두 번 울렸다. BIOS를 확인하니 Award BIOS였다.

㉡ Ami BIOS가 깔린 도형의 컴퓨터의 전원을 켜자 비프음이 빠르게 8번 울렸다.

㉢ Award BIOS가 깔린 성희의 컴퓨터는 짧은 비프음이 3회 울리고는 그냥 멈춰 버린다.

㉣ Ami BIOS로 확인된 정희의 컴퓨터는 전원을 켜면 9회의 빠른 비프음이 울리고 작동을 멈춘다.

<보 기>

㉠ 메모리가 잘못 끼워졌는지 확인한다.

㉡ 본체를 열고 그래픽 카드를 다시 꽂아 본다.

㉢ BIOS상에 하드디스크가 제대로 인식되어 있는지 확인해본다.

㉣ 키보드가 눌러 있는 상태로 컴퓨터 전원을 켜는지 확인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15~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고대인은 운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점쟁이’를 찾았다.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서 초월적 존재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나약한 인간들의 세계였다. 점쟁이의 말을 듣지 않음은 종종 재앙과 파국으로 연결되었다. 오이디푸스 신화 속 비극은 신탁을 믿지 않은 ‘발칙한’ 인간들이 자초한 결과였다. 신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 신의 매개자인 ‘점쟁이’의 말을 존중하는 것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데카르트의 명제 이후 이성의 찬란한 빛은 전 세계를 비추고 음습한 점쟁이들은 추방된다. 인간의 힘으로 자연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은 더 이상 점쟁이나 신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다. 과학의 힘으로 전 세계가 밝혀졌으며 모든 것은 이성의 조망 아래 해석될 수 있으리라는 신념으로 넘치게 되었다.

넘치는 자신감이 계속되었으면 인간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두 번의 거대한 전쟁과 원자탄의 위력은 과학이라는 도구가 인간을 아마겟돈으로 이끌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무한히 황금알을 낳던 자본주의의 암탉이 수시로 요동치며 공황이 다가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두려움이 주위를 감싸고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 우리는 매일 TV에서 ㉠ ‘새로운 점쟁이’를 만난다. 하늘의 현상을 수리·역학적 모델로 환원하고 물리, 화학, 지질 등 알고 있는 온갖 이성을 동원한 일기예보가 오늘의 점쟁이다. 세계의 카오스를 이성을 동원하여 예측한다는 신념은 아직 살아 있는 셈이다. 슈퍼컴퓨터의 연산능력이라는 새로운 ‘계시’를 따르는 나약한 인간들은 우산을 준비하고, 선글라스를 챙긴다. 그러나 일기예보는 끊임없이 실제 자연 현상에 의해 우롱당하기 일쑤이다. 하지만 불안과 혼란에서 방황하는 인간들이 의지할 것이 따로 있을 리 없다. 하는 수 없이 또다시 일기예보를 보고 또다시 ‘운명의 예측 불가능’을 절감하는 수밖에.

15. 위 글의 필자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 ① 역사는 미신의 시대에서 이성의 시대로 발전하여 왔다.
- ② 과학을 비롯한 이성의 힘은 자연의 힘에 비해 보잘 것 없다.
- ③ 현대 과학의 힘이 부족한 것을 보완하여 자연을 극복하여야 한다.
- ④ 이성의 힘을 믿는 현대인도 미신에 휘둘리던 고대인과 다를 바 없다.

⑤ 인류가 자연의 순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계속하면 결국 파멸이 올 수 있다.

16. 위 글의 논지에 따를 때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경제연구소의 내년 GDP성장률
- ② 미래학자의 21세기 예상 보고서
- ③ 전화 음성 서비스의 주가 예측 정보
- ④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사주 상담 코너
- ⑤ 광고 기획사의 소비자 성향 변화 전망

[17~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낙엽이 잔뜩 쌓인 어느 숲 속 길. 남자와 여자가 마주보고 서 있다.  
남자: 너 만나고부터 제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가! (남자가 여자에게 낙엽을 집어던지면서 소리친다.) 가!  
슬픈 멜로디의 피아노 음악이 흐른다.  
(남자의 내레이션: 내 나이 스무 살, 이 여자를 만났다.)  
남자: 가! 가! 가란 말이야!  
여자: (남자의 얼굴을 어루만지면서) 날 채워 줘……  
(남자의 내레이션: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 ○○ 부족할 때 … )

위 원고는 한 음료수 광고의 시리즈 중 한 편의 내용이다. CM(커머셜 메시지)의 내용과 광고 대상인 음료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사실 아무 관계도 없다. 사랑에 목마른 것과 생리적 목마름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러나 이 CM에서는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 라고 함으로써 생리적 ‘목마름’ 을 연상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의 ‘정서의 창문’ 을 두드리고 있다. 이는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물이나 현상들을 서로 관계를 맺도록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것이다. 즉 ‘목마름’ 이라는 공통분모가 바로 연상 작용의 원리라 할 것이다.

잘나가는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를 광고에 등장시키는 것도 그 유명하고 인기 있는 이미지를 상품의 이미지로 연결시키기 위한 것이다. 한때 박세리나 박찬호 선수의 연이은 우승은 우리들에게 민족적 자부심을 느끼게 했는데, 이러한 자부심은 이들이 나오는 광고나 후원사에 전이되어 소비자로 하여금 우호적인 이미지

를 형성하게 된다.

광고 카피는 늘 파격적인 것을 요구하게 된다. 흔하게 연상되는 것들은 그 세련미에서 밀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급스러우면서도 자유분방한 메시지를 다루기도 하고, 지나치게 감각적인 언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빠르게 편집한 화면 구성으로 시각적 쾌락을 자극하기도 하고, 미려한 관능성이나 뇌쇄적인 테크노댄스 등을 가미하기도 하면서 그 효과를 극대화하게 된다. 광고는 그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핵심적인 단어의 반복, 간결하고 압축적인 문장, 효과 음악과 율동감 등을 맞출 수 있게 구성한다. 이런 광고에서는 이미지 제고에 치중하는 시각적 쾌락 때문에 상품 선전의 기능을 제대로 완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광고 카피는 상품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기보다는 연상의 원리를 이용하여 이미지로 보여주려고 노력한다는 데 특징이 있다. ‘보여주기’는 문학적 표현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 17. 위에서 소개하는 광고 기법의 특성이 아닌 것은?

- ① 시각적인 이미지 제시에 치중함.
- ② 제품의 역사를 설명하여 전통을 부각함.
- ③ 유명인을 등장시켜 제품 이미지와 연결하기도 함.
- ④ 제품과 광고 간의 감성적 연결 고리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함.
- ⑤ 광고 자체에만 치중해 상품 선전이 실패하는 경우도 있음.

### 18. 글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연상의 원리를 이용한 광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그룹 광고: 광고 30초 내내 어린 아이 얼굴 클로즈업. 시무룩하던 아이의 표정이 점점 밝아짐.
- ② 은행 광고: 국내 피겨스케이팅 선수의 연습 장면,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서 계속 연습함. ○○은행이 응원한다는 대사 삽입
- ③ 세제 광고: 흰 셔츠에 잉크를 뿌리고 세제로 세탁하는 과정 제시. 세탁 전과 후를 비교. 이를 지켜본 주부들의 환호성하는 장면 삽입
- ④ 스포츠의류 광고: 여러 명의 해외 유명 축구 선수 등장. 서로 공을 주고받으며 가볍게 몸을 풀고 있음. 선수들이 서로 잡담함. 특별한 대사 없음.
- ⑤ ○○전자 광고: 아들이 퇴근한 아빠에게 매달리는 장면. “땀 냄새 나지만 우리 아들은 아빠가 최고라고 합니다.”, “고맙다고 말하세요.” 라는 대사

[19~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보험의 종류 및 보험 가입 시의 유의사항>

● 보장성보험: 재해 및 질병 등 각종 위험보장에 적합한 상품으로 사망보험금은 물론, 입원비와 수술비 등 다양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종신보험: 보장기간이 평생(종신)인 상품으로 가입자 사망 시에 유가족을 위한 재정설계를 할 수 있는 상품

☞ 가입 시 유의사항: 종신보험에 부가되는 대부분의 특약은 주보험과 달리 보험기간이 종신이 아니므로 가입 시 특약의 보험기간(예: 70세 만기, 80세 만기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질병보험: 암, 성인병 질환 등의 각종 질병으로 인한 진단, 입원, 수술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

☞ 가입 시 유의사항: 질병에 따라 보험금 지급 상한선이 정해져 있으므로 가입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해보험: 교통재해 및 각종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

☞ 가입 시 유의사항: 생명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는 상해보험은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재해 이외에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타인에게 상해 등을 입힌 경우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어린이 보험: 자녀들의 종합적인 질병 및 재해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

☞ 가입 시 유의사항: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사망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납입한 보험료 또는 해당 시점의 적립액(또는 해약환급금)을 돌려드립니다.

19. 위 글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험의 분류 기준을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 ① 보장기간, 보험금 지급 액수, 피가입자의 신분
- ② 보장기간, 보장되는 위험의 종류, 피가입자의 신분
- ③ 보장기간, 보장되는 위험의 종류, 보험금 지급 액수
- ④ 보장되는 위험의 종류, 보험금의 적립과 환급 방법, 보험금 지급 액수
- ⑤ 피가입자의 신분, 보장되는 위험의 종류, 보험금의 적립과 환급 방법

**20.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장 다양한 종류의 재해와 질병을 보장해 주는 보험은 보장성 보험이다.
- ② 종신보험은 보장기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가입 시 보장기간을 정확히 알아두어야 한다.
- ③ 상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발생한 재해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④ 어린이 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재해가 일어난 경우에도 어린이 보험에 적용한 금액은 가입자에게 환급된다.
- ⑤ 질병보험은 질병의 종류에 따라 보험금의 액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질병에 따른 보험금 지급 액수의 차이를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21. 다음 중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 ① 종신보험 가입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 ② 보장성 보험 가입자가 장기간 입원하다 사망한 경우
- ③ 상해보험 가입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크게 다친 경우
- ④ 질병보험 가입자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크게 다친 경우
- ⑤ 어린이 보험 가입자의 13살짜리 아들이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22~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시행 대상: 단독주택, 연립주택 등 남은 음식물 분리배출지역

\* 남은 음식물 분리배출 및 수거일

분리수거권역	동 별	배출 시간	수거 시간	수거일 (요일)
제1권역	농소 1~3동, 염포동	수거 전일 밤 9시 ~ 수거일 새벽 3시	수거일 아침 4시~	월 수 금
제2권역	강동, 효문(연암), 송정, 양정동	"	"	화 목 토

※ 겨울철 혹한 시에는 음식물이 얼어붙어 수거가 곤란하므로 되도록 수거일에 배출 바랍니다.

\* 남은 음식물 문전 수거·처리 절차

가정(1층 대문 앞 배출) ⇒ 청소 종사원/문전 수거 ⇒ 수거전용차량 ⇒ 자원화 시설

\* 주민이 꼭 협조하여 주실 일

1. 지정된 배출시간 및 요일을 준수하여 분리배출
2.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재활용이 가능한 음식물만 배출
3. 반드시 구청에서 정한 음식물 전용수거용기(51)에 분리배출
4. 음식물 전용수거용기는 구청의 재산이므로 전출입 시 인수인계 철저
5. 태풍 등 바람이 많이 불 경우 용기가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

\* 처리수수료 납부필증 부착 시행

·시행시기: 2003년 7월 1일부터

·판 매 소: 쓰레기봉투판매소 및 구 지정 판매소

·방 법: 매월 해당 월의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분리배출용기에 부착

※ 해당 월의 납부필증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용기의 음식물은 수거하지 않음.

·가 격(월 처리수수료): 1매 1,000원

\* 분리배출 방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 음식물 분리배출지역에서 남은 음식물을 무단 투기하거나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혼합 배출하는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22. 위 안내문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처리수수료는 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
- ② 지정된 배출시간 및 요일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 ③ 종량제 쓰레기봉투에는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음식물을 넣어도 된다.
- ④ 구청에서 정한 음식물 전용수거용기에 담기지 않은 것은 수거하지 않는다.
- ⑤ 음식물 전용수거용기는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더라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 23. 위 안내문에 따를 때, 염포동의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이 취한 행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바람에 넘어지거나 많은 비에 움직이지 않도록 벽돌을 몇 장 올려 고정해 두었다.

- ② 매 월 처리수수료 납부필증을 쓰레기봉투판매소에서 구입해 음식물 전용수거용기에 붙였다.
- ③ 자원화 시설로 가서 재활용되는 음식물 쓰레기이므로 이물질은 완전히 제거하여 배출하였다.
- ④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하여 음식물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매주 화요일 밤 10시에 대문 앞에 두었다.
- ⑤ 여름철보다 겨울철에는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덜 나기 때문에 아침 출근을 하면서 대문 앞에 내놓았다.

24. <보기>의 내용을 고려할 때, 밑줄 친 ㉠을 가장 잘 이해한 것은?

<보 기>

<재활용이 가능한 음식물 쓰레기 선별 분리배출 요령>

- 비닐, 병뚜껑, 은박지, 젓가락 등의 이물질과 필요 시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 고추장, 간장 등은 따로 배출하고 김치 등은 씻어서 배출합니다.
- 동식물성 유지류, 중금속 오염기능 물질 및 잉크물질은 제거하여 배출합니다.
- 가정용 수집용기를 비치하여 음식물쓰레기만을 별도로 수집하여야 합니다.
- 가정용 수집용기에 모은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여 배출해야 합니다.
- 음식물 쓰레기 발생 단계별로 조리 전 쓰레기, 조리 후 먹고 남긴 쓰레기(잔반)를 구분하여 수집용기에 수집하여야 합니다. 이때 조리 후 먹고 남긴 쓰레기는 체나 망사형 자루 등에 수집하여 자연탈수 또는 간단한 기기·기구를 이용하여 물기를 제거합니다.

- ① 나무젓가락은 썩으니까 함께 버려도 된다.
- ② 죽발을 먹고 남은 음식과 야채는 함께 버려도 된다.
- ③ 음식물 쓰레기는 물기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④ 김치는 냄새가 많이 나므로 씻어서 위생봉투에 따로 버려야 한다.
- ⑤ 가정용 수집용기를 부엌에 두면 냄새가 심하므로 대문 밖에 두어야 한다.

[25~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부동산(주택) 중개수수료

종별	거래가액	수수료율	한도액
매매, 교환	5천만 원 미만	1천분의 6 이내	250,000원
	5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1천분의 5 이내	800,000원
	2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1천분의 4 이내	-
임대차	2천만 원 미만	1천분의 5 이내	70,000원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1천분의 5 이내	200,000원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천분의 4 이내	300,000원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1천분의 3 이내	-

- 부동산(토지, 상가) 중개수수료

종별	거래가액	수수료율	한도액
매매, 교환, 임대차	거래가액	1천분의 9 이내	-

㉠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다.

㉡ 매매가 6억 원 이상 또는 임대가 3억 원 이상의 주택은 중개수수료 한도(매매, 교환: 1천분의 9, 임대차: 1천분의 8)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별도 체결하는 계약에 따른다.

㉢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합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나)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중개수수료 등)

㉠ 중개업자는 중개 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 간의 거래행위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 주택(부속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와 제㉡항의 규정에 의한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

- ㉣ 갑은 보증금 1천5백만 원과 월세 30만 원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 ㉤ 을은 보증금 5천만 원에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 25.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중개수수료는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되 각 경우에 따른 상한선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임대액 3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일 경우에도 별도의 중개수수료 관련 협의가 필요하다.
- ③ 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들어가는 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 보증금액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산출한다.
- ④ 1억 원 미만의 주택 거래금액일 경우 임대차 계약의 중개수수료가 매매, 교환의 중개수수료보다 저렴하다.
- ⑤ 중개계약이 중개업자의 책임으로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다.

26. <보기>를 읽고 (나)와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끼리 묶은 것은?

<보 기>

- ㉠ 갑이 지불해야 할 중개수수료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임대액은 3천 6백만 원이다.
- ㉡ 갑이 을보다 더 많은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 ㉢ 을은 0.4%의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지불 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 ㉣ 갑에게 적용되는 중개수수료율이 을보다 적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27. 위의 글과 관련하여 제시한 의견 가운데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거주를 목적으로 한 주택에 비해 상가나 토지의 중개수수료가 높은 것은 상대적으로 중개과정이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 ② 매매나 교환의 경우에 2천만 원을 기준으로 하는 항목을 만들지 않은 것은 부동산 거래의 실상을 볼 때 소액 규모의 매매나 교환 거래가 드물기 때문이다.
- ③ 주택 중개수수료율을 거래가액별로 세분하여 상한선을 정한 것은 과도한 중개수수료로 인한 소규모 부동산 거래의 위축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중개 과정에 소요된 경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중개인이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기 위해 소용된 것을 중개의뢰인에게 부과하는 것이 되어 적절치 않다.
- ⑤ 보증금과 월세를 병행하여 임대계약을 하는 경우에 한해 임대가액 5천만 원 미만에 대해 70을 곱하여 다시 계산하도록 한 것은 소액 거래 당사자에게 유리한 조항이다.

[28~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9월 국내선 인터넷 특별 할인 안내>

평소 코리아항공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내선 항공권을 구매하시는 모든 고객님께 특별 할인 혜택을 드리오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할인 기간: 2007년 9월 1일 ~ 2007년 9월 30일(탑승일 기준)

▷ 8월 29일 이후 구매부터 적용되며 추석연휴기간에는 할인이 제한됨(할인 제한일은 노선별로 상이).

· 할인 대상

코리아항공 홈페이지에서 항공권을 구매하시는 모든 고객(성인 정상운임 기준, 이중 할인 불가)

· 할인 내용: 성인 정상운임의 5% ~ 20%

· 할인 구간

# 제주노선: 부산↔제주, 대구↔제주, 광주↔제주, 청주↔제주

# 내륙노선: 김포↔부산, 김포↔포항, 김포↔진주, 김포↔여수

- 노선별 일자와 시간대에 따라 할인율이 없거나 상이하며, 할인이 되지 않는 항공편도 있습니다.

- 김포↔제주 노선 등 일부 노선은 탑승객이 많아 할인구간에서 제외됩니다.

· 안내 사항

1. 항공권을 미리 구매하신 고객님은 반드시 좌석 유무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좌석이 있는 경우 인터넷에서 환불 후 재구매하시면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노선별 일자와 시간대에 따라 할인율이 없거나 상이하여 할인이 되지 않는 항공편도 있습니다.

3. 다른 할인 혜택과 중복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인터넷 구매 후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인터넷을 이용하셔야 할인 혜택이 유지됩니다. 공항, 시내지점, 예약센터에서 변경 시에는 차액을 징수합니다.

5. 상기 할인은 영업 정책상 해당 기간 중 변경될 수 있사오니, 고객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

1. 신용카드를 이용하시려면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2. 5분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보안을 위해 자동으로 창이 닫힙니다.

28.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내륙노선은 제주노선에 비해 할인율이 높다.
- ② 노선에 따라 할인율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다.
- ③ 8월 25일에 9월 30일자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은 해당 사항이 없다.
- ④ 인터넷 구매 후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공항에서 재구매하면 차액을 지불해야 한다.
- ⑤ 항공권을 미리 구매한 고객도 환불 후 인터넷 재구매시 경우에 따라 할인을 받을 수 있다.

29.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 ① 홈페이지 이용 시 유의사항
- ② 전자 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유의사항
- ③ 홈페이지 다운 방지를 위한 유의사항
- ④ 가능한 높은 할인율을 얻기 위해 필요한 사항
- ⑤ 좀 더 많은 탑승객에게 할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조치

30. 위 글의 내용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기존의 회원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 ② 할인율이 정확하게 책정되어 있지 않아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
- ③ 위 할인율이 사정상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은 회사의 편리만을 고려한 규정이다.
- ④ 추석 연휴 기간에는 할인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적용되어 탑승객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 ⑤ 인터넷 예매 후 갑자기 일정이 변경되어 시내지점을 이용할 때 차액을 징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31.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일제 시대의 독서 현황’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려고 한다. 자료 해석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1920~1928년 신문 광고에 나타난 서적의 종별 건수

분 류	건 수
교재 수험서	162
일본어 교재	139
성(性) 관련 서적	85
소설	43
학술서	65
종교	16
기타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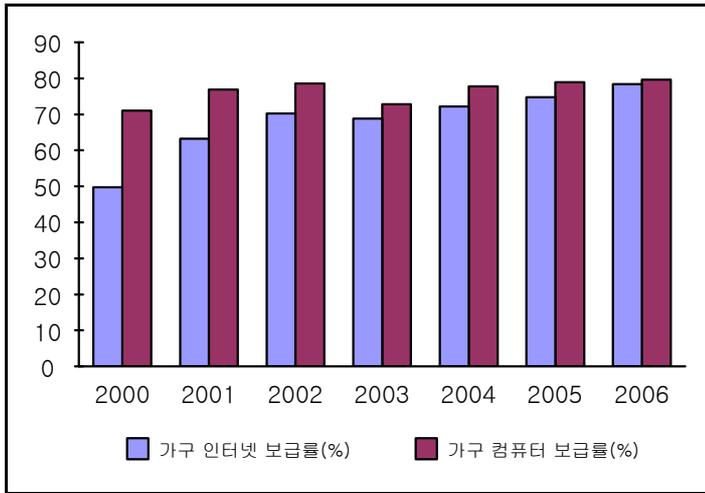
(나) 1930년 현재 노동자의 교육상황

학 력	비율(%)	문해 가능 여부
중등학교 졸업	0.3	문해 가능
중등학교 중퇴	0.7	문해 가능
보통학교 졸업	10	문해 가능
보통학교 중도 퇴학	8	반(半) 문맹
서당 수학자	24	반(半) 문맹
무교육자	57	문맹

- ① 전통적인 한문학적 지식이 독서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 ② 교양 문학 서적에 비하여 실용적인 학습서 시장이 더 컸음을 알 수 있다.
- ③ 보통 교육이 보급되면서 독서의 대중화가 급속히 진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④ 시대의 변화에 따라 성적 풍속에 대한 호기심이 증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⑤ 독서를 위해 일본어를 비롯한 외국어 구사 능력이 요구되었음을 알 수 있다.

32. 다음 도표를 바탕으로 ‘인터넷 사용 현황과 그 문제점’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려고 한다. 도표 해석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나)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인터넷 이용률*	44.7	56.6	59.4	65.5	70.2	72.8	74.8
평균 인터넷 이용 시간*	0.74	0.82	0.94	0.92	0.88	0.86	0.81
초고속 인터넷 가입가구 비율	8.2	16.5	21.8	23.3	24.7	25.4	29.1
정보격차 지수*	69.3	67.1	65.3	62.0	55.0	46.7	38.1

\* 인터넷 이용률: 최근 6개월 간 인터넷을 이용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의 하루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

\* 정보격차지수: 전체국민의 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상정할 때 전체국민 대비 취약 계층의 정보화 수준을 측정하여 전체국민과의 격차를 산출한 지수

- ① 2003년 이후 취약 계층의 인터넷 사용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 ② 인터넷 보급률과 인터넷 사용률은 거의 동일한 속도로 증가하였다.
- ③ 인터넷 이용자의 증대로 인해, 컴퓨터의 보급률 또한 급격히 증가되었다.
- ④ 2006년도의 인터넷 보급 가구 중 초고속 인터넷 사용 가구 비율은 2000년과 비교해 세 배 정도 증가했다.
- ⑤ 한국의 인터넷 보급률은 2000년에서 2003년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지만, 그 이후에는 증가세가 조금씩 둔화되고 있다.

33. <보기>는 ‘학교 급식 재료의 문제점과 그 대책’이라는 주제로 글을 쓰기 위해 수집한 자료이다. 이 글을 쓰는 데 필요한 자료만을 묶은 것은?

〈보 기〉

- Ⓐ 일선 학교 식당 관리자의 처우를 개선해야만 한다.
- Ⓑ 학교의 급식재료 운영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 감독이 확대되어야 한다.
- Ⓒ 학생들의 식습관의 변화에 따른 식단이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 Ⓓ 최근 유전자 조작 농산물의 안정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 Ⓔ 대부분의 학교가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저렴한 수입 농산물을 구매하는 실정이다.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34. 다음은 ‘비판적 사고를 기르지 못하는 대학교육현장’이라는 글 중 <서론>의 일부분이다. 본론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비판적 사고’는 어떤 개념 또는 주장의 조건과 결과를 체계적으로 따지는 지적인 과정을 말한다. 비판적 사고는 논리적이고 포괄적이며,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다.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은 학문에서나 현실에서나 독단을 거부하고 자신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적용한다. 그럼으로써 비판적 사고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

- 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자신의 의견과 대비시켜 살펴볼 수 있는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독단과 독선에 빠지거나 무소신의 나약한 정신의 소유자가 되고 말 것이다. 이런 청년들을 사회에 내보내는 것이 대학의 역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② 대학교육은 심화된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그러므로 선학들의 훌륭한 연구 성과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어설픈 주변 지식으로 선부르게 이론의 체계를 비판하고 자신만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대학의 역할과 맞지 않다.
- ③ 일각에서는 ‘교수들은 다른 사람의 문제를 다룰 때는 적극적인 듯하지만 자신의 문제에서는 가장 보수적이 된다.’는 말을 한다. 이 말은 대학사회가 자기

자신의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해지는 경향을 지적한 것으로 자신을 향한 냉철한 비판이 결여된 지식인 사회의 한계를 말해주고 있다.

- ④ 최근 퇴임한 한 원로 교수는 머리만 좋고 의식이 트이지 못한 도구적 지식인을 양산하는 우리 대학 교육을 비판하며 젊은 교수들이 지나치게 계량화되어 평가되는 연구 성과에만 관심을 두고 학생들이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지식인으로 성장하도록 이끄는 데는 무관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 ⑤ 미국의 사회학자이자 역사학자이며 교육자이기도 했던 윌리엄 그레이엄 섬너는 “비판적 사고 습관이 사회에 많아지면 모든 관행에 스며들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삶의 문제들에 대처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비판적 사고로 교육 받은 사람은… 증거를 기다리고 증거를 저울질하며, 어떤 주장을 이런저런 방법으로 강조하고 밀어붙이더라도 영향 받지 않는다. … 비판적 교수진의 교육은 좋은 시민을 만들어낸다고 진실로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교육이다.” 라고 말했다.

35. ㉠~㉣ 중 단락의 구성 요건상 삭제해야 하는 것은?

FTA 타결 이후 국내 농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추천 작물로 보리수과 관목인 비타민 나무가 각광 받고 있다. ㉠비타민 나무의 열매는 비타민 A, B, C, E, F, K를 다량 함유하고 있어 천연 비타민 영양제로 불리며 이밖에도 건강에 좋은 100여 종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고부가가치의 약용작물로 발전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일본의 한 음료회사는 비타민 나무 추출액을 이용한 상품을 출시하기도 하였는데, 파인애플 향이 나는 열매의 풍미가 좋아 음료, 주류, 잼, 약용기름 등으로 활용 가능하므로 향후 수요 확대가 예상된다. ㉢한편 비타민 나무는 겨울철 추위 및 여름철 고온에도 강하며, 척박지, 모래땅에도 잘 자라는 강한 적응력을 지녔고 병충해가 거의 없어 재배 관리가 수월하다. ㉣비타민 나무는 자웅이주이므로 암나무와 수나무 혼식비율을 4:1로 맞추어야 많은 열매를 수확할 수 있다. ㉤비타민 나무 뿌리는 지력을 높이는 박테리아 번식에 적당하여 농토의 지력 향상에도 도움을 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36. <보기>의 소주제문에 대한 뒷받침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GNP 수치는 국민 전체의 삶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 ① GNP는 소득의 불균형을 나타내지 못한다.
- ② GNP는 가정주부의 가사노동을 포함하지 않는다.
- ③ GNP는 공해나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생산 활동만 나타낸다.
- ④ GNP의 상징성을 인식하고 정부는 그 수치를 높이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
- ⑤ GNP는 취미나 여가와 같이 수치로 나타낼 수 없는 활동은 포함하지 않는다.

37. <보기>의 조건에 맞게 가장 잘 표현한 것은?

<보 기>

<과제> 추석 귀성길 교통 안내 표어  
 <조건>  
 1. ‘교통 법규 준수’ 를 주제로 삼을 것  
 2. 반어의 표현 방식을 활용할 것

- ① 경고! 정지선을 지키시오.
- ② 갓길 운행! 생명 단축의 지름길.
- ③ 여유 있게 운전하면 고향도 웃습니다.
- ④ 양보! 하면 할수록 길은 더 빨라집니다.
- ⑤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마음이 참 편해요.

[38~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네티켓(Netiquette)’이란 말은 네트워크(Network)와 에티켓(Etiquette)을 결합한 신조어이다. ㉠방대한 자료와 사람들이 복잡하게 얽혀 새로운 관계를 맺는 네트워크 공간은 새로운 사회라고 전제하고 그 속에서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할 윤리적 태도를 가리키기 위해 만들어진 말이다. ㉡네티켓은 사람들이 만나는 장

소를 기준으로 인터넷 상의 채팅 공간, 게시판, 이메일, 게임 공간, 자료실의 네티켓 등으로 나뉜다. ㉔이 가운데 채팅 공간에서의 네티켓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대화를 하지 않는다.’, ‘초보자를 위해 배려한다.’와 같이 대화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강조하는 것도 있고, ‘불건전한 대화를 하지 않는다.’, ‘바른 언어, 좋은 말을 사용한다.’와 같이 언어순화를 강조하는 것도 있다. 이러한 원칙들은 인터넷 공간의 특수성을 전제한 것들이다. ㉕가상공간의 디지털 자료이다 보니 자료를 만들어 낸 사람의 노력을 헛되이 만드는 불법 자료들이 자료실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㉖한편 ‘같은 글을 여러 번 반복해서 올리지 않는다.’와 같이 인터넷 공간에서만 특별히 강조되는 규칙도 있는데, 한 사람이 정보 공간을 독점하는 것을 막고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일상 대화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일방적인 발화가 중심이 되는 가상공간에서는 더욱 중요하게 여겨져야 할 규칙이다.

**38. 위의 글을 수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㉔에서 ‘공간은’ 은 ‘전제하고’ 의 목적어이므로 ‘공간을’ 로 고쳐야 한다.
- ② ㉔에서 ‘장소’ 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으므로 ‘사이트’ 라고 고쳐야 한다.
- ③ ㉔의 내용들이 인터넷 공간의 특수성을 강조한 것만은 아니므로 ‘특수성’ 부분은 빼야 한다.
- ④ 채팅 공간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글이므로 ㉔은 빼는 것이 좋다.
- ⑤ ㉔은 문장의 길이가 너무 길어 의미가 분명하게 전달되지 않으므로 짧게 끊어 쓰는 것이 좋다.

**39. ‘사교육(私教育)’ 을 소주제로 하여 위와 같이 분류 및 예시의 방식으로 글을 쓰려고 한다. 분류의 기준이나 예시 항목에 문제가 있어 소주제문으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교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로는 성적 향상, 재능 발굴, 교육 기회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 ② 부족한 학과를 보충하려는 목적을 가진 사교육에는 학교의 방과 후 교육, 보습학원, 과외 등이 있다.
- ③ 사교육은 교육비 지출 주체를 기준으로 학생 및 학부모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 비영리 민간단체가 부담하는 경우, 종교기관이 부담하는 경우 등으로 나

눌 수 있다.

- ④ 사교육은 교육 대상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정규 학령층(초, 중, 고등학교 학령층)에 해당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 ⑤ 사교육은 교육 대상에 따라 정신 및 신체장애 등 특수한 상황에 처한 학생들을 위한 것, 학과 공부가 부족한 학생을 위한 것, 상급학교에 진학하려는 학생을 위한 것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2) 2교시 문제

\* 지금부터 듣기 평가를 위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 1번부터 6번까지는 문제와 선택지를 듣고 푸는 문제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 다음은 강연의 일부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여러분들은 한국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한국을 상징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령 흰옷, 태극기, 김치, 한복, 무궁화, 그리고 아리랑과 같은 것이 한국을 상징합니다. 이 중 흰옷은 순수성을 나타내고 태극기는 음양의 조화를 표현합니다. 김치는 묵히고 삭혀서 새로운 맛을 창조하는 저력을 나타내며, 한복은 곡선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리랑은 이 모든 것을 담아내는 가락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리랑을 부르며 살아갑니다. 일제 강점기에는 나라 잃은 설움을 달래며 애수의 노래로, 저항의 노래로 아리랑을 불렀습니다. 아리랑은 눈물이 되기도 했고, 사랑이 되기도 했고,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리랑은 어느덧 한국의 상징적인 노래가 되었습니다. 아리랑은 국제 경기 때 한국팀의 응원가로 사용되면서 부르는 사람들과 듣는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워 주기도 합니다. 아리랑에서는 시련을 극복하고 희망과 미래를 위해 나아가는 모습이 ‘아리랑 고개’로 나타납니다.

세계적으로 보아도 진솔한 자기만의 바람을 표현하는 음악은 오래도록 감동을 줍니다. 미국 흑인들의 재즈, 블루스, 랩, 자메이카의 레게, 브라질의 보사노바, 멕시코의 마리아치 등 세계적으로 알려진 이 음악들은 민중들이 마주한 진솔한 삶을 표현한 것입니다. 한민족의 진솔한 감정을 표현하는 아리랑은 한국인의 상징적 노래인 것입니다.

[문1] 잘 들으셨지요? 이 강연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아리랑, 그 역사와 의미
- ② 국제화 세계화 시대 속의 아리랑
- ③ 민족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아리랑 가락
- ④ 아리랑, 신명나는 가락 속에 모든 한을 녹인다.
- ⑤ 아리랑, 한국인의 감정을 노래하는 한국의 상징

※ 다음은 인터뷰의 일부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리포터(남) > 오늘은 국내 먹기 대회 최강자 강주미 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내일이 신림동 순대 먹기 대회인데 지금 어떠세요?

강주미(여) > 컨디션이 무척 좋아요. 내일 꼭 우승하고 싶습니다.

리포터(남) > 대회에서 빈대떡 서른 판은 기본이라는데, 평소에도 그렇게 많이 드시나요?

강주미(여) > 남편 회사가 부도 나고 세 가지 일을 동시에 한 적이 있어요. 시간에 쫓겨 식사도 제때 못했죠. 한 번에 몰아서 밥을 먹는데, 별수 있나요, 무조건 입에 넣어야죠. 지금은 시간이야 넉넉히 있지만, 몇 년 동안 습관이 돼서 요즘도 밥 다섯 공기는 기본이죠.

리포터(남) > 네. 그런데 먹기 대회 출전을 시작하신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강주미(여) > 예전엔 많이 먹는 습관이 부끄러워 늘 혼자서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텔레비전에서 재미교포 미국 챔피언을 봤어요. 그 분은 이민생활에 바빠서 많이 먹기 시작했다는데, 대회 우승 후에 기뻐하는 모습이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리포터(남) > 그래서 그 분을 보고 자극을 받으셨나요?

강주미(여) > 그 전에는 제가 힘들게 살았던 모습을 숨기려고만 했었죠. 하지만 그 사람을 보고 생각이 달라졌어요. 나도 저렇게 떳떳하고 자신감 있게 세상을 살고 싶다. 그래서 대회에 나왔는데 덜컥 우승을 했어요.

리포터(남) > 대회 참가할 때마다 응원하는 아드님도 인상적인데요.

강주미(여) > 네, 첫 대회 출전할 때도 “엄마가 저 키워주시느라 많이 드시게 된 건데, 저는 그런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라고 용기를 줬어요. 그 말이 어찌나 고맙던지.

리포터(남) > 부끄러움에서 자신감으로, 강주미 씨에게는 단순한 대회 참가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일 꼭 우승하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문2] 잘 들으셨지요? 이 인터뷰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 ① 강주미 씨가 먹기 대회 최강자가 된 사연
- ② 강주미 씨가 자신감을 갖도록 응원한 가족
- ③ 강주미 씨가 먹기 대회 출전에 임하는 각오
- ④ 강주미 씨가 어려웠던 생활고를 극복한 과정
- ⑤ 강주미 씨가 폭식하는 습관을 가지게 된 계기

※ 다음은 인터뷰의 일부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기자(여) > 김송환 선생님의 연재만화 “돈의 제왕”이 드라마로 제작돼서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는데, 성공하기까지 남다른 어려움도 많으셨지요?

김송환(남) > 만화로 밥 먹고 사는 직업이 원래 그렇죠. 저는 지금도 제 작업실을 ‘공장’이라고 불러요. 거창하게 예술 한답시고 거들먹거리는 것들 보면 비위가 상합니다. 남들은 저보고 공장에서 봉어빵 찍어낸다고 하는데, 그게 어때서요? 봉어빵이 얼마나 맛있는데.

기자(여) > ‘예술이 아니라 노동이다’는 생각이신데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겠어요?

김송환(남) > 고등학교 중퇴 후 제 스승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때 다들 ‘두목’이라 불렀는데 깡패 집단처럼 살벌했죠. 하루에 수백 장씩 그렸는데, 요즘에야 안 그러지만 일본 것 보고 베끼는 거지 뭐. 분량 못 채우면 매도 맞았어요. 지금 제 작업장 문하생들도 저를 ‘선생’이라 안 부르고 ‘감독’이라고 불러요. 작업 감독이라는 말이겠죠. 하지만 전 매질은 안하니 걱정 마세요.

기자(여) > 열악한 작업 환경 속에서 치열한 전쟁을 벌이시는군요.

김송환(남) > 당연하죠. 세상이 얼마나 치열한데. 제 만화 “돈의 제왕”을 그렇게 치열하게 그렸어요. 만화 주인공 동작 하나하나 코피 쏟아가면서 그립니다.

기자(여) > 소재 발굴을 위해 노숙자 생활도 하셨다죠?

김송환(남) > 지금 생각해도 끔찍해요. 하지만 작품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한 달 후에 집에 돌아오니까 우리 막내가 나를 못 알아보고 기겁을 하더군요. 저는 본 것만 그리거든요. 남들처럼 대단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모든 걸 다 보기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해야겠죠.

기자(여) > 정말 치열한 예술 세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문3] 잘 들으셨지요? 이 인터뷰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 ① 만화가의 열악한 작업 환경 소개
- ② 만화가의 세계관과 돈에 대한 인식
- ③ 만화가의 작품이 성공하게 된 사연
- ④ 만화가의 예술관과 작품에 대한 열정
- ⑤ 만화가의 치열한 작품 소재 발굴 과정

※ 다음은 뉴스의 일부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앵커(여) > 하반기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만 경기 회복 때문에 걱정이 늘어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바로 전력회사들인데요. 올 봄에 에어컨이 많이 팔린 데다 공장가동률이 높아져 여름 전력 수요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력회사들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남) > 경기회복세와 함께 에어컨이 많이 팔린 데다 공장가동률도 높아지고 있어 이래저래 올여름 시간당 최대 전력 수요량은 6천만kw의 벽을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요가 갑작스레 늘어날 경우에 대비한 전력은 604만kw로 예비전력률이 10년 만에 한자릿수인 9.8%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은 여름철 심야시간대에 전기를 쓰는 업체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또 이런 방식으로 올해 전체 전력수요 중 9.6% 정도를 낮춰 6백만kw, 즉 원자력 발전소 여섯 기를 줄이는 효과를 거두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전력거래소 측은 이상고온이 닥칠 경우에도 4백 만kw 정도의 예비전력은 남을 것이라며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는 것은 좋지만 그 만큼 올여름 전력 수급사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문4] 잘 들으셨지요? 뉴스의 내용을 잘 이해한 발언은 무엇입니까?

- ① 올해 여름철 전력수요는 평년 수준을 보일 것이다.
- ② 경기가 회복되면서 전력회사도 이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 ③ 저녁이나 야간에 문을 여는 공장은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
- ④ 전력 사용 분산을 유도하여 최대 전력 수요량 감소 효과를 기대한다.
- ⑤ 예비전력률이 떨어지는 추세인 것은 그만큼 전력소모가 많기 때문이다.

※ 다음은 인터뷰의 일부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사회자(여) > 지난 달 출간된 “젊은이여 부자를 꿈꾸자”가 장안의 화제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작가(남) > 책 제목처럼 부자를 꿈꾸는 사람이라 자부합니다. 제가 말하는 부자는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거나 투기로 졸부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진취적인 사고와 성실한 노력으로 부를 축적해나가는 사람이죠. 과거완료형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인 셈이죠.

사회자(여) >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김송환(남) > 과거를 돌이켜볼 때 우리나라에는 ‘나쁜 부자’가 많았습니다. 정경유착이 판을 치던 시대였죠. 그들은 무임승차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자유시장경제에서 부자란 누구나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민주적인 가능성입니다.

사회자(여) > 그러나 이미 부자인 사람이 더 부유해지는 현상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김송환(남) > 분명 그런 현상이 있죠. 하지만 부자를 나쁜 시각으로만 보는 것도 그리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는 열등감과 자괴감으로 연결되기 마련이니까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쁜 부자’가 아니라 ‘좋은 부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이때 부자의 기준은 얼마의 돈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노력을 통해 성취하는 사람이 부자다.’ 이것이 제가 책에서 말하는 부자상입니다.

[문5] 잘 들으셨지요? 이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는 바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저자는 ‘좋은 부자’가 많은 사회가 민주적인 사회라고 생각한다.
- ② 저자는 ‘나쁜 부자’도 긍정적인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간주한다.
- ③ 저자는 진취적 사고와 성실한 노력이 부자를 만든다고 주장한다.
- ④ 저자는 과거에 비해 현재가 민주적인 경쟁이 가능한 시대라고 파악한다.
- ⑤ 저자는 자신의 책에서 재산 이외의 가치들을 부자의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 다음은 인터뷰의 일부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질문(남) > 사장님께서 출시한 오디오가 전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힘든 시절도 있으셨다는데 소개 좀 해주시죠.

대답(남) > 80년대 구로동 공장에서 힘들게 독자 모델을 개발한 적이 있어요. 음대교수들 초청해서 들려줬는데 우리가 만든 백만 원짜리가 수입산 수 천만 원짜리보다 더 좋다고 그랬죠. 하지만 결국 부도로 이어졌죠. 사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질문(남) > 그 시기에 해외로 진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답(남) > 네, OEM으로 해외업체 하청을 받았죠. 서서히 우리 기술을 인정하기 시작하더라구요. 내친김에 회사를 부도로 이끌었던 그 모델을 해외에 출시했는데, 반응이 대단했죠. 주로 미국 시장에 집중했는데 꼼꼼한 품질 때문에 일본산인 줄 아는 사람이 많았어요. 80년대는 미국인들이 일본 상품을 경계하던 때라 알게 모르게 힘도 들었죠.

질문(남) > 우리나라 판매 초기에도 일본제품으로 알려진 적이 있는데, 10년 전 국내 출시 때는 반응이 대단했었죠?

대답(남) > 미국 오디오 잡지를 읽은 사람들이 일본산으로 착각한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 제품을 공정하게 봐준 셈이죠. 그때는 다들 수입산이라면 일단 한 수 접어주었으니까요. 지금이야 저희 제품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국내 제품과 기술진을 너무 경시하는 것 같아요.

[문6] 잘 들으셨지요? 이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는 바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사장은 지금에서야 비로소 자사 제품이 가치를 인정받는다고 생각한다.
- ② 사장은 제품 자체의 품질과 기술이 해외시장의 성공요인이었다고 생각한다.
- ③ 사장은 해외에서 일본산으로 오인되어 판매가 잘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 ④ 사장은 제품 개발 당시 국내산에 편견이 판매의 장애 요인이었다고 생각한다.
- ⑤ 사장은 국내 재출시 때 일본산으로 오인되어 편견을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 7번부터 27번까지는 내용을 들은 후, 시험지에 인쇄된 문제와 선택지를 보고 푸는 문항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다음은 인터뷰의 일부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기자(여) > ‘한국의 맛을 찾아서’ 코너, 오늘은 설령탕 외길 50년을 걸어오신 이상진 옹을 찾아왔습니다. 특별한 맛의 비결을 살짝 알려주세요.

이상진(남) > 비결이야 뭐 있겠어. 손님들이 맛있어 하면 되는 거지.

기자(여) > 이상진 옹께서는 재료를 고르는 열정이 대단하신 걸로 아는데, 요즘도 새벽시장에 직접 나가시죠?

이상진(남) > 고기 고르는 건 몇 년 전부터 아들한테 다 맡겼고, 며느리랑 들어서 직접 장을 보지. 김치 재료나 쌀 고르는 게 내 일이야. 김치하고 밥이 설령탕의 맛을 살리는 일등공신이거든.

기자(여) > 좋은 재료가 맛의 기본이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정성도 많이 들이시는 것 같은데 아직도 직접 설령탕을 끓이시죠?

이상진(남) > 물론이지. 정성이 들어가야 제 맛이 나. 나한테 설령탕 배우겠다고 찾아오는 양반들한테 늘 강조하는 거야. 나는 비밀 같은 것도 없어. 젊은 사람들은 설령탕에 조미료도 넣고 우유도 넣고 한다는데, 정성을 다하는 게 맛의 비결이지.

기자(여) > 여기는 ‘모범음식점’ 간판도 없고, 열 평 남짓한 가게가 전부인데 굳이 지금 상태를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상진(남) > 맛이 중요하지 ‘모범음식점’ 이 다 무슨 소용이야. 공무원들이 찾아와서 합격하면 간판 달아주는 건데, 점심시간만 되면 지들이 알아서 찾아와 먹고 가는 걸…… 입소문이라고 하나. 다들 알아서 찾아와. 가게가 크면 허탕이야. 정성이 예전만 못해지거든. 예전에 아들이 분점이다 확장이다 뭐다 해서 가게 하나 더 냈다가 내가 문 닫게 했지. 장사는 잘되는 것 같던데, 국물 맛이 영 아니였어.

기자(여) > 작은 가게를 고집하는 것도 그런 깊은 뜻이 있으셨군요.

## 7. 인터뷰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노인이 밝히는 설령탕 맛의 비결
- ② 입소문을 통한 홍보 기법의 사례
- ③ 작은 재료까지 직접 고르는 노인의 정성
- ④ 50년간 작은 가게를 고집하는 노인의 신념
- ⑤ 음식점 성공 요인으로 식재료 선정의 중요성

※ 다음은 토론의 일부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여> 요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파트 단지 구성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지도 않고 단체장의 공약을 실천한다며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남> 일부 지자체에서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않고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여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거여건을 개선하는 동인이 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무조건 비판만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 주거여건을 개선하는 데 꼭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주거지역 주변의 상가를 재개발하고 학교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아파트 단지만 생겨나면 오히려 주거여건은 더 나빠진다고 생각합니다.

남> 단지가 생기고 주민이 많아지면 자연히 상업지역도 활기를 띠 것이고 학교를 비롯한 교육여건도 개선될 것입니다. 시장의 논리를 생각해 보세요. 수요가 없는데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여> 허허벌판에 아파트 단지만 들어서 있고 도로도 제대로 나 있지 않아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수요가 생겨야 투자를 할 것이라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제대로 수요예측을 하지 않고 주민 이주만 우선하는 정책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남> 주변 환경을 살피지 않고 무조건 아파트를 찾아다니는 입주자들이 잘못이지요. 상업지역이나 학교 환경을 살피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이 기본 아닐까요?

여> 그것은 지자체의 입장만 두둔하는 무책임한 발언이군요. 지자체가 대단위 주거 단지를 조성하려고 한다면 마땅히 주거 환경 전반을 세밀하게 살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지요. 도로 계획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채 아파트 단지의 구성을 남발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전시행정이라 생각합니다.

8. 토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여자는 공공기관의 주거정책이 무계획적이라고 비판한다.
- ② 남자는 아파트 입주자들이 면밀하게 주거 여건을 살피야 한다고 주장한다.
- ③ 남자는 아파트 단지 구성을 시장의 논리에 따라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 ④ 여자는 남자의 논리가 지나치게 건설업자 중심의 시각에서 있다고 비판한다.
- ⑤ 여자는 주거 지역 구성에 관한 지자체의 근시안적인 전시행정이 잘못이라는 입장이다.

※ 다음은 두 사람의 대화 내용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남> 요즘 TV를 보면 불필요한 인터뷰가 너무 많습니다.

여> 저는 못 느꼈는데,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남> 뉴스는 2분이 채 되지 않는 짧은 보도에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와 함께 관련자를 인터뷰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불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 아, 그래요. 전 잘 못 느끼겠던데요.

남> 며칠 전에 국제 빙상 경기대회가 열릴 예정이던 곳에서 화재가 났었잖아요. 유명한 선수들의 공연이 예정되어 있어 국민적 관심이 컸었죠. 그 뉴스에 화재가 발생한 사건을 기자가 소개한 다음 화재 현장에 있던 사람의 인터뷰가 중간에 삽입되었어요.

여> 그 인터뷰가 불필요했다는 것인가요?

남> 그렇죠. 기자는 현장에 있던 시민의 반응을 소개하기 위해 인터뷰를 삽입했지만 과연 해당 뉴스에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하는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여> 인터뷰 내용에 문제가 있었나요?

남> 중요한 것은 인터뷰를 한 시민이 화재에 대해 긴박하고 중요한 관찰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냐는 점인데 시민의 복장을 봤을 때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 사람은 넥타이를 매고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여> 그 당시에 정장을 입고 있었을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남> 아니 화재 현장에 정장을 입고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다 인터뷰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 일부러 설정한 것일 거예요.

여> 그건 좀 동의하기 어려운데요. 단지 복장 때문에 불필요한 인터뷰였다고 말하기는 어렵겠는데요.

### 9. 남자가 대화를 이끌어 가는 방식이 잘못된 이유는?

- ① 상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안에 대해 폄하하고 있다.
- ②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부적절한 근거를 들어 비판하고 있다.
- ③ 상대가 예상하고 있던 문제를 화재로 삼아 지루함을 던져 주고 있다.
- ④ 상대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여 자연스러운 설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⑤ 상대와 직접 관련이 있는 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에 대화가 걸돌고 있다.

※ 다음은 인터뷰의 일부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질문(남) > 감독님의 작품은 현대인의 섬세한 심리 세계를 여성 특유의 시각으로 잘 포착하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답(여) > 글썽요,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섬세하다는 논리 자체가 엄청난 선입견이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제가 페미니스트 감독이라는 것인데 저 스스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와 같은 세대의 남성 감독 역시 섬세한 시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질문(남) > 그렇다면 우리 주변 일상의 사소한 부분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궁금해지군요.

대답(여) > 연필을 한참 들여다보면 저는 연필이 말을 걸어오는 듯한 묘한 착각에 빠져요. 나무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냄새와 손끝에 전달되는 부드러우면서도 까끌한 촉감. 사람도 마찬가지로 한참을 보고 있으면 말로 설명하기 힘든 뭔가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전 늘 지하철과 버스를 애용합니다.

질문(남) > 감독님의 영화 장면 중 사건 진행이나 대사 없이 한참을 같은 장면만 제시하는 롱테이크가 많은데, 혹시 언어라는 논리의 세계에 대한 회의 때문인가요?

대답(여) > 네, 저의 주관적 느낌을 대사로는 고스란히 전달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물론 저는 저의 느낌과 인상을 관객에게 전하겠다는 의도도 없고 또 전달될 수 있다고 믿지도 않아요. 오히려 화면을 응시하는 관객들이 각기 다른 감상을 통해 저마다의 마음속에 인상과 느낌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 10.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 ① 영화감독은 일상의 사소함에서 중요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② 영화감독은 성별에 따라 섬세한 묘사를 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 ③ 영화감독은 관객들이 능동적으로 영화를 감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④ 영화감독은 대상의 섬세한 느낌을 대사로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 ⑤ 영화감독은 자신의 주관적 느낌을 대사 없는 롱테이크로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다음은 토론의 일부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남> 최근 휴대전화의 교체 주기가 무척 짧아졌습니다. 우리나라 업체들의 기술력이 떨어져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루가 다르게 기능이 개선되었다는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소비욕구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여> 정말 큰 문제입니다. 경제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 꼭 필요한 것도 아닌 휴대전화에 이렇게 많은 돈을 쓰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남> 일상생활의 필수품이 되어버린 휴대전화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나은 기능을 가진 것으로 바꾸고 싶은 마음이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소비자가 아닌 업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 맞습니다. 꼭 필요하지도 않은 기능을 통합했다면서 단말기 가격만 올려놓고 동일한 기능의 휴대전화 디자인을 조금 변형시키고 신제품이라고 광고하는 것을 보면 정말 뻔뻔하기 그지없습니다.

남> 기능 개선의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승부수를 디자인에 거는 것을 두고 비난할 일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각종 보조금이며 할인혜택을 앞세워 가입자를 유치해 놓고는 정작 서비스의 질적 측면을 개선하는 데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무선 인터넷 기능이나 와이브로 기능 등을 광고하면서 실제 제대로 작동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여> 맞아요. DMB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구입했는데 정작 시청할 만한 콘텐츠는 거의 없더군요. 공중파의 재탕 삼탕에 불과한 콘텐츠를 보려고 DMB 기능 휴대전화를 비싸게 구입한 것은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 11. 토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여자는 남자의 의견에 동조하면서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지적해준다.
- ② 남자는 불필요한 휴대전화 교체의 문제점을 업체의 태도에서 찾고 있다.
- ③ 여자는 정서적 반응을 보여줌으로써 소비자의 입장에 서서 공감을 표시한다.
- ④ 남자는 휴대전화 업체의 서비스의 질적 개선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 ⑤ 여자는 새로운 기능이 구현되는 휴대전화의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 다음은 뉴스의 일부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앵커(남) > 통계청이 우리 국민의 행복을 저해하는 다섯 가지 요소를 발표했습니다. 서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여) > 통계청에서 이번에 우리 국민의 행복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해 발표를 했습니다. 통계청이 꼽은 첫 번째 요인은 맞벌이 주부의 지나친 가사노동입니다. 우리나라 맞벌이 주부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시간은 3시간 30분인 반면, 남편은 30분에 불과합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기구 국가 가운데 가장 긴 근로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가정생활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이 또한 행복을 저해하는 요소입니다. 긴 근로시간으로 인해 자기계발에 사용하는 시간도 부족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시간 특히 가족 간의 대화 시간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대화시간의 경우 TV나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의 1/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대화부족은 스트레스,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를 야기하고 사회적으로 범죄, 자살 등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부·봉사활동의 부족도 행복을 가로막는 요인입니다. 지난해 복지단체 등에 후원금을 낸 사람은 전체 국민의 32%로 미국인 개인 기부비율 76%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12. 보도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기부·봉사활동의 참가 여부는 행복감의 지표가 될 수 있다.
- ② 타인과의 대화 부족은 개인적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 ③ 가족 간의 대화 시간이 부족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TV시청 때문이다.
- ④ 긴 근로시간은 가정생활시간의 부족, 자기계발 시간의 부족을 야기하는 원인이다.
- ⑤ 맞벌이 주부의 행복저해 요인을 줄이는 것은 가사노동을 남편과 분담하는 것이다.

※ 다음은 강연의 일부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강연자> 비타민을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자신의 제품이 다른 제품보다 좋다는 것을 선전하는 방법으로 고가의 ‘천연’ 비타민과 ‘흡수성’ 비타민을 내세웁니다. 우선 ‘천연’ 비타민을 살펴보면, 천연 비타민은 화학적으로 ‘합성’한 것이 아니라 천연물에서 추출한 것이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고, 효과도 좋다는 논리입니다. 당연히 좋은 물건이니 가격도 비싸게 책정하겠죠. 그렇지만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소위 ‘천연’ 비타민은 합성비타민에 약간의 천연 비타민을 섞어 놓은 것입니다. 만약 천연 비타민만으로 알약을 만들게 되면 한 번에 먹어야 하는 양이 야구공 크기 정도라고 하니, 소위 ‘천연’비타민 속에 천연물에서 추출한 비타민이 얼마나 조금 들어있는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바나나’우유가 ‘바나나맛’ 우유로 이름이 모두 바뀌었는데, ‘천연’비타민도 언젠가는 이름이 바뀔 날이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비타민의 흡수를 돕기 위해서 특수한 처리를 했다는 흡수성 비타민입니다. 흡수성 비타민은 비타민의 흡수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 일반 비타민을 특수처리(chelate)한 것인데, 일반 비타민에 비해서 훨씬 비싼 값에 팔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비타민이라도 식전이나 식후에 바로 먹으면 온전히 흡수가 되기 때문에 비타민을 꼭 공복에 먹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굳이 값비싼 흡수성 비타민을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13. 강연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비타민, 오남용 사례 심각
- ② 비타민, 천연 비타민제의 허구
- ③ 비타민, 올바르게 섭취하는 요령
- ④ 비타민, 고가 마케팅에 유의하라
- ⑤ 비타민, 굳이 먹을 필요가 있는가

**14. 남자가 대화를 이끌어 가는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깊은 철학적 사유를 통해 물음의 답에 접근하고 있다.
- ② 논리적인 반박과 재반박을 통해 물음의 답에 접근하고 있다.
- ③ 어려운 대상을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물음의 답에 접근하고 있다.
- ④ 상대가 모르는 부분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며 물음의 답에 접근하고 있다.
- ⑤ 본인이 잘 모르는 부분은 대화의 말미에 질문을 함으로써 물음의 답에 접근하고 있다.

※ 다음은 대화의 일부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영수> 순영아, 오늘 배운 '추론'이라는 것이 뭔지 알겠니?

순영> 아니, 넌 잘 알아들은 모양이구나.

영수> 그래, 추론이란 특정한 전제로부터 어떤 결과를 이끌어 내는 논증의 형식을 말하는 거야.

순영> 전제에서 결과를 끌어내는 방식은 많은데...

영수> 추론에는 연역적 추론과 귀납적 추론이 있어. 전자는 일반적 지식 또는 보편적 원리를 전제로 하여, 그것으로부터 특수한 지식, 원리, 사실을 논증하는 방법이야.

순영> 일반에서 특수를 이끌어 낸다는 말이구나.

영수> 가장 대표적인 예로 삼단 논법을 들 수가 있어.

순영> 삼단 논법?

영수> 응, "모든 생물은 영양을 섭취해야 살 수 있다."라는 명제가 있고, "사람은 생물이다"라는 명제가 있다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낼 수 있을까?

순영> 그러므로 사람도 영양을 섭취해야 살 수 있다?

영수> 그래, 바로 그거야. 쉽게 이해하는구나.

순영> 귀납적 추론은 특수에서 일반화를 이끌어 내겠지?

영수> 맞았어. 귀납적 추론은 특수한 사실을 토대로 해서 일반적 원리를 이끌어 내는 방법인데 일반화와 유추의 두 가지가 있어.

순영> 이걸 좀 어렵겠는걸.

영수> 우선 일반화에 대해 설명해 볼게. 일반화는 충분한 수효의 개별적인 사례로 미루어 나머지 사례도 같다는 결론에 이르는 방법이야. "이 까마귀도 까맣고, 저 까마귀도 까맣고, 백 번째 까마귀도 까맣다."라는 특수한 사실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결론은 뭘까?

순영> 모든 까마귀는 까맣다?

영수> 그래 맞아. 이런 것이 귀납적 추론 중 일반화라고 할 수 있지.

### 15. 토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남자는 청소년 범죄의 원인이 왜곡된 기념일 문화에 있다고 생각한다.
- ② 남자는 국적불명의 소비적인 기념일 문화를 배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③ 여자는 소수의 그릇된 행태를 비난의 근거로 삼아서 안된다고 주장한다.
- ④ 남자는 매월 14일을 기념하는 젊은이들이 사치와 방종에 흐르고 있다고 비판한다.
- ⑤ 여자는 기념일을 통해 친목을 다지려는 젊은이들을 이해해야 한다는 입장에 있다.

※ 다음은 뉴스의 일부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앵커(여) > 출퇴근 길에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신분이 공무원이나 아니냐에 따라 산업재해 판정이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대법원이 불합리한 현행 산재보험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강서기 기자입니다.

기자(남) > 지난 2002년 자동차 공업사에서 일하던 김 모 씨는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보상금을 달라고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일반 근로자가 출퇴근길에 입은 재해는 산업재해보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유족들은 소송도 내 봤지만, 1, 2심에서 모두 졌고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올려 대법관 모두에게 의견을 물었고, 대법관 여덟 명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다수 의견을 내놨습니다. 근로자의 출퇴근 방법과 경로 선택은 사업자의 지배나 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관 다섯 명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반복적인 출퇴근은 사업주가 정한 시각과 근무지에 구속되는 것인 만큼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무원이나 군인, 사립학교 교사가 출퇴근길에 입은 사고는 산재로 인정하면서 일반 근로자는 예외로 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법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했을 경우에만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공보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녹취: 박공보, 대법원 공보관>

현행법으로는 통상적인 출퇴근 중의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는 종전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사회보장적 측면에서는 그 범위를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기자(남) > 그러면서 결국 산재 인정 대상을 늘리는 것은 국가 재정이나 노사 사이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16. 보도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것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일반 회사의 회사원이 카풀 제도를 이용해 출근하다 사고를 당하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
- ② 대법원은 전원일치로 출퇴근 시 발생한 교통사고의 산재 인정을 기존 법규대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 ③ 사립학교 교사는 국가기관에 소속되지 않았으므로 출퇴근 시의 교통사고를 산재로 인정받을 수 없다.
- ④ 대법원의 판결로 출퇴근 시의 산재인정 범위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출퇴근 시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를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다음은 대화의 일부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교수(남) > 조선 시대 실학자는 누가 있을까?  
학생(여) > 홍대용, 유형원, 박제가, 이익, 김정호, 박지원, 윤희 등이 있습니다.  
교수(남) > 농업 분야를 연구한 사람은 누가 있나?  
학생(여) > 유형원, 박제가가 있습니다.  
교수(남) > 유형원은 맞는데 박제가는 상공업 분야일세. 농업분야에는 이익이 있네. 유형원과 이익이 각각 어떤 저술을 지었는지 기억나나?  
학생(여) > 《반계수록》과 《성호사설》을 지었습니다.  
교수(남) > 그렇지. 실학자는 농업 분야뿐만 아니라 상공업 분야도 관심을 가졌는데 이 분야는 누가 있을까?  
학생(여) > 박제가와 박지원이 있습니다. 박제가는 《북학의》를 지었고, 박지원은 《열하일기》를 지었습니다.  
교수(남) > 과학기술 분야도 실학자들이 관심을 가졌을 텐데?  
학생(여) > 홍대용이 있으며 《의산문답》을 지었습니다.  
교수(남) > 자네가 처음에 말한 실학자 중에 아직 얘기 하지 않은 사람이 있나?  
학생(여) > 네 윤희와 김정호가 남아 있습니다.  
교수(남) > 그렇지. 그 두 사람이 관심을 가진 분야를 이야기해 보게.  
학생(여) > 이 두 사람은 역사, 지리, 언어 등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두 사람의

저술을 보면, 윤희는 《언문지》를 지었고, 김정호는 《대동여지도》를 제작하였습니다.

교수(남) > 그래 자네 말이 맞네. 결국 조선시대 실학자들은 농업, 상업, 과학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역사, 지리, 언어 등에도 관심을 가진 것을 알 수 있지. 각 분야에 해당하는 학자는 자네가 지금 말한 것과 동일하네.

### 17. 교수가 대화를 이끌어 가는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② 학생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 질문을 유도하고 있다.
- ③ 딱딱한 주제에 대해 농담을 섞어 가며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다.
- ④ 대강 아는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내용을 분류하여 질문하고 있다.
- ⑤ 주제에 대한 정리는 학생에게 맡기고 자신은 새로운 문제를 계속 던지고 있다.

※ [18~19] 다음은 텔레비전 방송의 일부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나레이션 > 이번 시간에는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에서 2007년 12월 11일까지 열리는 이색적인 전시회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유목민처럼 지구촌을 떠도는 디지털 노마드족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제품들의 디자인 변천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른바 ‘탈 것’, ‘움직이는 것’의 디자인을 통해 역사를 공부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전시회는 크게 2개의 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근대적 속도’에서는 탈 것의 변화상을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1871년 영국에서 만들어진 세계 최초의 자전거 ‘오디너리(Ordinary)’, 대중문화의 아이콘이 된 ‘할리 데이비슨’ 바이크, 영화 ‘로마의 휴일’에서 그레고리 펙과 오드리 헵번이 탔던 이탈리아의 ‘베스파 스쿠터’, 미국 자동차업체가 대량생산 방식을 처음 도입해 생산한 포드자동차, 독일 국민차 시대를 열어준 명차 ‘폴크스바겐’ 등이 전시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기능만큼이나 중요한 디자인으로 어필합니다.

두 번째 주제 ‘주거의 이동’에서는 임시주거를 위한 기구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몽골이 전쟁터에서 야전 숙소로 사용한 솔롱고스 캠프의 ‘게르(Ger)’나 네덜란드의 자동접이식 캐러밴 ‘마르키스’, 프랑스의 포터블 주거공간인 ‘노망벨’이나 ‘앵스탕 예고’ 등이 전시되어 있는데, 이것들 또한 그 기능 못지않게 디자인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속도를 더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움직이는 것’에 대한  
쉽 없는 개발과 진보를 낳았고 그 발전의 역사엔 실용성과 함께 미학적 고민이  
함께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18. 텔레비전 화면의 영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한가람디자인미술관의 전경
- ② 독일의 국민차 ‘폴크스바겐’
- ③ 프랑스의 포터블 주거공간 ‘노망빌’
- ④ 네덜란드의 자동접이식 캐러밴 ‘마크키스’
- ⑤ 디지털 노마드족들이 타고 다니는 자전거

**19. 방송에 소개된 전시회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탈 것’ 과 주거문화의 변천사
- ② 인간의 욕망과 디자인의 역사
- ③ ‘움직이는 것’ 의 디자인 변천사
- ④ 디지털 시대의 아날로그에 대한 회상
- ⑤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탈것의 역사

※ [20-21] 다음은 어느 외국 소설가의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의 책에 많은 사랑을 보내 주신 한국 독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출판사측에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소설 “검은 방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달라고 하셨지만 결국 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 자신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1985년도에 미국 뉴욕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터키인으로서, 동양 사람으로서 제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느꼈습니다. 내 문화가 무엇이고 터키 문화가 세계 문화 속에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동안 이슬람의 신비스러운 작품을 신중하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탓에 “검은 방황”에는 고전적인 “천일야화” 같은 스타일로 포스트모더니즘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저는 이슬람의 고전문학으로부터 멀리 있었고, 이슬람문학에 심취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만, 보르헤스나 칼비노의

영향으로 세속적인 차원에서 이슬람 문학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보셨겠지만 “검은 방황”이라는 것은 변호사인 주인공이 잃어버린 자기 아내를 찾아다니는 이야기입니다. 그 변호사가 이스탄불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골목골목 다니면서 신비한 경험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따라서 “검은 방황”은 제가 이스탄불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더불어서 제가 이 도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터키 사람들이 유럽화 되고 싶으면서 전통문화인 이슬람에 남고 싶어 합니다. 저는 정치가는 아닙니다. 저는 정치적인 것보다도 전체적인 그림을 보기를 원하는 작가입니다. 터키는 이슬람의 문화 속에 있고 유럽을 가고 싶어 하는 의지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 두 가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번 소설 “검은 방황”을 통해 이 두 가지를 인정하게 하고 병행하도록 만들어 주려고 했습니다.

## 20. 강연을 듣고 작가에 대해 잘못 파악한 것은?

- ① 소설가는 터키인이다.
- ② 작가 보르헤스의 영향을 받았다.
- ③ 생의 대부분을 이스탄불에서 살았다.
- ④ 변호사 경험이 창작에 도움이 되었다.
- ⑤ 이슬람 문학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검은 방황』을 썼다.

## 21. 작가가 소설 『검은 방황』을 통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한 것은?

- ① 터키인의 정체성에 대한 탐구
- ② 터키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해결
- ③ 전통적인 이슬람 문화 회복의 필요성
- ④ 동양인의 서양 문화 체험에 대한 혼란
- ⑤ 서양 영화의 영향으로 파괴되는 동양의 정체성

※ [22-23] 다음은 텔레비전 뉴스의 일부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앵커> 요즘 컬러 콘택트렌즈가 인기인데,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기자> 예,形形色색의 컬러 콘택트렌즈는 눈동자 색깔을 바꿀 수 있을 뿐 아니라 눈망울이 커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많은 여성들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비싼 건 5~6만 원대에서 몇 천 원짜리 싸구려 렌즈까지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특히 싸구려 렌즈는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은 10대들이 폭발적으로 소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앵커> 이렇게 싸게 파는 컬러렌즈들, 부작용이 없지 않을 텐데요. 이번에 싸구려 컬러렌즈가 왜 해로운지 직접 실험을 통해 알아보셨는지요?

기자> 네, 실제 컬러렌즈가 얼마나 위험한지 직접 실험을 의뢰했습니다. 먼저 표면 검사를 해보았는데요. 현미경으로 관찰해보니 렌즈의 이중면 사이에 염료를 주입시킨 고가품은 매끈해 보입니다. 하지만 표면에 염료를 그냥 칠해놓은 저가품은 표면에 덩어리가 져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산소가 얼마나 통과되는지를 알아보는 산소 투과율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컬러렌즈는 제품별로 산소투과율이 10~15가 나왔습니다. 산소투과율이 33인 일반 콘택트렌즈보다 2배에서 많게는 4배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앵커> 이런 실험결과라면 눈 건강에도 매우 해로울 텐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렌즈 표면의 울퉁불퉁한 염료는 렌즈를 눈에 낄 경우 각막에 직접 닿을 수 있어서 손상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 렌즈의 산소 투과율이 떨어지면 눈의 피로가 쉽게 오고 각막염이 생기는 위험이 있습니다. 안과 전문의의 설명에 따르면 녹농균, 아메바 등의 곰팡이균에 감염됐을 때는 치명적인 각막 궤양을 일으켜서 심한 경우에는 실명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컬러렌즈는 미용 용품이 아닌 전문 의료기기로 분류돼 있습니다. 때문에 식의약청이 주무기관이지만 단속은커녕 이런 부작용 실태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22.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저가품 컬러렌즈는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 ② 저가품의 컬러렌즈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소비자는 10대들이다.
- ③ 렌즈의 산소 투과율이 높을수록 각막염이 생길 가능성은 낮아진다.
- ④ 현행법상 컬러렌즈는 전문 의료기기로 취급되어 식의약청이 담당하고 있다.
- ⑤ 저가품의 컬러렌즈는 렌즈의 이중면 사이에 염료를 주입시켜서 표면이 매끈하다.

23. 기자가 저가 컬러렌즈의 위험성을 말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식적인 차원에서 호소하고 있다.
- ② 소비자들의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들어 제시하고 있다.
- ③ 권위 있는 사람의 견해를 인용하여 논리적으로 말하고 있다.
- ④ 과학적인 실험과 그 결과를 이용하여 근거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 ⑤ 정부의 차원에서 업무 분담의 비합리성이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24-25] 다음은 뉴스의 일부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아나운서(여) > 추석 연휴 이틀째인 오늘도 고향을 찾으려는 사람들로 버스터미널과 서울역은 붐볐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13시간이 걸리는 귀성길이지만 고향의 가족들을 만날 생각에 귀성객들의 표정은 기쁘고 넉넉했습니다. 박기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남) > 고향 가는 길에 나선 사람들이 차례로 버스에 오릅니다. 손에 선물 꾸러미를 챙겨 들고 있지만,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가장 큰 선물은 귀성길에 따라 나선 손주들입니다. 손주 재롱에 즐거워하실 부모님 생각에 이들의 마음은 기쁘기만 합니다.

귀성객 1(젊은 여성) >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은 걱정은 되는데요. 부모님을 만나 뵈 수 있어서 우선 기쁘고요. 또 친지들 다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기자(남) > 자나깨나 자식 걱정뿐인 한 어머니는 귀성길에 고생할 자식 걱정에 결국 서울로 나섰습니다.

귀성객 2(할머니) > 애들이 서울서 시골로 내려오면요 차도 복잡하고 그래서 그냥 부모가 이렇게 올라오네요. 즐겁게 애들하고 추석을 쇠려고요.

기자(남) > 지난 달 결혼한 뒤 처음 고향집을 찾는 신혼부부는 어린애처럼 마음이 한껏 부풀었습니다.

귀성객 3(젊은 남성) > 처갓집에서 처음으로 보내는 명절이었는데 너무 맛있는 걸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친가에 가서도 저희 부모님하고 또 즐거운 시간 보내고 즐겁게 왔다 오겠습니다.

기자(남) > 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 멀고 힘든 고향 길이지만 귀성객들의 발걸음은 가볍기만 합니다.

24. 뉴스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추석 연휴의 귀성 인파가 많다.
- ② 추석 연휴에 교통난이 심각하다.
- ③ 추석에 부모가 자식을 만나러 서울로 오는 경우도 늘고 있다.
- ④ 경기가 악화되면서 추석 선물 구입을 위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 ⑤ 귀향길에 오르는 사람들은 대개 일가친지들을 만날 기대에 부풀어 있다.

25. 뉴스의 구성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권위 있는 사람의 견해를 보도의 근거로 삼고 있다.
- ② 인터뷰를 나열하여 명절 분위기를 보여주는 데 주력하고 있다.
- ③ 먼저 전체를 들려준 뒤,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사건을 보도하고 있다.
- ④ 보도의 중립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반된 견해를 함께 소개하고 있다.
- ⑤ 문제를 먼저 제시한 뒤,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들려주고 있다.

※ [26-27] 다음은 인터뷰의 일부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리포터> 오늘은 드라마 작가 김철수 씨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죠?

김철수> 네, 또 새로운 작품을 준비해야지요.

리포터> 작가님께서서는 최근에 소설을 드라마로 만드는 작업에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작을 보면 대부분 원작이 미국 소설인데요. 한국 소설 대신 미국 소설을 선택한 이유가 있으세요?

김철수> 우리나라에는 대중 독자들이 이야기의 강렬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소설이 너무 없습니다. 저는 한국 소설에서 ‘재미’를 느껴본 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미국의 대중소설을 보면 전문적인 소재를 치밀하고 탄탄한 이야기로 재미있게 꾸미고 있습니다.

리포터> 그렇다면 한국 소설이 드라마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김철수> 무엇보다도 작가들의 태도 변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중이 느끼는 재미에 대해 철저히 고민을 하고 작업을 해야 하고요. 또한 이야기 구조를 좀 더 탄탄히 하고, 소재의 전문성을 높여야 합니다. 미국 대중 소설들은 소설의

소재 자체가 전문적이라 영상으로 담아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소설가들은 아무 대책 없이 감성만으로 글을 써요. 또한 이제는 소설 기획 자체가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 것을 염두에 두고 시작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같은 영상 작가와 소설 작가가 긴밀히 협조해나가며, 작품을 창작하는 새로운 창작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중 작가들은 벌써 이런 방식으로 작업하고 있으니 미국 소설을 드라마로 만드는 것이 수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 26. 작가가 말한 한국 소설의 발전 방안을 바르게 정리한 것은?

- ① 영상과 문자가 결합된 새로운 형식의 소설을 창작하여야 한다.
- ② 전문적인 소재를 잘 짜여진 이야기로 만들어서 재미를 확보해야 한다.
- ③ 감성성과 전문성 사이의 균형을 잡아 한국 소설의 독자성을 구축해야 한다.
- ④ 통속적인 소재를 버리고 진지한 주제를 추구하여 문학성을 높여야 한다.
- ⑤ 영상물로 바꾸어낼 수 있는 신선한 이미지를 창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27. 작가가 자신의 논의를 전개하는 방식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 ① 일정한 기준에 의해 대상을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 ② 권위 있는 사람의 견해를 인용하여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 ③ 한 대상을 다른 대상과 대조하면서 대상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상대방의 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 ⑤ 먼저 전제를 설정한 뒤, 논리적 순서에 의해 논의를 전개시키고 있다.

※ 다음은 주관식 문제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시오.

주관식 1. 다음을 잘 듣고 청소년이 무료로 박물관을 관람할 수 있는 조건을 두 가지 이상 쓰시오.

저희 박물관의 관람시간과 관람료 안내입니다. 관람시간은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입니다. 관람료는 일반인의 경우 2,000원이며, 청소년은 1,000원입니다. 단체의 경우 일반인이나 청소년 모두 500원입니다.

매월 넷째 토요일은 모든 관람객이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월 둘째

토요일은 청소년에 한해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한복을 입고 오시면 평일에는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고 주말에만 200원을 받습니다. 다만 한복을 입었더라도 단체 관람일 경우에는 500원의 입장료를 받습니다. 저희 박물관의 연중 휴관일은 1월 1일과 매주 월요일입니다.

저희 박물관에서는 관람객 여러분께 역사와 문화의 살아 있는 감동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주관식 2. 다음을 잘 듣고 청약가점제에서 가점의 기준이 되는 것을 두 가지 이상 쓰시오.**

2007년 9월부터 주택청약가점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청약가점제란 기존의 추첨식 방식과 달리 가구주의 연령이나 가구 구성원 수,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해 이를 합산한 종합 점수로 당첨자를 결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가구주의 나이와 가족 수가 많고 무주택 기간이 긴 청약자일수록 당첨 기회가 높아집니다. 구체적으로 무주택 기간에 따라 최하 2점에서 1년 단위로 2점씩 증가하여 최고32점으로 책정됩니다. 무주택 기간이 1년 미만이면 2점,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점입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부양가족이 0명이면 5점이고 1명이면 10점이 되며 최고점수는 35점입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6개월 미만이면 1점,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면 2점,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3점이 되며 이후 1년 단위로 1점씩 증가하여 최고점수는 17점이 됩니다.

⇒

---

**주관식 3. 다음을 잘 듣고 북한산의 단풍이 예년보다 늦어지는 이유를 쓰시오.**

올가을 단풍은 예년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연구팀의 관측 자료를 분석한 결과 9월 초의 기온은 지난해에 비해 0.7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예측해 본 결과 9월 하순 기온도 평년보다 높으며 10월 상순과 중순의 기온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중북부 내륙지방의 단풍은 예년보다 3일 정도 늦은 반면 남부 내륙지방 단풍은 예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북부 내륙지방의 단풍이 예년보다 늦어지는 이유는 아무래도 지구온난화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남부 내륙지방에 속하는 지리산의 경우 10월 6일 단풍이 들기 시작하고 한라산은 10월 13일 단풍이 들겠습니다. 중북부 내륙지방에 속하는 북한산의 경우 설악산의 단풍보다 이틀 정도 늦은 9월 29일 시작되어 다음 달 18일까지 절정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설악산은 다음 달 16일 절정에 이르면서 전체 산이 붉게 물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후가 변화하면서 단풍이 드는 시기에 변화가 생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

---

**주관식 4 다음은 어떤 글의 개요이다. 개요를 보고 이 글의 주제문을 쓰시오.**

- 서론: 대한민국은 정보 인프라 면에서 디지털 강국이지만 모든 사람이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본론(1)
  - 1) 인터넷 이용률은 고소득·고학력자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월등히 높다.
  - 2) 인터넷 이용률의 격차는 세대 간에 그리고 소외계층에서 뚜렷하게 확인된다.
- 본론(2)
  - 1) 정보 격차는 경제적 불평등 문제와 맞물려 사회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 2) 전자 민주주의의 가속화 속에 정치적으로 소외되는 계층이 발생한다.
- 결론: 본론의 요약 및 강조

⇒

---

주관식 5. ‘인터넷 실명제’ 를 소주제로 하여 한 문단을 쓰고자 한다. 제시된 소주제문을 뒷받침할 수 있는 뒷받침 문장을 <보기>의 요건에 맞도록 쓰시오.

익명성은 폭언, 욕설, 루머의 양산이라는 단점과 대중의 활발한 의사 표현을 이끈다는 장점을 지닌 양날의 검이다. \_\_\_\_\_  
\_\_\_\_\_

<보 기>

- 적절한 예를 한 가지 이상 든다.
- ‘인터넷 실명제’ 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밝힌다.
- ‘인터넷 실명제’ 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200자 내외로 제시한다.

\* 인터넷 실명제: 포털 사이트 등의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해 본인확인 과정을 거쳐야만 글을 올릴 수 있게 하는 제도

⇒ \_\_\_\_\_  
\_\_\_\_\_

주관식 6. 아래의 글과 같이 동물과 관련된 속담 한 가지를 활용하여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300자 내외의 한 단락의 글을 쓰시오.

며칠 전 지하철을 타고 가다 겪은 일이다. 빈자리는 없었지만, 그리 혼잡하지는 않은 지하철 안에서 다음 역에서 내리기 위해 보던 책을 가방에 넣고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던 순간이었다. 갑자기 옆쪽에 서 있던 몇 사람의 학생 가운데 하나가 엉덩방아를 찧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렸다. 자기들끼리 장난을 치다가 다리가 엉켜 넘어진 것이다. 그런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으로, 다들 내가 그 학생을 넘어뜨리거나 한 것처럼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무어라 말을 해야 했지만, 당황한 나머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꿈쩍없이 나는 멀쩡히 서 있던 학생을 넘어뜨린 나쁜 사람이 되고 만 것이다.

⇒

---

---

주관식 7. <보기>와 같이 주어진 단어와 구절을 모두 사용하여 짧은 글을 지으시오.(단, 필요할 경우 적절하게 변형하시오.)

〈 보 기 〉

·구사(驅使), 필수(必須), 자유자재(自由自在)

→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은 취업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 제시어 〉

·적합(適合), 설치(設置), 교량(橋梁)

⇒

---

---

주관식 8. <보기>의 조건을 지켜 ‘명절의 시장 풍경’에 대해 쓰시오.(단, 필요할 경우 적절하게 변형하시오.)

〈 보 기 〉

·예시의 방법을 사용할 것

·사자성어를 하나만 사용하여 표현할 것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150자 내외로 쓸 것

⇒

---

---

주관식 9. 다음 밑줄 친 부분은 ‘현재의 상황 + 정의문’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형태로 <조건>을 참조하여 글을 쓰시오.

1986년 미국에서 유전자 조작식품이 만들어진 이후 많은 국가에서 이에 대한 시험과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최근까지 40여 품종이 보급되고 있는데 제초제 저항성 품종, 해충 저항성 품종, 품질 개선 품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유전자 조작 식품이란 작물의 유전자를 조작해서 해충이나 잡초에 강한 품종을 만들어 병과 해충에 잘 견디도록 한 식품을 말한다. 이러한 유전자 조작식품이 개발되고 이용됨에 따라 그것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유전자 조작식품을 먹인 쥐에게서 이상이 발견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면서 인간에게도 유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유전자 조작식품에 대한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글에서는 찬반 논란의 근거를 들고 필자 나름의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 조 건 >

-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글을 쓴다.
- ‘현재의 상황’은 두 문장으로 쓰고, ‘정의문’은 한 문장으로 쓴다.

⇒

주관식 10. 다음 두 글을 참조하여 현재의 ‘결혼 예물 풍습’이 갖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자신의 견해를 밝혀 200자 내외로 쓰시오.

(가) 우리 민족의 혼례풍속에서 예물(대장함)을 신부 집에 드리는 풍습은 매우 오래된 것으로서 이 풍습은 남녀가 혼인할 것을 물증으로 약속하는 데에서 유래된다. 고대 삼국시대부터 아끼던 물품을 가지고 혼인을 약속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고대에는 조선시대와 같이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예물이 아니라 단순하고 간단한 증표를 교환하는 것이 예물이었다. 그런데 이 예물 풍습이 15, 16세기 주자가례가 조선에 유입되어 납폐(納幣)가 혼례절차의 중요한 절차가 되면서 일부 부유층에서 비싼 물품을 많이 넣어 보내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기 시작하였다. 사

실 주자가례에서 얘기하는 납폐의 뜻은 “여자 집에서 남자 집의 청혼을 허락해 준 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서 성의와 예를 다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인데, 예서에 이르기를 “신랑집에서 신부를 예로써 대하지 않으면 혼인하지 않는다”고 한, 신부 집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 그 본뜻이라 하겠다.

(나) 결혼식 당일, 허영은 예식장부터 시작됩니다. 하객 500명 기준으로 일반 예식장 비용은 천만 원에서 이천만 원. 특급 호텔은 5배가 넘는 1억 원이 소요됩니다. 능력이 부족해도 호텔예식을 원하는 예비부부는 점차 늘고 있습니다.

과시욕은 예복으로 이어집니다. 연예인과 일부 부유층의 전유물이던 유명 브랜드의 웨딩드레스. 사려면 1천만 원, 빌려 입는데도 300만 원 이상입니다. 수백만 원짜리 한복과 양복, 유명 브랜드 혼수까지 더하면 결혼하는 데 억대의 돈이 들어갑니다. 예물도 뺄 수 없습니다. 예물 판매 직원은 “10년 전만 해도 (다이아몬드) 1캐럿짜리 해 주면 잘했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1캐럿 대도 보통” 이라고 합니다. 일생에 한 번뿐인 사치라지만 보통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

---

---

### 3) 정답 및 채점 기준

#### □ 객관식 정답

1교시				2교시			
문항	정답	문항	정답	문항	정답	문항	정답
1	②	21	②	1	⑤	21	①
2	④	22	④	2	①	22	⑤
3	⑤	23	⑤	3	④	23	④
4	③	24	③	4	④	24	④
5	①	25	③	5	②	25	②
6	④	26	④	6	③	26	②
7	⑤	27	④	7	①	27	③
8	④	28	①	8	④		
9	③	29	①	9	②		
10	④	30	④	10	⑤		
11	④	31	③	11	①		
12	①	32	③	12	②		
13	②	33	④	13	④		
14	③	34	②	14	③		
15	④	35	④	15	①		
16	④	36	④	16	④		
17	②	37	⑤	17	⑤		
18	③	38	②	18	⑤		
19	②	39	②	19	③		
20	②			20	④		

□ 주관식 예시 답

문항번호	정답예시
주관식 1.	한복을 착용한다, 매월 둘째 토요일에 입장한다.
주관식 2.	'가구주의 연령, 가구 구성원 수,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부양가족 수' 중 택 2
주관식 3.	지구온난화, 기온의 상승
주관식 4.	<p>1) 정보화 사회의 정보 격차는 경제·정치적 불평등 문제와 관련이 있다.</p> <p>2) 인터넷 이용률은 정보의 격차를 낳아 경제·정치적 불평등을 사회 구조적으로 심화시킨다.</p>
주관식 5.	<p>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개인에게 가해진 무차별한 비난으로 인해 그 개인이 과도한 고통을 받는 사례는 익명성의 단점을 잘 보여주며 이를 막기 위해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 하지만 감시가 가능한 시스템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며 민주적 의사소통을 방해할 수 있다. 실명에 관한 정보는 엄격히 보호해야 하고 위법 내용이 없는 의견에 대해서는 익명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p>
주관식 6.	<p>지난 번 있었던 지하철 역사 취객 추락사고는 전형적인 인재사고이다. 수많은 인파가 좁은 승강장에 몰려든다면 언제고 생길 수 있는 문제였다. 같은 곳에서 4년 전 70대 노인이 인파에 밀려 철로에 떨어졌다가 아슬아슬하게 구출된 일도 있었다. 그때 안전 울타리를 만들고 자동 개폐식 문을 만든다면 수없이 홍보했던 지하철공사는 이번 사고에 대해 또 무슨 대책을 내놓을 것인가.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지만, 이번 사고는 '소 잃고도 외양간 고칠 생각을' 하지 않은 격이라 하겠다. 사고를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겠지만 줄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모습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p>
주관식 7.	<p>1) 이 곳은 교량을 설치하기에 매우 적합한 장소이다.</p> <p>2) 대형차가 통과하기에 적합한 교량을 설치해야 한다.</p>

주관식 8.	<p>명절의 시장은 평소보다 훨씬 활기차다. 사과, 배, 밤과 같은 과일을 파는 가게는 맛있는 햇과일을 싸게 사려는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푸줏간에서는 값싼 외국산 소고기가 아니라 우리 토종 한우를 사려는 사람들이 흑여 속지나 앓을까 무척이나 조심스럽게 고기를 살펴보고 있다.</p>
주관식 9.	<p>스크린쿼터제 속에서 한국 영화 산업이 가야흐로 전성기를 맞고 있다. ‘태극기 휘날리며’, ‘괴물’, ‘왕의 남자’ 등의 영화가 1천만 관객을 돌파했으며, 한국 영화의 해외 수출이 이어지고 있다. 스크린쿼터제란 모든 극장에서 1년 동안의 영화 상영 기간 중 73일 이상을 의무적으로 우리나라 영화를 상영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다.</p>
주관식 10.	<p>결혼 예물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그런데 도가 지나쳐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결혼 예물 때문에 아름답고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야 할 결혼이 고통스러운 과정이 되는 경우가 많다. 결혼의 본래 의미를 기억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예물이 두 사람의 사랑을 더욱 빛나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p>

## □ 주관식 정답 및 채점기준

### [문1]

정답 예시

한복 착용, 매월 둘째 토요일에 입장, 매월 넷째 토요일에 입장

정답 기준

- ① 한복 착용 시 무료입장
- ② 매월 둘째 토요일은 청소년만 무료입장
- ③ 매월 넷째 토요일은 모두 무료입장

- A ①, ②, ③ 가운데 둘 이상 서술  
C 한 요소만 쓴 경우  
F 무응답 혹은 전혀 물음과 무관한 답안

[문2]

정답 예시

가구주의 연령, 가구 구성원 수,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부양가족 수

정답 기준

- ① 부양가족 수에 대해 언급  
② 가구주의 연령, 가구 구성원 수  
③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작성 방식이 단답형인가 서술형인가 여부는 채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채점 기준

- A 둘 이상의 기준 요소 제시  
B 한 요소의 기준을 가점 점수와 연관하여 서술  
C 한 요소의 기준 요소만 제시  
F 무응답 혹은 전혀 물음과 무관한 답안

[문3]

정답 예시

지구온난화, 기온 상승, 기후 변화

정답 기준

- ① 지구 온난화 언급  
② 기온 상승 언급  
③ 기후 변화 언급

채점 기준

- A ①과 ②, ①과 ③을 인과적으로 언급한 경우
- B ①, ②, ③ 가운데 한 가지를 개별적으로 언급한 경우
- F 무응답 혹은 전혀 물음과 무관한 답안

[문4]

정답 예시

정보화 사회의 정보 격차는 정치, 경제적 불평등과 관계가 있다.  
 인터넷 이용률의 격차는 정보격차를 심화시켜 정치,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정답 기준

- ① 정보화 사회의 정보격차와 정치, 경제적 불평등 현상의 인과관계를 지적
- ② 인터넷 이용률의 격차와 정보격차의 인과관계를 지적
- ③ 완결된 문장 형태로 작성
- ④ 의문문, 부정문의 형태가 아니어야 함

채점 기준

- A ①, ③, ④ 또는 ②, ③, ④ 만족
- B ①이나 ②를 만족시키고 ③을 만족시켰으나 ④를 어긴 경우
- C ①이나 ②를 만족시키고 ④를 만족시켰으나 ③을 어긴 경우
- D ①이나 ②만 충족시킨 경우
- F 무응답 혹은 전혀 물음과 무관한 답안

[문5]

정답 예시

지하철에서 애완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아 문제가 되었던 ‘개똥녀’ 사건처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개인에게 가해진 무차별한 비난으로 인해 그 개인이 과도한 고통을 받는 사례는 인터넷 익명성의 문제를 잘 드러낸다. 인터넷 실명제를 통해 이를 막아야 한다. 하지만 인터넷 공간은 쉽게 감시를 할 수 있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민주적 의사소통을 방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개인의 실명 관련 정보를 엄격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위법사항이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익명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 정답 기준

- ① 예시의 적절성
- ② 적절한 주제의 제시 - 장점, 단점
- ③ 예시와 주제의 긴밀성
- ④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170-230자 분량, 어법과 어문규정을 준수.

#### 채점 기준

- A 위 기준을 모두 충족시킨 경우
- B 위 기준에서 한 요소의 적절성이 떨어지는 경우
- C ① 혹은 ②를 반드시 포함하여 두 요소 충족
- D ① 혹은 ②만 제시한 경우
- F 무응답 혹은 전혀 물음과 무관한 답안

#### [문6]

##### 정답 예시

지난 번 있었던 지하철 역사 취객 추락사고는 전형적인 인재사고이다. 수많은 인파가 좁은 승강장에 몰려든다면 언제고 생길 수 있는 문제였다. 같은 곳에서 4년 전 70대 노인이 인파에 밀려 철로에 떨어졌다가 아슬아슬하게 구출된 일도 있었다. 그때 안전 울타리를 만들고 자동 개폐식 문을 만든다면 수없이 홍보했던 지하철공사는 이번 사고에 대해 또 무슨 대책을 내놓을 것인가.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지만, 이번 사고는 '소 잃고도 외양간 고칠 생각을' 하지 않은 격이라 하겠다. 사고를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겠지만 줄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모습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 정답 기준

- ① 동물과 관련된 속담을 사용(의미의 이해)했는가
- ② 상황에 따른 예를 적절히 제시했는가

- ③ 제시된 예와 속담의 연결이 자연스러운가.
- ③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250자에서 400자의 범위 내에서 서술했는가
- ④ 어법과 어문규범을 잘 지켰는가

채점 기준

- A 위 기준을 모두 충족시킨 경우
- B 위 기준에서 한 요소의 적절성이 떨어지는 경우
- C ①과 ②의 내용을 썼으나 ③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D ①의 속담의 의미만 쓴 경우
- F 무응답 혹은 전혀 물음과 무관한 답안

[문7]

정답 예시

이곳은 교량을 설치하기에 적합한 장소이다  
 대형차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게 적합한 교량을 설치해야 한다.

채점 기준

- A 주어진 단어를 활용하여 적절한 문장을 만든 경우(속담과 단어가 함께 결합되어야 함.) 단어 3 + 문장력 1
- B 의미에 맞게 적용한 단어가 2 문장력
- C 의미에 맞게 2개 이상의 단어를 썼으나, 문장이 맞지 않는 경우
- D 단어의 의미가 1개 정도만 맞는 경우
- F 무응답 혹은 전혀 물음과 무관한 답안

[문8]

정답 예시

명절의 시장은 평소보다 활기차다. 사과, 배, 밤과 같은 과일을 파는 가게는 맛있는 햇과일을 싸게 사려는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푸줏간에서는 값싼 외국산 소고가 아니라 우리 토종 한우를 사려는 사람들이 하여 속지나 않을까 무척이나 조심스럽게 고기를 살펴보고 있다.

정답 기준

- ① 예시의 방법을 사용했는가
- ② 사자성어를 하나만 사용했는가
- ③ 글의 흐름이 자연스러운가
- ④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120-180자 범위로 서술했는가
- ⑤ 어법과 어문규범을 지켰는가

채점 기준

- A 위 기준을 모두 충족시킨 경우
- B 위 기준에서 한 요소의 적절성이 떨어지는 경우
- C ①과 ②의 내용을 썼으나 ③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D ①의 사자성어의 의미만 풀어 쓴 경우
- F 무응답 혹은 전혀 물음과 무관한 답안

[문9]

정답 예시

과거 신분제 사회의 경우에는 세습되는 신분으로 인해 개인의 능력과는 무관하게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었으나 현대는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사회적 신분상승을 이룰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근본으로 삼고 있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 현상은 점점 심화되고 있다. 이처럼 개인의 능력과는 무관한 경제적, 사회적 제도의 문제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사회적 지위의 불평등 현상을 가리켜 '사회적 불평등'이라 한다.

정답 기준

- ① '사회적 불평등'의 개념을 정의문의 형태로 서술했는가.
- ② 현재의 상황을 서술했는가.
- ③ 현재의 상황을 두 문장으로 서술했는가(어법/어문규정)
- ④ 일관성, 긴밀성

채점 기준

- A 위 조건을 모두 충족시킨 경우
- B ①과 ②를 서술하되 ③ 또는 ④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 C ① 또는 ②의 한 경우만 충족하여 두 문장 이상
- D 사회적 불평등에 대해 쓰되 한 문장 혹은 형식을 갖추지 못한 경우
- F 무응답 혹은 전혀 물음과 무관한 답안

[문10]

정답 예시

결혼 예물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그런데 도가 지나쳐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결혼 예물 때문에 아름답고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야 할 결혼이 고통스러운 과정이 되는 경우가 많다. 결혼의 본래 의미를 기억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예물이 두 사람의 사랑을 더욱 빛나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정답 기준

- ① 결혼 예물 풍습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
- ② 자신의 견해를 분명히 드러낼 것
- ③ 문제점과 견해의 긴밀성
- ④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180-220자, 혹은 띄어쓰기를 제외하고 180-220자 범위 내에서 자연스럽게 서술할 것, 어법과 어문규범을 지킬 것

채점 기준

- A 위 조건을 모두 충족시킨 경우
- B ①과 ② 조건을 모두 충족시켰으나 ③이나 ④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 C ① 혹은 ② 중 한 내용만 쓰되 단락형으로 ④의 요건을 충족
- D 결혼예물풍습에 대한 총평만 쓴 경우
- F 무응답 혹은 전혀 물음과 무관한 답안

## 4) 시행지침

다음은 수험대상자 및 수험시행자에게 발송한 시행지침이다. 이 시행지침은 효율적인 시험 시행을 위한 것이므로, 본 평가에서도 구체적이고 정치하게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

=====

<국립국어원 주관 (재)한국언어문화연구원 시행 전국민 국어능력향상을 위한 평가문항개발 시안 모의평가> 시행 지침

### 1. 수험자 공지사항

본 시험은 국립국어원에서 국어기본법에 의거하여 개발, 시행할 예정인 전국민 대상 국어능력평가의 문항개발을 위한 모의평가입니다. 본 시험을 통해 얻은 결과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적인 국어능력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평가문항 개발에 활용함으로써 국가 단위의 국어능력향상 및 국어규범 마련의 행정적 지표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재)한국언어문화연구원이 개발하고 시행하는 본 평가에 응시하는 수험자 여러분의 개인정보 및 성적 자료는 모의평가 결과 분석 및 문항개발 이외에는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본 평가가 전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국어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실히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2. 시험 시행

#### (1) 시험 시행 개괄

- 본 평가는 객관식으로 구성된 1교시(39문항, 70분)와 객관식과 주관식이 혼용되는 2교시(35문항, 80분)로 구성됩니다.

- 2교시는 듣기평가가 포함됩니다. 듣기평가용 Tape이나 CD를 이용하여 진행하

십시오.

- 시험 종료 후 문제지와 답안지는 배송 박스에 포장하여 아래 주소로 택배 발송해 주십시오.

(137-889) 서울시 서초구 양재 1동 61번지 오창빌딩 2층 (재)한국언어문화연구원

- 기타 문의사항은 재단 연구실((02)3462-0850 서형범 연구원, 강수미 팀장)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2) 시험지 및 답안지 배부

- 각 교시별 답안지와 시험지를 배부합니다. 배부 및 시험 시행 소요 시간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내용	소요 시간		비고
1교시 배부	- 문제지 및 답안지 배부 - 인적사항 기입	5분	80분	
1교시 시행	- 답안 작성	70분		
1교시 종료	- 문제지 및 답안지 수거	5분		
2교시 배부	- 문제지 및 답안지 배부 - 인적사항 기입	5분	90분	
2교시 시행	- 답안 작성	80분		
2교시 종료	- 문제지 및 답안지 수거	5분		

- 1교시와 2교시 사이의 시간은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감독관과 수험자는 고사장을 이탈할 수 없습니다. 용변의 경우 감독관의 판단 하에 최소 인원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반드시 문제지와 답안지를 함께 수거해야 합니다. 수령한 문제지와 답안지의 개수와 수거된 문제지와 답안지의 개수 및 실제 응시인원을 확인하십시오.

## (3) 답안지 작성 관련 지침

- 답안은 컴퓨터용 사인펜만으로 작성합니다. 주관식 답안의 경우 흑색 또는 청색 사인펜이나 볼펜으로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연필을 사용할 경우 채점 시 판독이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 인적사항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기입합니다.
- 성명은 맨 앞에서부터 띄어 쓰지 않고 기입합니다. 다섯 글자 이상의 성명을 가진 수험자는 앞에서 네 글자까지만 기입합니다.
-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감독관이 소지하고 있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합니다. 임의의 수정테이프나 수정액을 사용할 경우 컴퓨터 판독이 불가능합니다.
- 원칙적으로 답안지 교체는 불가합니다. 감독관이 판단하여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 시험 종료 10분 이전까지에 한하여 교체할 수 있으며, 교체한 답안지는 폐기 하여 주십시오.
- 본 평가용 답안지를 따로 제작하지 않았으므로 1교시용 답안지는 1번부터 39번 까지만 답안을 작성하고 이후 번호는 비워둡니다.
- 2교시 답안지는 2교시용 답안지와 함께 1교시용 답안지(별도 묶음으로 구분 함)와 동일한 답안지를 하나 더 배부합니다. 2교시의 객관식 문항의 답안은 1교시 용 답안지에 1번부터 27번까지만 답안을 작성합니다. 주관식 답안은 2교시용 답안지에 작성해야 합니다. 수험자들에게 이 점을 확실히 주지시켜야 합니다.
- 수험번호는 학생들의 학번으로 대신합니다.
- 저희 답안지는 8자리까지만 지원합니다. 그러므로 학번의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험번호 기입을 지도하여 주십시오. 학생들의 학번이 7자리 이하일 경우 맨 앞에 1이나 11을 붙여 8자리로 만들어 기입하도록 지도하십시오.
- 1교시와 2교시로 구분하여 각 교시별 수험자 명단을 함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2007-345678일 경우 맨 앞의 2를 제외한 8자리를 수험번호로 합니다.

예) 99101-23392일 경우 맨 앞의 99를 제외한 8자리를 수험번호로 합니다.

예) 2342515일 경우 맨 앞에 1을 붙여 8자리를 수험번호로 합니다.

#### (4) 시험 감독 관련

- 반드시 2인 이상의 감독관이 입회하여 시험을 시행하십시오.
- 시험이 시작되면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퇴실한 수험자는 재입실이 불가능합니다. 평가의 공정성과 평가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 2. 평가 결과 및 분석 내용

### 1) 개념 설명

#### □ 문항난이도(問項難易度)

문항난이도란 문항의 쉽고 어려움을 나타내는 지수로, 흔히 문항의 정답률을 사용한다. 여기서 정답률이 높으면 쉬운 문항이 되고 정답률이 낮으면 어려운 문항이 된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난이도'란 '쉽고 어려움의 정도'라는 중립적인 의미로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높다거나 혹은 낮다거나 하는 말을 할 수 없는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난이도가 높거나 낮은 것이 아니라, 난이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정답률이 높거나 혹은 낮다고 말해야 한다. 그리고 관련되는 용어 중 '곤란도'란 '어려움의 정도'이기 때문에 곤란도가 높으면 어려운 문항이 되고, 곤란도가 낮으면 쉬운 문항이 된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문항 정답률을 계산하는 일반 공식은 다음과 같다.

$$\text{정답률}(P) = \text{응시자들의 득점 평균} \div \text{문항의 만점}$$

예를 들어, 서술형 A 문항의 만점이 10점이고, 응시자들의 득점 평균이 7.5점이면 이 문항의 정답률은 0.75가 된다. 참고로, 선택형 문항의 경우에는 다음의 간편 공식을 이용할 수도 있다.

$$\text{정답률}(P) = \text{정답을 한 응시자 수} \div \text{전체 응시자}$$

예를 들어, 선택형 B 문항에 정답을 한 응답자가 전체 100명 중 85명이면 이 문항의 정답률은 0.85가 된다.

## □ 문항변별도(問項辨別度)

문항변별도란 문항이 응시자의 능력을 변별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흔히 개별 문항 점수와 그 문항의 점수를 제외한 검사 총점 간의 상관계수를 사용한다. 참고로 변별도를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sup>1)</sup>.

$$\text{문항에 대한 변별도}(d) = \frac{\sum xy}{NS_xS_y}$$

X : 특정 문항의 점수

Y : 해당 문항의 점수를 제외한 검사의 총점

$\bar{X}$  : X의 평균

$\bar{Y}$  : Y의 평균

x : X -  $\bar{X}$

y : Y -  $\bar{Y}$

N : 응시자 총수

Sx : X의 표준편차

Sy : Y의 표준편차

이때, 변별도(d)의 범위는 -1.0에서부터 +1.0까지이며, 변별도의 부호가 양(+)이면 문항 점수가 높을수록 검사 총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

1) 이 공식에 대해 부연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상관계수 = 두 변인간의 공변량(혹은 공분산)을 각 변인의 표준편차로 나눈 값, 즉 공변량을 표준화시킨 것임.

■ 두 변인간의 공변량 =  $\frac{\sum xy}{N}$

※ 공변량: 두 변인이 동시에 같이 변하는 정도

(☞ 서로 대응되는 두 점수가 각 변인의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서로 곱함으로써 면적이 나오고, 이 면적의 평균값이 공변량이 됨)

※ 변량 = 표준편차의 제곱 =  $\frac{\sum x^2}{N}$  ⇒ 변인 X와 같은 X와의 공변량 ⇒ 이것을 표준화시키면 1이 됨.

며, 반대로 변별도의 부호가 음(-)이면 문항 점수가 높을수록 검사 총점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변별도가 크면 클수록 상대적으로 좋은 문항이라 할 수 있다. 대체로, 변별도 0.3을 기준으로 0.3보다 크면 클수록 변별력이 좋은 문항이라 할 수 있으며, 반대로 0.3보다 적으면 적을수록 변별력이 좋지 않은 문항이라 할 수 있다. 상관계수가 0.3 미만인 문항은 수정·보완하거나, 혹은 검사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요인분석(要人分析, Factor Analysis)이란 여러 변인(혹은 문항)으로 구성된 측정도구의 내용을 몇 개의 요인(factor)으로 줄이거나 여러 변인들 간의 상호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통계적 기법이다. 다시 말해서, 요인분석이란 여러 개의 관찰변인(측정변인 혹은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소수의 잠재변인(혹은 요인)을 이용하여 설명하는 통계적인 방법으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첫째, 여러 개의 변인들을 적은 수의 요인으로 줄인다. 여러 개의 변인들을 동질적인 몇 개의 요인으로 묶어 줌으로써 변인들 내에 존재하는 상호 독립적인 차원을 발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둘째, 변인들의 특성을 파악한다. 관련된 변인들이 묶여져 요인을 이루고 이들 요인들은 상호 독립적인 특성을 가지게 되므로 변인들의 특성을 밝힐 수 있다. 셋째, 불필요한 변인들을 제거한다.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에 포함되지 않거나 포함되더라도 중요도가 낮은 변인을 찾을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변인을 제거할 수 있다. 넷째,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판정한다. 요인으로 묶여지지 않은 변인들을 추출함으로써 중요하지 않은 변인들을 선별해서 제거하거나 그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 다섯째, 요인분석결과를 지수화하여 차후의 회귀분석, 상관분석, 판별분석을 위한 분석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많

은 수의 초기 변인들을 몇 개의 새로운 변인으로 줄이면서도 원래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요인분석 결과에서 고유치(eigenvalue)는 특정 요인에 부하된 모든 변인의 부하량을 제공하여 합한 값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별 요인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나타내어 요인 추출의 근거가 된다. 고유치 값이 1.0보다 작으면 해당 요인은 한 변인의 변량도 채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요인을 추출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1.0보다 작은 경우는 요인 추출에서 제외한다(Kaiser's rule). 추출할 요인의 수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스크리 도표(scree plot)를 확인하는데, 이를 통해 고유치를 크기 순으로 차례로 좌표축에 표시한 것으로 고유치가 더 이상 감소하지 않고 안정되어 가는 지점이 어디인가를 시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 □ 문항반응이론(Item Response Theory: IRT)

문항반응이론은 문항의 특성과 피험자 특성의 함수관계에 의해 피험자가 문항에 정답을 할 확률을 수학적으로 나타내는 측정 모형의 하나이다. 기존의 고전검사이론(classical test theory: CTT)이 집단의 평균이나 검사의 총점에 대한 분석을 중시하는 집단중심적 이론이었다면, 문항반응이론은 각 개인의 특성과 각 문항의 특성의 함수관계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개인 중심적 혹은 문항 중심적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문항반응이론을 이용하여 검사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검사자료가 '검사의 일차원성(unidimensionality)'과 '문항의 지역 독립성(local independence)' 가정을 만족시켜야 한다. 검사의 일차원성이란 검사를 구성하는 모든 문항이 단일한 능력이나 특성을 재는 것이어야 한다는 가정을 의미하며, 요인분석에서 첫 번째 요인의 고유치(eigenvalue)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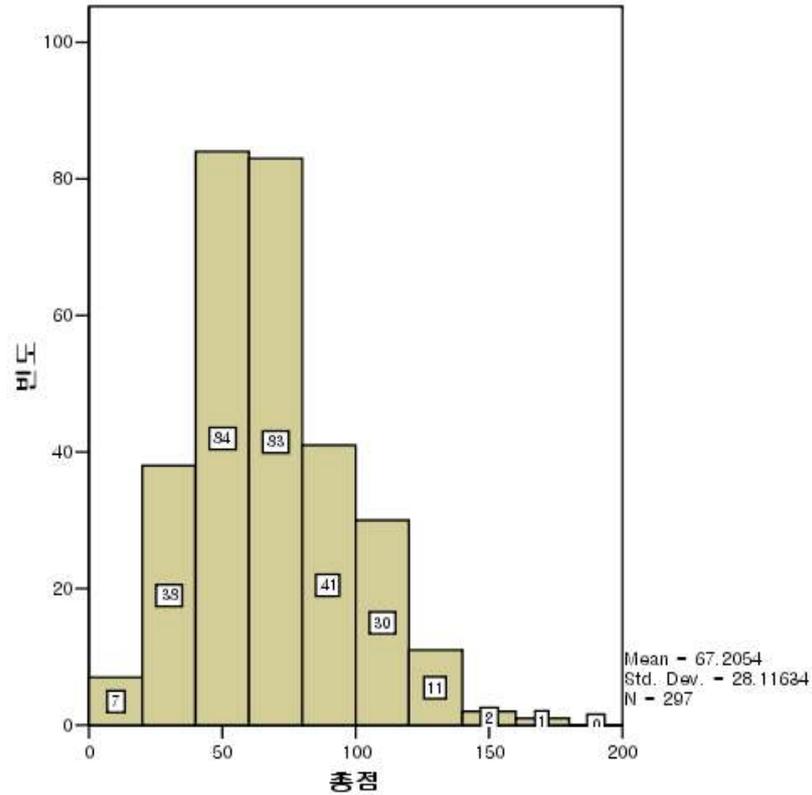
다른 요인의 고유값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크다면 가정이 확보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문항의 지역 독립성 가정은 추정된 문항의 모수치가 그 문항모수치를 추정하는 데 이용된 피험자 집단 특성 분포에 관계없이 일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문항모수치가 측정하고자 하는 특성과 관련된 피험자의 능력에 의해서만 결정될 뿐 다른 요인들로부터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문항적합도 검증(item fit statistics)을 하여 적합한 문항일 경우 간접적으로 문항독립성 가정을 만족시킨다고 판단한다. 또한 문항독립성 가정을 만족시킨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문항 일차원성이 만족된다고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문항반응이론에서는 특정 문항에 대해 정답을 할 확률이 피험자의 능력이 높아질수록 커진다는 가정을 하는데, 이는 S자 모양의 형태를 띠고 증가하는 함수인 문항특성곡선(item characteristic curve)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항반응이론은 피험자의 능력모수치를 검사를 구성하고 있는 문항들의 특성이나 검사에 참여한 집단의 특성과 무관하게 비교적 안정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개별 피험자의 능력수준에 따라 보다 정확한 측정의 오차를 추정할 수 있다.

현재 이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문항반응이론 모형으로는 함수에 포함되는 모수의 수에 따라 1모수 문항반응모형(라쉬 Rasch 모형이라고도 부름), 2모수 문항반응모형, 3모수 문항반응모형이 있고, 기본모형에서 확장된 형태로 등간척도모형(rating scale model), 부분점수 모형(partial credit model) 등을 들 수 있다.

## 2) 자료 분석

□ 총점 분포: 172점 만점



<그림 1> 점수별 분포도

점수 구간	학생 수	비율(%)	누적 비율(%)
180 ~ 200	0	0.00	0.00
160 ~ 180	1	0.34	0.34
140 ~ 160	2	0.67	1.01
120 ~ 140	11	3.70	4.71
100 ~ 120	30	10.10	14.81
80 ~ 100	41	13.80	28.62
60 ~ 80	83	27.95	56.57
40 ~ 60	84	28.28	84.85
20 ~ 40	38	12.79	97.64
0 ~ 20	7	2.36	100.00
합계	297	100.00	

<표 6> 점수별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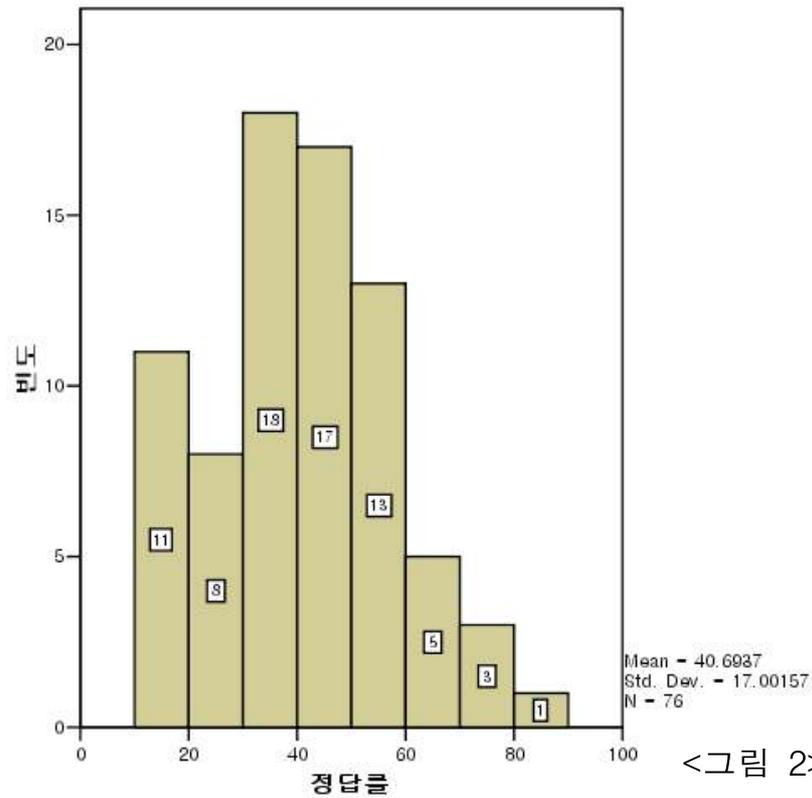
□ 문항별 종합분석표

문항	정답	배점	분석 사례수	평균점수	정답률(%)	변별도
1	2	정답: 2점 오답: 0점	297	0.94	47.14	0.30
2	4		297	0.65	32.32	0.06
3	5		297	1.56	77.78	0.41
4	3		297	0.51	25.25	0.23
5	1		297	0.81	40.40	0.26
6	4		297	1.52	76.09	0.40
7	5		297	1.15	57.58	0.33
8	4		297	1.13	56.57	0.38
9	3		297	0.94	47.14	0.30
10	4		297	0.21	10.44	-0.10
11	4		297	0.75	37.37	0.21
12	1		297	0.79	39.39	0.34
13	2		297	0.75	37.71	0.24
14	3		297	0.60	29.97	0.09
15	4		297	0.98	48.82	0.33
16	4		297	1.21	60.27	0.48
17	2		297	1.47	73.40	0.44
18	3		297	1.10	55.22	0.43
19	2		297	0.83	41.41	0.28
20	2		297	0.63	31.31	0.27
21	2		297	0.97	48.48	0.31
22	4		297	1.04	52.19	0.34
23	5		297	1.10	55.22	0.41
24	3		297	1.16	58.25	0.34
25	3		297	0.77	38.38	0.27
26	4		297	0.34	17.17	0.01
27	4		297	0.73	36.70	0.30
28	1		297	0.73	36.70	0.38
29	1		297	0.75	37.71	0.30
30	4		297	0.55	27.27	0.28
31	3		297	0.71	35.35	0.22
32	3		297	0.56	27.95	0.23
33	4		297	1.00	50.17	0.35
34	2		297	0.84	41.75	0.40
35	4		297	0.70	35.02	0.34
36	4		297	0.96	47.81	0.46
37	5		297	0.45	22.56	0.20
38	2		297	0.66	33.00	0.19
39	2		297	0.28	14.14	-0.03
40	5		297	1.69	84.51	0.31
41	1		297	1.10	55.22	0.28
42	4		297	1.30	64.98	0.26
43	4		297	0.29	14.48	-0.06
44	2		297	0.87	43.43	0.32
45	3		297	0.85	42.42	0.17
46	1		297	0.83	41.41	0.20

47	4		297	1.14	56.90	0.44
48	2		297	1.28	63.97	0.39
49	5		297	0.72	36.03	0.27
50	1		297	0.27	13.47	0.08
51	2		297	0.22	10.77	-0.17
52	4		297	0.82	41.08	0.35
53	3		297	1.29	64.31	0.52
54	1		297	1.00	50.17	0.51
55	4		297	1.21	60.27	0.35
56	3		297	0.28	13.80	0.00
57	5		297	0.77	38.72	0.31
58	3		297	0.42	21.21	0.12
59	4		297	0.76	38.05	0.27
60	1		297	0.75	37.37	0.30
61	5		297	0.99	49.49	0.47
62	4		297	1.17	58.59	0.37
63	4		297	1.08	54.21	0.42
64	2		297	1.06	52.86	0.42
65	2		297	0.65	32.32	0.40
66	3		297	0.88	43.77	0.40
67	주관식	4점 3점 2점 1점	297	1.61	40.15	0.41
68			297	1.62	40.57	0.46
69			297	1.96	48.99	0.37
70			297	0.77	19.36	0.59
71			297	1.00	24.92	0.56
72			297	0.85	21.13	0.62
73			297	1.26	31.48	0.61
74			297	0.69	17.17	0.59
75			297	0.45	11.28	0.56
76			297	0.50	12.46	0.49
평균			297	0.88	40.69	0.31

<표 7> 문항별 종합 분석표

□ 정답률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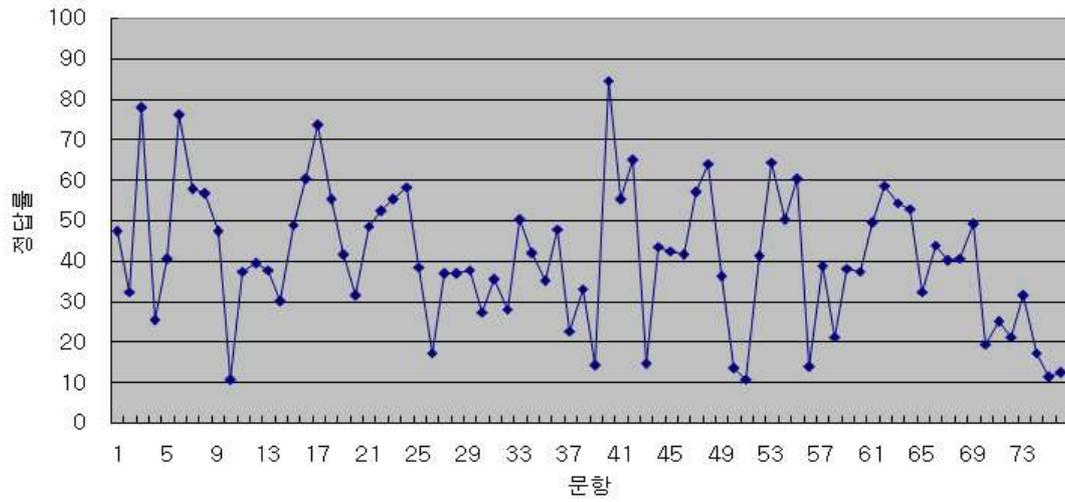


<그림 2> 정답률 분포도

구간	해당 문항	문항 수	비율(%)
90이상~100미만	*	0	0.00
80~90	40	1	1.32
70~80	3, 6, 17	3	3.95
60~70	16, 42, 48, 53, 55	5	6.58
50~60	7, 8, 18, 22, 23, 24, 33, 41, 47, 54, 62, 63, 64	13	17.11
40~50	1, 5, 9, 15, 19, 21, 34, 36, 44, 45, 46, 52, 61, 66, 67, 68, 69	17	22.37
30~40	2, 11, 12, 13, 20, 25, 27, 28, 29, 31, 35, 38, 49, 57, 59, 60, 65, 73	18	23.68
20~30	4, 14, 30, 32, 37, 58, 71, 72	8	10.53
10~20	10, 26, 39, 43, 50, 51, 56, 70, 74, 75, 76	11	14.47
0~10	*	0	0.00
합계		76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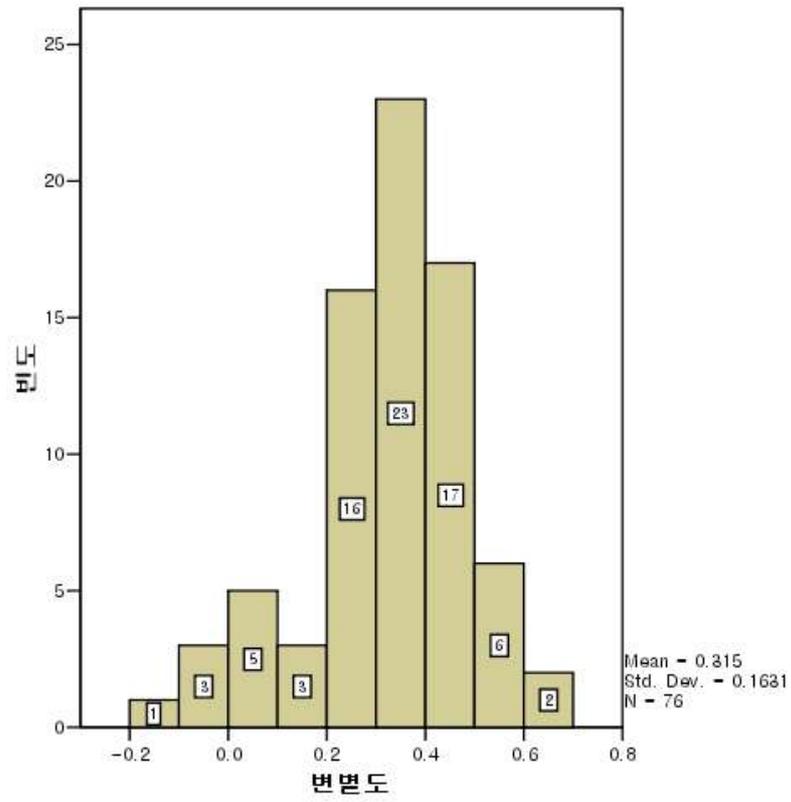
<표 8> 정답률 분포도

문항별 정답률



<그림 3> 문항별 정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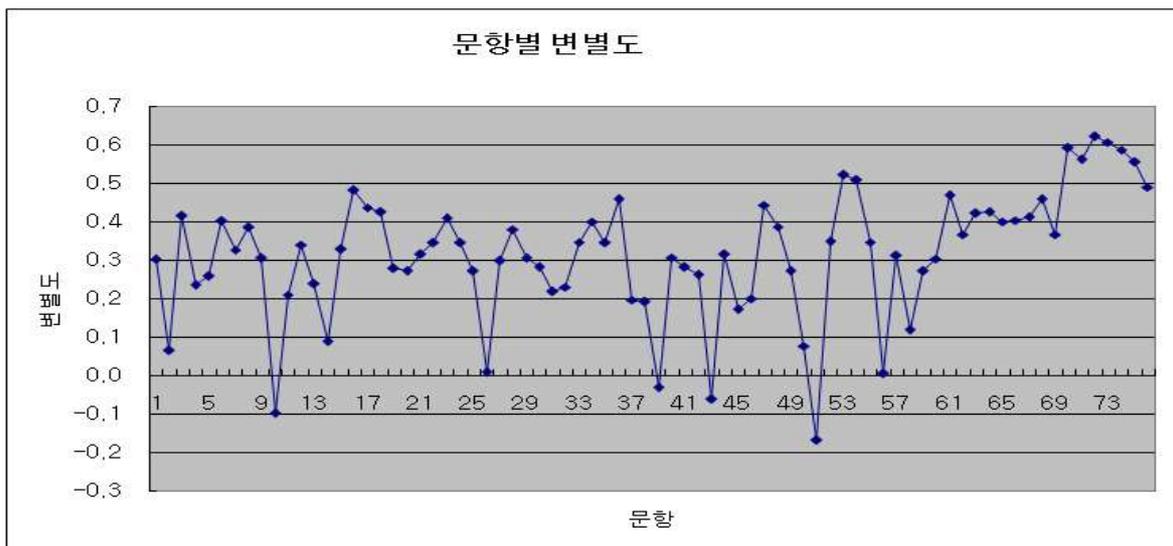
# □ 변별도 분포



<그림 4> 변별도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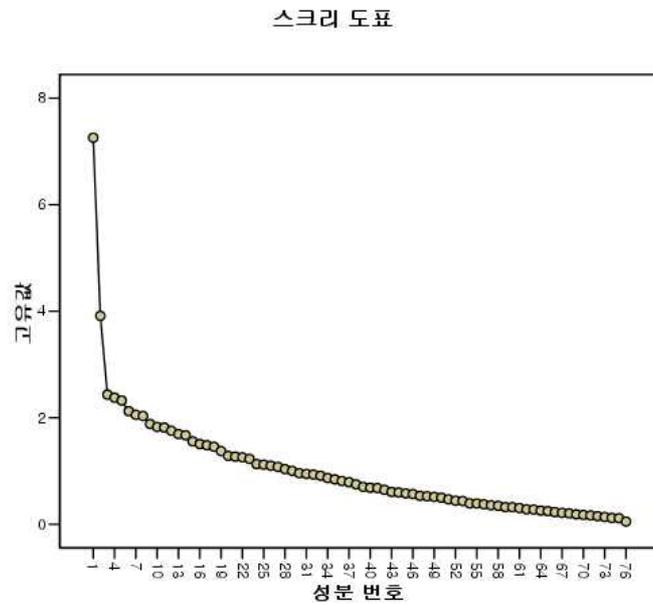
구간	해당 문항	문항 수	비율(%)
0.6 ~ 0.7	72, 73	2	2.63
0.5 ~ 0.6	53, 54, 70, 71, 74, 75	6	7.89
0.4 ~ 0.5	3, 6, 16, 17, 18, 23, 36, 47, 61, 63, 64, 66, 67, 68, 76	15	19.74
0.3 ~ 0.4	1, 7, 8, 9, 12, 15, 21, 22, 24, 28, 29, 33, 34, 35, 40, 44, 48, 52, 55, 57, 60, 62, 65, 69	24	31.58
0.2 ~ 0.3	4, 5, 11, 13, 19, 20, 25, 27, 30, 31, 32, 41, 42, 49, 59	15	19.74
0.1 ~ 0.2	37, 38, 45, 46, 58	5	6.58
0.0 ~ 0.1	2, 14, 26, 50, 56	5	6.58
-0.1 ~ 0.0	10, 39, 43	3	3.95
-0.2 ~ -0.1	51	1	1.32
-0.3 ~ -0.2	*	0	0.00
<b>합계</b>		76	100.00

<표 9> 변별도 분포도



<그림 5> 문항별 변별도

□ 요인분석



<그림 6> 요인분석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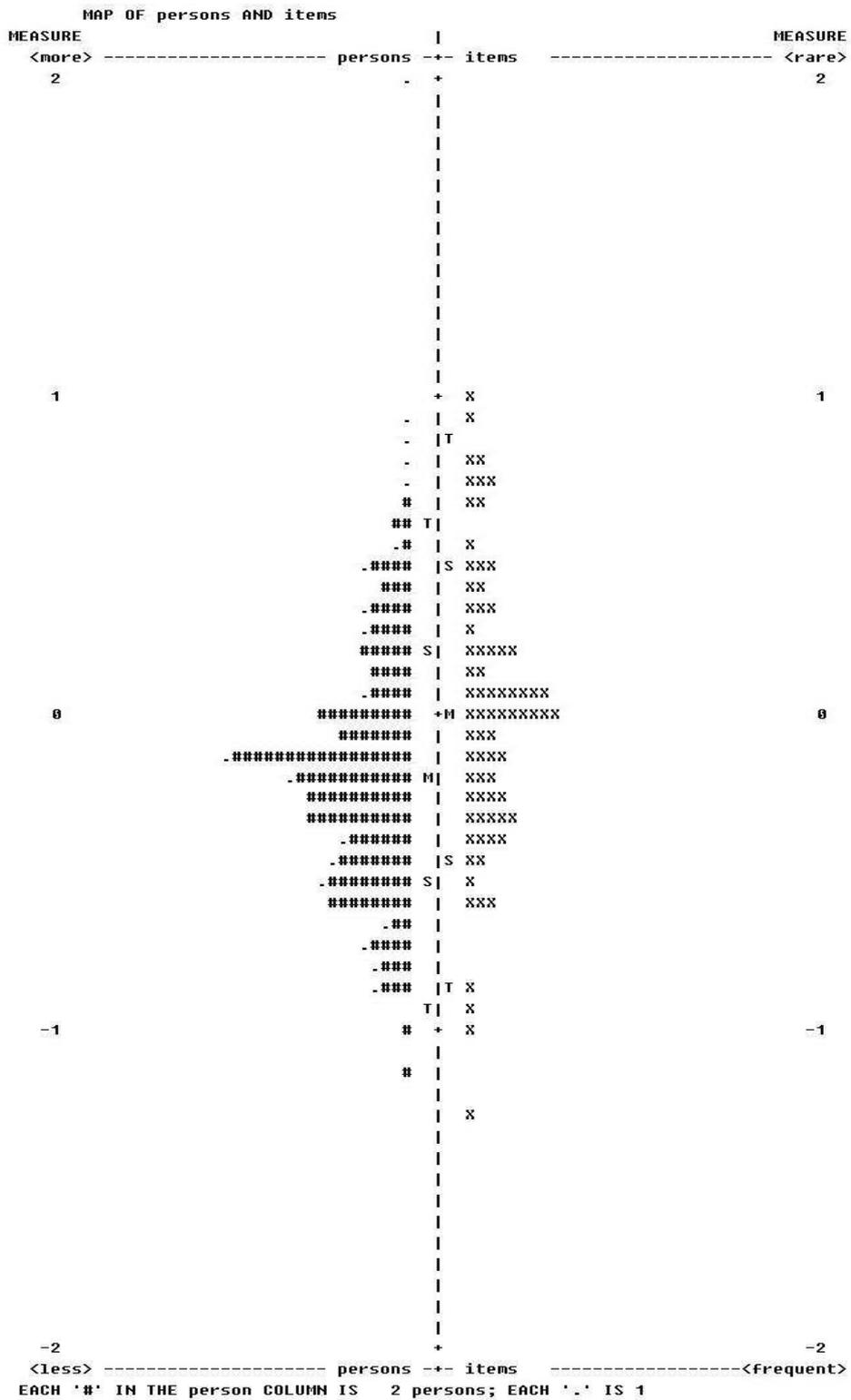
요인	고유값	설명량(%)	누적 설명량(%)
1	4.91	5.45	5.45
2	1.90	2.11	7.56
3	1.64	1.83	9.38
4	1.51	1.68	11.07
5	1.40	1.55	12.62
6	1.36	1.51	14.13
7	1.26	1.40	15.52
8	1.25	1.39	16.91
9	1.23	1.37	18.28
10	1.22	1.35	19.64

<표 10> 요인 분석값

주성분 기법(Principle Component Analysis)으로 추출, (고유값 ≥ 1: 총 35개 요인)

# □ IRT를 활용한 분석 (피험자-문항 지도)

TABLE 1.1 Korean improvement Z0U795ws.txt  
 INPUT: 297 persons, 76 items MEASURED: 297 persons, 76 items, 8 CATS 3.47



<그림 7> IRT 분석

### 3. 전문가 검토 의견 및 반영 내역

모의평가의 설계, 출제에서 시험 시행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내용을 진행과정에 반영하였던 바 그 반영 양상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1) 평가 목표와 관련된 의견 수렴 및 반영

□ 보다 분명한 목표가 설정되어야 함. 국어 정책 수행에 대한 평가와 반성의 기준점을 제공한다는 목표는 좀더 구체성을 지녀야 실천력이 확보될 것임.

=> 하나의 제안사항으로 평가의 수행 주체인 국어원이 본 평가 실시에 앞서 분명한 목표를 제시할 수 있도록 건의함. 1차년도 보고서에 목표의 양상들이 제시되어 있음.

□ 국어사용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평가의 효용성을 논하기 어려움. 모의시험 시행 과정에서 소수의 집단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어려웠기에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됨.

=> 평가를 수행하기 전에 그 취지를 널리 알리고 충분한 시간 동안 표본집단에 대한 사전 접근이 필요함을 체득함. 이 역시 제안사항으로 제시함. 여기에는 예산상의 문제도 관련됨.

□ 국어능력이라는 개념에 대한 분명한 규정과 인식이 필요함. 특히 출제과정에서 이에 대한 인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방향성을 찾기 어려울 것임.

=> 이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이 예비시험의 경험을 바탕으로 심화된 연구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로 판단함. 국어능력의 평가 결과는 매우 민감한 문제이므로 학계의 충분한 동의를 얻기 위한 과정이 필요함.

## 2) 표본 선정과 관련된 의견 수렴 및 반영

□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안이 지니는 타당성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많음. 특히 지역별, 연령대별 표본이 지니는 의미가 클 터인데 그러한 요인이 반영되기 어려움.

=> 예산상의 문제로 의미 있는 표본을 설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연구자들이 접근이 용이한 대상을 찾게 됨. 의견 수렴 후 수도권에 한정되었던 표본을 각 지역별로 안배가 될 수 있도록 재설계하고 실시함. 그러나 수험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연구자들의 인적 관계를 동원한 표집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음.

□ ‘동질적인 성격’ 을 지닌 집단을 지속적으로 표본으로 설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겨냥하였지만 대학 간, 학과 간, 정규와 비정규강의 참여자 간의 편차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됨.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수험자들이 인적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는 일에 대해 그리 적극적이지 않아서 그와 같은 변수가 어떻게 작용했는지 판단하기 어려움. 그렇지만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내용을 참조할 때 개연성이 큰 것으로 판단됨. 제안사항으로 제시함.

□ 지역별 안배라는 측면을 고려하였다고 하지만 해당 대학들이 그 지역의 대표성을 지녔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시됨.

=> 대표성을 논하는 일은 매우 어려움. 특히 대학의 전형요소나 입학자 정보들을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최소한의 판단근거도 없음. 다만 의견을 최대한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학생들이 보다 다수일 것으로 판단되는 대학을 선택하는 방안을 취함.

### 3) 출제 전반과 관련된 의견 수렴 및 반영

□ 소요되는 시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예를 들어 강의 대체 및 평가 결과 제공이라는 인센티브를 내세웠지만 강의 시간을 초과하는 수험단계에 대해서는 현저하게 낮은 참여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남.

=> 문항 구성에서 듣기 평가 문항을 현재보다 줄여 편성하도록 제안함.

=> 모의평가에서 70+80분 체제로 설계하였으나 이는 일반적인 강의 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3시간에 해당함. 따라서 2시간 이내에 수험을 마칠 수 있도록 2교시 듣기 평가 문항의 상당량을, 1교시 읽기 문항의 일부를 줄이는 쪽으로 조정안을 냄.

□ 평가의 결과 일반적인 시험 결과와 상당한 편차를 보이는 맥락이 엇 보이는데 그 원인에 대한 탐색이 필요함.

=> 평가 결과 구어적 상황과 문어적 상황에 거의 유사한 비중으로 노출되어 있다고 판단한 대학생들이 예상 외로 듣기 평가에 약세(수학능력 시험의 정답률과 비교했을 때)를 보였다는 점이 주목됨. 이는 평가문항이 과다했거나 난도가 높았을 개연성을 말해주는데, 연구진은 시험 감독자들의 의견을 고려할 때 문항의 과다 쪽으로 판단함. 이 근거로도 듣기 문항의 축소가 불가피함.

□ 앞의 두 항목에서 제기된 의견과 판단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된 구성안을 제시함.

영역	문항 유형	문항 수	시간	
읽기	선택형	30 → 25	1교시 70분	1-5 어휘문법 6-25 실용문
쓰기 1	선택형	9 → 5	-> 60분	25-30 비실용문
듣기	선택형	30 → 10	2교시	

쓰기 2	선택형/단답형	9	16(100)	80분 -> 60분	
	서술형(1문장)	4			
	서술형(2문장)	2			
	서술형(1-2문단)	1			

<표 11> 수정된 문항 구성안

#### 4) 개별 문항과 관련된 의견 수렴 및 반영

개별 문항의 출제와 검토과정에서 다양한 검토 의견이 개진되어 문항 제작에 반영되었으나 그 세부적인 내역을 모두 제시하기는 어려우므로 다음 두 가지로 나누어 기술하기로 한다.

첫째, 출제와 시행과정에서 연구진 및 전문가들로부터 전반적인 검토의견이 많이 제기되었던 듣기와 쓰기 영역에 대한 분석결과를 상세히 제시한다. 이 분석 결과는 국어능력과 관련된 평가들에서 두루 나타나고 있는 보편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이후 본 평가 문항 설계 시에 참고가 될 것이다.

둘째, 이 시험의 전체적인 구도를 놓고 볼 때 반복되어 나타날 수 있는 특징적인 문제점을 보이는 문항들을 특정하여 분석하고 그 내용을 출제지침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의견을 정리한 내용이다.

위 두 가지 내용은 이후 본 평가 설계 시에 단계에 따라 적절하게 참조하면 의미 있는 평가 결과 산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 □ 평가 결과를 통한 문항 분석 개괄

##### ○ 읽기 영역

- 전문적인 학술문이나 시사 교양문을 최대한 배제하고 실용문을 중심으로 제시문을 선택하였으므로 수험자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나 최신의 시사 교양 관련 정보를 동원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필요는 없었음.

- 일상생활에서 접할 법한 다양한 제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물음에는 별 어려움 없이 정답을 찾아내었음.
- 제시된 내용에 대한 비판적 이해 및 추론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의 경우, 정확한 정답을 고르지 못한 경우가 많음.

### ○ 듣기 영역

- 시각 정보가 병행 제시되지 않아 수험자들의 집중도가 가장 크게 요구된 평가 영역임. 따라서 모의 평가에 임하는 수험자들의 성실도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함.
- 담화 방식이나 추론을 요하는 문항에 대한 정답률이 낮게 나왔음. 이는 들은 내용을 문제 해결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기억하는 능력 및 종합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여겨짐.
- 시각 자료를 병행 제시하여 담화의 내용을 기억하는 데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문항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 검사의 구성 및 결과

듣기 영역 평가 문항은 선택형(객관식) 문항 27문항과 서술형(주관식) 문항 3문항 등 3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담화 유형별로 살펴보면 강연 4문항, 인터뷰 8문항, 뉴스 7문항, 토론 3문항, 일상 대화 2문항, 강의 대화 1문항, 보고 2문항, 안내 1문항, 해설 1문항, 설명 1문항으로, 대체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한 담화를 중심으로 출제하였다. 평가 요소별로는 정보의 확인(개괄적 정보 파악, 중심 내용 파악, 세부 내용 파악)과 관련한 문항이 13문항, 추론(제목 추리, 내용 추리, 관점 추리, 의도 추리)과 관련한 문항이 13문항, 평가 및 감상과

관련한 문항이 4문항으로, 정보의 확인 및 추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을 중심으로 출제하였다. 듣기 영역 검사지의 구성 및 검사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문항번호	담화유형	평가 요소	정답	평균점수	정답률 (%)	변별도	비고
1	강연	제목 추리하기	⑤	1.69	84.51	0.31	
2	인터뷰	중심 내용 파악하기	①	1.10	55.22	0.28	
3	인터뷰	중심 내용 파악하기	④	1.30	64.98	0.26	
4	뉴스	세부 내용 파악하기	④	0.29	14.48	-0.06	
5	인터뷰	세부 내용 파악하기	②	0.87	43.43	0.32	
6	인터뷰	내용 추리하기	③	0.85	42.42	0.17	
7	인터뷰	중심 내용 파악하기	①	0.83	41.41	0.20	
8	토론	내용 추리하기	④	1.14	56.90	0.44	
9	대화	말하기 방식 평가하기	②	1.28	63.97	0.39	
10	인터뷰	관점 추리하기	⑤	0.72	36.03	0.27	
11	토론	말하기 방식 평가하기	①	0.27	13.47	0.08	
12	뉴스	내용 추리하기	②	0.22	10.77	-0.17	
13	강연	제목 추리하기	④	0.82	41.08	0.35	
14	대화	말하기 방식 평가하기	③	1.29	64.31	0.52	
15	토론	내용 추리하기	①	1.00	50.17	0.51	
16	뉴스	내용 추리하기	④	1.21	60.27	0.35	
17	강의대화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③	0.28	13.80	0.00	
18	보고	내용 이해 및 적용하기	⑤	0.77	38.72	0.31	
19		내용 이해 및 적용하기	③	0.42	21.21	0.12	
20	강연	세부 내용 파악하기	④	0.76	38.05	0.27	
21		의도 추리하기	①	0.75	37.37	0.30	
22	뉴스	개괄적 정보 파악하기	⑤	0.99	49.49	0.47	
23		말하기 방식 평가하기	④	1.17	58.59	0.37	
24	뉴스	내용 추리하기	④	1.08	54.21	0.42	
25		담화 구조 파악하기	②	1.06	52.86	0.42	
26	인터뷰	중심 내용 파악하기	②	0.65	32.32	0.40	
27		논지전개방식 파악하기	③	0.88	43.77	0.40	
주관식 1	안내	세부 정보 파악하기	-	1.61	40.15	0.41	
주관식	해설	세부 정보 파악하기		1.62	40.57	0.46	

2							
주관식 3	설명	내용 추리하기		1.96	48.99	0.37	
평균				0.96	43.78	0.30	
*객관식은 정답 2점, 오답 1점으로, 주관식은 4점, 3점, 2점, 1점으로 배점하였음.							

<표 12> 듣기 영역 검사지의 구성 및 검사 결과

듣기 영역의 평가 결과 30문항의 정답률은 10.77%에서 84.51%에 분포하였으며, 평균 정답률은 43.78%로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간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정답률 구간	해당 문항	문항 수	비율(%)
90 이상100 미만	*	0	0.00
80~90	1	1	3.33
70~80	*	0	0.00
60~70	3, 9, 14, 16	4	13.33
50~60	2, 8, 15, 23, 24, 25	6	20.00
40~50	5, 6, 7, 13, 22, 27, 주1, 주2, 주3	9	30.00
30~40	10, 18, 20, 21, 26	5	16.67
20~30	19	1	3.33
10~20	4, 11, 12, 17	4	13.33
0~10	*	0	0.00
합계		30	100.00

<표 13> 듣기 영역 정답률 구간별 문항 분포

### ○ 쓰기 영역

- 제시된 시각 정보를 활용하여 재구성하고 이를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려 함.
- 객관식의 경우 글쓰기의 단계와 방법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다양한 글쓰기 단계를 문제화하였음.

- 검사의 구성 및 결과

쓰기 영역 평가 문항은 선택형(객관식) 9문항과 서술형(주관식)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선택형 문항의 경우 자료의 선정과 해석 3문항, 단락 및 글의 구성 3문항, 표현 및 퇴고 3문항 등으로 구성하였고, 서술형 문항의 경우 작성해야 할 답안의 분량에 따라, 1문장 2문항, 3문장 1문항, 150자 내외 1문항, 200자 내외 2문항, 300자 내외 1문항으로, 1문장에서부터 300자 내외 한 문단(7문장 정도)의 글을 직접 써 보게 하는 문항으로 출제하였다.

서술형 문항에서 써야 할 글의 서술 방식은 정의, 기술, 서사, 논증 등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묻고자 하였고, 문장 단위의 글은 주제문 작성, 중심 문장을 뒷받침하는 문장의 작성 등 비교적 긴 글의 개요와 주제의 구성, 문단의 구성 등 글 구성의 기본 능력을 확인하는 데 검사의 초점을 맞추었다. 쓰기 영역 검사지의 구성 및 검사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문항 번호	평가 요소	평균 점수	정답률 (%)	변별도	비고 (정답/답안 분량)
31	자료 해석하기	0.71	35.35	0.22	③
32	도표 해석하기	0.56	27.95	0.23	③
33	주제에 알맞은 자료 찾기	1.00	50.17	0.35	④
34	서론과 어울리는 본론 찾기	0.84	41.75	0.40	②
35	단락 구성의 적절성 평가하기	0.70	35.02	0.34	④
36	소주제문의 뒷받침 문장 찾기	0.96	47.81	0.46	④
37	반어법 활용하여 표현하기	0.45	22.56	0.20	⑤
38	퇴고하기	0.66	33.00	0.19	②
39	분류 및 예시의 방식으로 글쓰기	0.28	14.14	-0.03	②
주관식4	개요에 맞는 주제문 쓰기	0.77	19.36	0.59	1문장
주관식5	중심 문장의 뒷받침 내용 쓰기	1.00	24.92	0.56	200자 내외
주관식6	속담 활용하여 사건 서술하기	0.85	21.13	0.62	300자 내외

주관식7	단어 활용하여 문장 쓰기	1.26	31.48	0.61	1문장
주관식8	예시, 사자성어 사용하여 풍경 묘사하기	0.69	17.17	0.59	150자 내외
주관식9	상황 진술하고 개념 정의하기	0.45	11.28	0.56	3문장
주관식10	문제 해결 방안 제시하기	0.50	12.46	0.49	200자 내외
평 균			27.85	0.40	

<표 14> 쓰기 영역 검사지의 구성 및 검사 결과

쓰기 영역 전체 문항의 정답률은 11.28%에서 50.17% 사이에 분포하였으며, 평균 정답률은 27.85%로 낮게 나타났다. 이를 문항 유형별로 살펴보면, 객관식 9문항의 정답률은 14.14%에서 50.17% 사이에 분포하였으며, 평균 정답률은 34.19%로 낮았고, 주관식 7문항의 정답률은 11.28%에서 31.48% 사이에 분포하였으며, 평균 정답률은 19.69%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간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정답률 구간	해당 문항	문항 수	비율(%)
90 초과 ~ 100 이하	*	0	0.00
80 초과 ~ 90 이하	*	0	0.00
70 초과 ~ 80 이하	*	0	0.00
60 초과 ~ 70 이하	*	0	0.00
50 초과 ~ 60 이하	33	1	6.25
40 초과 ~ 50 이하	34, 36	2	12.50
30 초과 ~ 40 이하	31, 35, 38, 주7	4	25.00
20 초과 ~ 30 이하	32, 37, 주5, 주6	4	25.00
10 초과 ~ 20 이하	39, 주4, 주8, 주9, 주10	5	31.25
0 초과 ~ 10 이하	*	0	0.00
합 계		16	100.00

<표 15> 쓰기 영역 정답률 구간별 문항 분포

## □ 출제지침화를 위한 검토 및 반영 양상

### ○ 읽기 영역

#### - 1교시 2번 문항

① 문제점: 변별도가 매우 낮음(0.06).

② 검토 의견: 어휘문제가 일반적으로 정답률은 낮지만 변별도는 높은 점을 감안할 때 문제 자체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됨. 특히 수험자들에게 높은 난도로 인식되는 한자의 미세한 차이를 읽어내도록 요구했다는 점에서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임.

③ 수정안: 현재의 정답이 너무 미세한 차이를 요구하므로 그것을 맞는 내용으로 주고 일반인들이 보다 익숙하게 느낄만한 단어를 답으로 만들도록 함.

④ 출제 지침화: 어휘의 경우 정답률은 낮지만 변별도는 높은 것이 일반적인 상황인데도 너무 미세한 접근을 요구하면 문항의 타당도가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출제함.

#### - 1교시 10번 문항

① 문제점: 정답률(10.44)과 변별도가 매우 낮음(-0.10).

② 검토 의견: 생활문이라고는 하지만 이해와 낮은 수준의 적용을 요구하는 문제임에도 이러한 선택지 반응양상이 나타난 것은 정답에 해당되는 선택지만 다른 선택지들과 차별성이 커서 그렇다고 판단됨. 다른 선택지들은 생활상의 사례를 쉬운 맥락에 넣어 구성하였는데 정답에 해당되는 선택지만 어려운 법조문에 기대어 구성하였기 때문임.

③ 수정안: 다른 선택지들과 마찬가지로 구성하여 선택지의 난이도를 낮춤.

④ 출제 지침화: 선다형 선택지 구성 시 다른 선택지들과 동떨어진 하나의 선택지가 있으면 그것이 실제로 정답일 가능성이 높거나

그렇다고 생각할 여지를 많이 주게 되는데, 이 경우와 같이 마이너스 변별도가 나오는 것은 선택지 내용 자체가 너무 어려워 판단 자체가 안 되기 때문임. 다른 선택지들과의 지나친 차별성도 문제지만 이해도는 높여야 함.

- 1교시 14번 문항

① 문제점: 일상적 문제해결을 다룬 읽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답률(29.97)과 변별도(0.09)이 낮음.

② 검토 의견: 제시문의 성격 상 분량과 정보량이 비례하다보니 하나의 문제를 풀기 위해 너무 많은 정보를 처리해야 함. 또한 제시문 외에도 <보기> 형식으로 또 다른 정보가 추가되어 부담감이 가중됨. 상당한 집중력이 없으면 접근하기 어려움.

③ 수정안: 전체적인 정보량을 줄이고 문제해결에 필요한 노력도 축소함.

④ 출제 지침화: 일상적인 문제를 다룬다 하더라도 문제해결을 위해 많은 정보를 다 탐색해야 한다면 웬만한 집중력이 아니고서는 포기하는 경향이 클 것임. 집중력 테스트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양의 문제로 전환되지 않도록 함.

- 1교시 26번 문항

① 문제점: 어느 정도의 이해력과 낮은 정도의 적용력을 묻는 문제인데, 정답률(17.17)도 낮고 변별도(0.01)도 매우 낮은 결과를 보여줌.

② 검토의견: 발문의 의미가 불분명함. 수험자의 입장에서 무엇을 근거로 답을 선택하라는지 판단하기 어려움.

③ 수정안: 발문을 수정하여 출제자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함.

④ 출제 지침화: 발문은 간결하면서도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다듬지 않으면 문제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게 됨.

○ 듣기 영역

- 2교시 4번 문항

① 문제점: 여러 유형의 시험에서 듣기 문항은 대체로 높은 정답률을 보이도록 설계됨. 그런데 이 문항은 정답률(14.48)이 매우 낮고 변별도(-0.06) 또한 매우 낮음.

② 검토 의견: 이 문항은 발문이 불분명하고 선택지들의 선별 기준이 매우 미세하여 마이너스 변별도를 보인 것으로 판단됨. 문제의 의도는 뉴스의 핵심을 찾으라는 것이겠지만 발문에 쓰인 '잘 이해한 발언'이라는 구절이 그러한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내 주지 못함. 또한 선택지 ③④⑤가 미세한 차이로 경합하고 있어 선택지를 찾는 데 어려움이 많음.

③ 수정안: 발문을 보다 분명히(한번 듣고 지나친다는 상황을 고려하여) 하고 선택지들 간의 차이를 보다 크게 함.

④ 출제 지침화: 듣기 문항에서는 읽기와 달리 미세한 차이를 두어 선택지를 선택하게 하면 문항의 타당도가 현저히 떨어짐.

- 2교시 12번 문항

① 문제점: 듣기 문항으로 이해력을 묻고 있는데, 정답률(10.77)과 변별도(-0.17)가 매우 낮다.

② 검토 의견: 정선택지의 지표가 듣기 문항에 어울리지 않는 '미세함'에 있기 때문임. 수험자들이 듣기 과정에서 '대화 부족'이라는 현상에 주목하게끔 보도 내용을 구성하였는데 선택지에서는 '가족' 간의 대화가 아닌 '타인'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③ 수정안: 듣기 상황에 맞게 선택지의 재초점화를 피함

④ 출제 지침화: 들려주는 내용의 흐름과 선택지의 흐름이 같은 초점을 유지하도록 함.

○ 쓰기 영역

- 1교시 39번 문항

① 문제점: 주어진 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평가력을 묻는 문제인데, 분석을 요하는 맥락이 그리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답률(14.14)도 매우 낮고 변별도(-0.03)도 지나치게 낮다.

② 검토 의견: 발문이 상당히 길어 충분한 정보를 준다고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요구 사항이 정확하게 잡히지 않는다. 즉 제시문을 참조하여 선택지들을 평가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선택지 자체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하라는 것인지 잘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정선택지가 일종의 함정을 내포하고 수험자는 예시 항목들의 위상이 같은지를 따지고 있는데, 정선택지는 '사교육'이라는 단어에 포인트를 두어 답을 찾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③ 수정안: 제시문을 이용하라고 하든지 단독적인 활동을 하라고 하든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하고 아울러 함정과 같은 요소를 배제함.

④ 출제 지침화: 문제의 포인트가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나도록 선택지를 구성해야 한다.

- 주관식 6번 문항

① 문제점: 속담을 활용하여 짧은 글을 구성하는 문제이며, 정답률(21.13)과 변별도(0.62)이다.

② 검토 의견: 발문의 '아래와 글과 같이'가 분명한 지침을 제공하지 못하므로 실제 답안에서 정답이 요구하는 것과 같은 충분한 구성력을 보이지 못함.

③ 수정안: 발문을 수정하여 답안 작성 지침 명시.

④ 출제 지침화: 자신의 경험을 글의 소재로 삼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창의적 답안의 작성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답안 작성 지침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수험자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음.

## 4. 평가 결과 반영 수정 문제

### 1) 1교시 2번 문항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을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나 표현으로 바꾼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 보 기 >

군축을 위한 남북 고위급 협상이 다음달 10일에 열린다는 발표가 있는 뒤 ㉠조야(朝野)의 반응은 가지각색이다. 협상 ㉡주무부서(主務部署)인 통일부는 이번 협상이 남북 간 평화 체제를 확립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발점(始發點)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반면, 몇몇 사회단체들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문제가 ㉣타결(妥結)되지 않는다면 이번 협상은 오히려 불행한 결과를 ㉤초래(招來)할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① ㉠조야(朝野) → 정부 기구와 NGO
- ② ㉡주무부서(主務部署) → 책임을 맡은 부서
- ③ ㉢시발점(始發點) → 실마리
- ④ ㉣타결(妥結)되지 → 해결되지
- ⑤ ㉤초래(招來)할 → 불러 올

정답: ①

### 2) 1교시 10번 문항

다음은 저작권법 법조문의 일부분이다. 저작권 위반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4관 저작재산권의 양도·행사소멸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①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②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46조(저작물의 이용 허락)

①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 ① 구입한 음악 CD 여러 장의 음원을 편집하여 판매하는 행위
- ② 구입한 영화 DVD의 국가 식별코드를 해제하여 유통시키는 행위
- ③ 구입한 음악 CD를 허락 없이 공적인 장소에 군중을 모아 유료로 재생하는 행위
- ④ 구입한 영화 DVD를 다 본 뒤, 영화에 대한 감상평을 작성하여 개인 저서에 수록하는 행위
- ⑤ 구입한 게임 CD의 배경 음악을 뽑아내어 다른 음악들과 섞어 음악 CD로 제작하여 판매하는 행위

정답: ④

### 3) 1교시 14번 문항

다음 안내문을 잘못 이해한 것은?

#### <열람실 운영 방법 변경 시행 안내>

본교 중앙도서관은 2007.09.17부터 다음과 같이 일반열람실의 운영을 시행합니다.

▶ 운영 방법 : ‘본교 학생 전용열람실’ 과 ‘개방열람실’ 로 분리 운영

○ 본교 학생 전용열람실

- 1, 2, 3A, 3B열람실 (1~3층, 2,250석)

- 이용자 범위 : 재학생, 휴학생 및 본교 졸업생 중 학생증 또는 열람실 출입증 소지자

※ 단, 자료실 출입증 및 회원증은 별도.

※ 재학생 모바일 열람증으로는 출입불가(자료실은 출입가능)

- 이용 시간 : 현행과 동일

○ 개방열람실

- 5, 6열람실 (5~6층, 1,032석)

- 이용자 범위 : 일반인, 지역주민 등 출입증 없이 자유로운 출입 허용

※ 단, 중·고교생 및 비학습자 제외

▶ 본교 졸업생 출입증 발급

학기 단위로 신청자들 중 200명을 컴퓨터 추첨 방식으로 선정하여 발급(학기 초)

2007년 2학기 출입증 유효기간 : 2007.09.17 - 2008.02.28

▶ 휴학생 출입증 발급

○ 사용하던 학생증이 있는 경우

- 중앙대출실에 ‘휴학생도서관이용신청서(홈페이지 다운로드)’ 제출하여 데이터를 수정한 학생증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함.

○ 사용하던 학생증이 없는 경우

- 상호대차실에 ‘출입증발급신청서’, 사진, 발급수수료 1만원을 제출.

▶ 기타사항

미반납도서, 미납연체료가 있는 휴학생 또는 졸업생은 출입증을 발급할 수 없음.

재학생 시험기간에는 모든 열람실을 재학생 전용으로 운영할 수 있음.

학생증 및 출입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1년간 도서관 출입을 금함.

- ① 지역 중·고교생이더라도 개방열람실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 ② 자료실 출입증을 가진 본교 학생은 1~3열람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③ 졸업생 출입증은 매 학기 추첨으로 발급하며 유효기간 동안에만 사용할 수 있다.
- ④ 사용하던 학생증이 있는 휴학생의 경우라도 미반납도서가 있으면 출입증을 받을 수 없다.
- ⑤ 사용하던 학생증이 있는 휴학생의 경우 별도의 신청서를 통해 정보를 수정하면 출입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안내문의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 ‘본교 학생 전용 열람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의 조건에 “자료실 출입증 및 회원증은 별도”라는 주의 사항을 고려할 때, ②에서처럼 자료실 출입증으로는 1~3열람실을 이용할 수 없다.



## 6) 2교시 4번 문항

다음은 뉴스의 일부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앵커(여) > 하반기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만 경기 회복 때문에 걱정이 늘어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바로 전력회사들이네요. 올 봄에 에어컨이 많이 팔린 데다 공장가동률이 높아져 여름 전력 수요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력회사들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남) > 경기회복세와 함께 에어컨이 많이 팔린 데다 공장가동률도 높아지고 있어 이래저래 올여름 시간당 최대 전력 수요량은 6천만kw의 벽을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요가 갑작스레 늘어날 경우에 대비한 전력은 604만kw로 예비전력율이 10년 만에 한자릿수인 9.8%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은 여름철 심야시간대에 전기를 쓰는 업체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또 이런 방식으로 올해 전체 전력수요 중 9.6% 정도를 낮춰 6백만kw, 즉 원자력 발전소 여섯 기를 줄이는 효과를 거두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전력거래소 측은 이상고온이 닥칠 경우에도 4백 만kw 정도의 예비전력은 남을 것이라며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는 것은 좋지만 그 만큼 올여름 전력 수급사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잘 들으셨지요? 뉴스의 내용과 관련이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올해 여름철 전력수요는 예년보다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② 전력 소모가 많아지면서 여름철 예비전력율이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③ 전기 사용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전기회사들이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 ④ 전력 사용이 특정 시간대에 집중되면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공장을 가동할 수 없게 될 것이다.
- ⑤ 심야에 전기를 사용하는 공장은 조금 더 저렴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어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답: ④

## 7) 2교시 12번 문항

다음은 뉴스의 일부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앵커(남) > 통계청이 우리 국민의 행복을 저해하는 다섯 가지 요소를 발표했습니다. 서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여) > 통계청에서 이번에 우리 국민의 행복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해 발표를 했습니다. 통계청이 꼽은 첫 번째 요인은 맞벌이 주부의 지나친 가사노동입니다. 우리나라 맞벌이 주부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시간은 3시간 30분인 반면, 남편은 30분에 불과합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기구 국가 가운데 가장 긴 근로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가정생활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이 또한 행복을 저해하는 요소입니다. 긴 근로시간으로 인해 자기계발에 사용하는 시간도 부족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시간 특히 가족 간의 대화 시간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대화시간의 경우 TV나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의 1/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대화부족은 스트레스,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를 야기하고 사회적으로 범죄, 자살 등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부·봉사활동의 부족도 행복을 가로막는 요인입니다. 지난해 복지단체 등에 후원금을 낸 사람은 전체 국민의 32%로 미국인 개인 기부비율 76%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12. 보도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기부·봉사활동에 참가하면 행복감을 높일 수 있다.
- ② 가족 간의 대화 시간이 부족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TV시청 때문이다.
- ③ 대화 부족은 정신적 문제뿐만 아니라 범죄와 자살 같은 사회적 문제도 야기한다.
- ④ 긴 근로시간은 가정생활시간의 부족, 자기계발 시간의 부족을 야기하는 원인이다.
- ⑤ 맞벌이 주부의 행복저해 요인을 줄이기 위해서는 남편과 가사노동을 분담해야 한다.

정답: ②

## 8) 2교시 주관식 6번

아래의 글은 동물과 관련된 속담을 이용하여 상황을 잘 드러낸 글이다. 아래의 글과 같이 동물과 관련된 속담 한 가지를 활용하여 한 단락의 글을 쓰시오.

### < 보 기 >

-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300자 내외
- 어법과 어문규범을 지킬 것

며칠 전 지하철을 타고 가다 겪은 일이다. 빈자리는 없었지만, 그리 혼잡하지는 않은 지하철 안에서 다음 역에서 내리기 위해 보던 책을 가방에 넣고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던 순간이었다. 갑자기 옆쪽에 서 있던 몇 사람의 학생 가운데 하나가 엉덩방아를 찧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렸다. 자기들끼리 장난을 치다가 다리가 엉켜 넘어진 것이다. 그런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으로, 다들 내가 그 학생을 넘어뜨리거나 한 것처럼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무어라 말을 해야 했지만, 당황한 나머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꼼짝없이 나는 멀쩡히 서 있던 학생을 넘어뜨린 나쁜 사람이 되고 만 것이다.

⇒

---

---

## IV. 본 평가 사업 수행과 관련된 제안

1.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표본 수집의 수월성이 뒷받침되어야 함. 그런데 피험자들의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보상책을 마련할 수 없어 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음. 최소한의 보상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어야 원활한 표본 선정과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비용 절감을 위해 (재)한국언어문화연구원의 기존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모의 평가 대상 집단을 추출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 협조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행정적 협조를 얻기 위해서도 예산상의 뒷받침이 필요함.

예) 강의 시간을 할애하여 수험을 허락하고 감독 및 자료 발송까지 담당해주는 교수 및 강사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 필요

3. 본 사업을 통해 얻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결과물을 정책판단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국어원의 요구사항 및 모의 평가 시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침이 분명히 제시되어야 함.

4. 사업에 따른 정책적 홍보가 선행되어야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특히 표본의 윤곽이 설정되면 잠재적 표본을 향한 국어원측의 홍보 전략이 필요함.

연구책임자: 김 동 환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 졸업(문학박사)

주요 저서 ‘한국 전후문학 연구(삼지원, 1989)’

‘문학 연구와 문학 교육(한성대출판부, 2005)’

‘한국 근대 서사양식의 서사성과 지식의 상관성  
연구(연극과 인간, 2005)’

현 한성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국어능력검정모의시험 방법 연구

---

발행인	이상규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3동 827 전화: 02-2669-9775 팩스 02-2669-9727
인쇄일	2007년 12월 28일
발행일	2007년 12월 31일
인쇄	서울문화사

---



국립국어원  
2008-01-02

국  
어  
능  
력  
검  
정  
모  
의  
시  
험  
방  
법  
연  
구



국  
립  
국  
어  
원